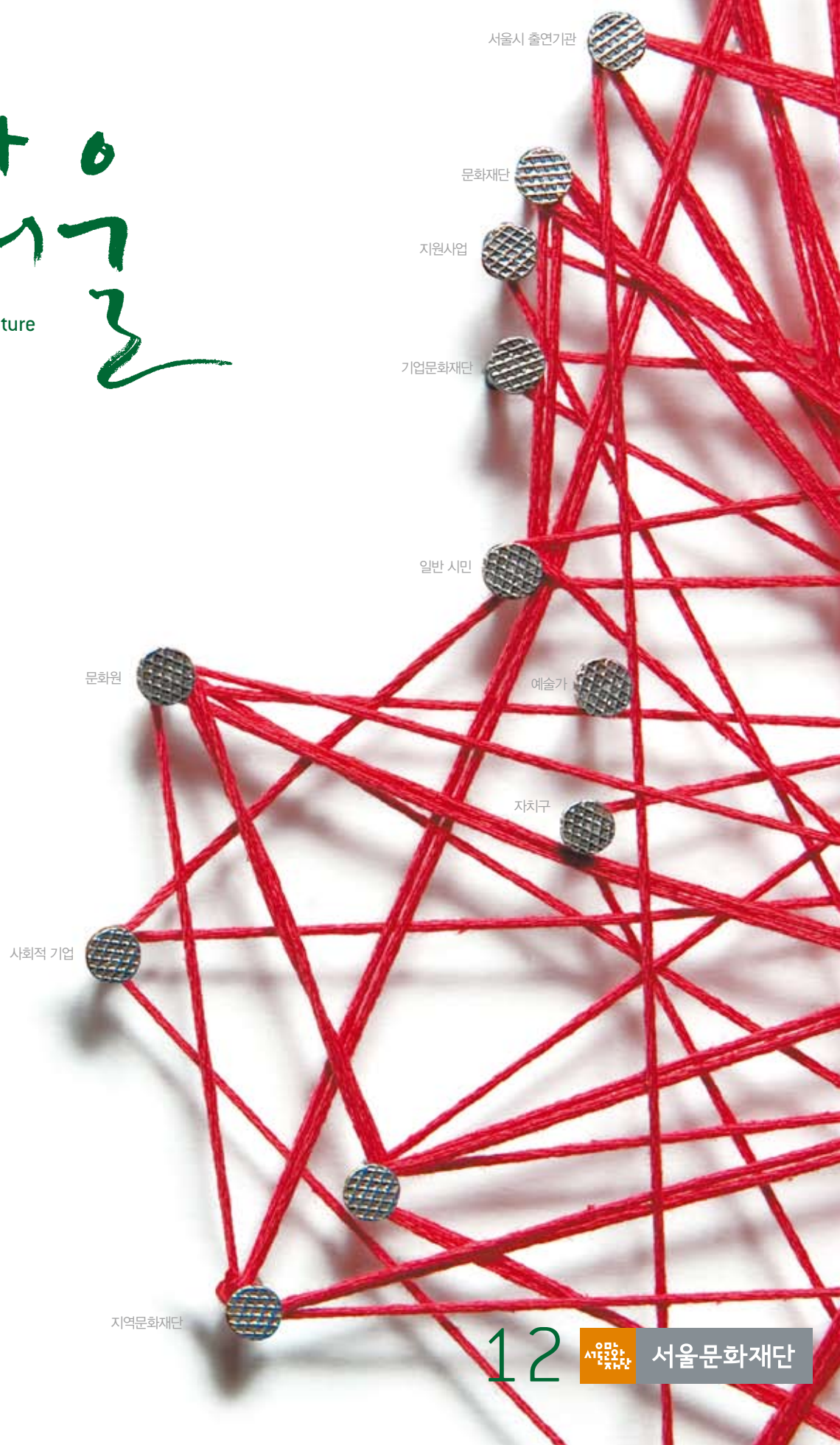


# 문화 + 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6

일본은 지난 8월 교체된 민주당 정권 이후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와 예술을 통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본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서울형 예술지원의 밑그림을 그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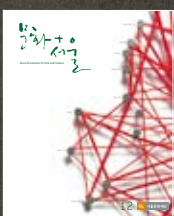
56

언제부터인가 '홍대 앞'은 젊은이들의 문화지구가 되었다. 꿈을 키우는 청년들의 요람이며 예술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곳. 누구나 홍대 앞에 오면 문화의 주인이 된다. 홍대 앞을 꾸려온 사람들이 연말을 맞아 손을 잡았다. 2009년 홍대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누구보다 빨리 준비하기 위해서다.



74

가평에 섬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웠다. 그 섬을 알게 한 또 다른 조합이 '재즈'라면, 섬의 이름만큼이나 생경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을 덮을 수 없는 야외행사장에서 '비'는 최악의 파트너고, 비가 오면 없어졌다가 그치면 나온다는 자라섬, 그곳에서의 축제는 시도 자체가 스릴이다. 비에 가라앉으리라 확신한 이들에게 기막힌 반전을 주고 재즈의 섬을 띄운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의 인재진 예술감독을 만났다.



#### COVER STORY

예술지원 정보, 서비스, 트렌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예술지원행사. 2010서울예술지원박람회 문화예술서비스의 기회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술지원 기관과 예술가, 시민을 이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Contents

## 02 CULTURAL NEWS 12월의 공연전시 소식

### 12월의 문화+서울

- 08 2010년 예술지원사업의 모든 것 - 미리보는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 12 2010 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변화를 공유하다 - 예술지원사업 체계 개선 대담
- 22 이것이 궁금하다 - 2010 서울문화재단 정가공모 지원
- 26 해외 예술지원제도를 엿보다 - 일본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 다시 보는 서울

- 32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씨, 카페 구경 가다 (하)
- 40 비하인드 북마스터를 만나다
- 46 IMAGE SEOUL 작은 빛과 길을 걷다

### 지금 서울은

- 50 HOT SKETCH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 - 연극 <운현궁 오라버니>
- 56 HOT SKETCH 홍대 앞에서 2009년을 돌아보다 - 홍대 앞 다시 보다展
- 62 HOT SKETCH 다:라이트 서울 The Light, Delight Seoul - 2009 서울빛축제
- 66 EMERGING SPACE 한강에서 쉬었다 가자, 걷다 가자, 놀다 가자 - 서울의 이색 명소, 한강 전망 쉼터
- 72 서울을 말한다 내가 사랑하는 서울\_소설가 윤대녕

### 사람과 사람

- 74 FOCUS INTERVIEW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예술감독 이재진
- 78 YOUNG ARTIST 2009 탈북화가 선무

### 서울 안과 밖

- 82 OPEN REPORT\_서울 너머로 파리 국립 오페라의 새 수장이 되살린 오페라 구노의 <미레유>
- 86 I AM A SEOULITE The Search for a Taste\_음식 자문가 대니얼 그레이
- 88 OPEN REPORT\_서울 속으로 다양성의 축제를 만들어내다 - 제1회 해외 입양인 종합예술제
- 92 한 장의 쉼표 다시 태어남을 위한 여행\_시인 김근
- 94 재단사업 꿈꾸는청춘예술대학 <봄날을 찾아서>
- 96 재단소식
- 102 문화 캘린더
- 105 독자엽서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 발행일 2009년 11월 26일 | 등록일 2005년 6월 8일 | 발행인 안호상 |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홍보마케팅팀장 이현아 | 이승민, 변현정, 김민지, 신동석, 김보연, 나오미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130-823)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 홈페이지 www.sfac.or.kr

디자인 · 제작 AGI Society 02.3141.9902 | 사진 AGI Studio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의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빛, 예술, 과학이 어우러진 2009 서울빛축제

일시 2009.12.19~2010.1.24

장소 광화문광장 일대

12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2009 서울빛축제(2009 Seoul Light Festival)”가 열린다. 빛의 미술작품 야외전시, 조명쇼 등으로 구성되는 이번 축제는 시민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넘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빛이 사방을 덮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온 세상을 밝히는 곳.’ 이것이 육 백년 전, 세종대왕이 지은 이름 “광화문”의 본래 뜻이다. ‘2009 서울빛축제’를 통해 광화문광장은 본래의 뜻 그대로 〈빛의 광장〉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2009 서울빛축제’는 단순히 빛의 반짝임과 조형미에 의존하던 기존의 행사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미디어 아트를 소개하는 시민 축제의 장이다. 역사적 상징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배경으로 한국적인 주제와 형태들이 테크놀로지의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접근으로 우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빛으로 풀어낸다. 예술가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통해 표현되는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넘겨온 광화문의 역사와 서울이 걸어온 길을 되새기며 진보와 문화로 소통하는 서울의 현재를 일깨우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펼쳐 보일 것이다. 축제는 크게 역사의 빛, 문화의 빛, 소통의 빛, 창조의 빛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eoulfest.org](http://www.hiseoulfest.org))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부 개장



과거 전통 건축물과 유적·유물, 최첨단 현대 복합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중 일부가 개장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먼저 개관한 구간은 서울성곽과 이간수문(265m, 8,030㎡) 외에도 동대문역사관(1,313㎡), 동대문유구 전시장(4,460㎡), 동대문운동장기념관(339㎡), 이벤트홀(2,058㎡), 디자인갤러리(400㎡) 등이다. 동대문운동장을 기념하기 위해 남긴 야간경기용 조명탑 2기와 성화대도 함께 자리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설계 발표 당시만 해도 공원 부분은 녹지와 문화이벤트 공간이 어우러진 단순 편익위주 공원시설로 계획됐으나 문화재발굴조사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상당부분 발견됨에 따라 서울시는 설계자인 자하 하디드와의 공감대 속에 설계변경을 추진해왔다. 문화재발굴 조사를 통해 서울성곽(이간수문, 차성)이 드러났으며 야구장 및 축구장 부지에선 하도감터를 비롯한 조선 전·후기 건물지유구 44기와 조선백자, 분청사기와 같은 조선전기~일제강점기 당시의 도자류 등 주요 유물 1,000여 점이 출토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간이면서 디자인과 최첨단 미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문화단지의 명칭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Dongdaemun History & Culture Park)’으로 바꾸고 지하철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운동장역’의 이름 또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개칭했다.

지난 4월 28일 착공 이래 공사가 진행 중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는 총 3,7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11년 말 본건물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포함한 전체완공이 목표다. 건축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연면적 85,320㎡(지상 4층, 지하 3층) 규모이며, 현재 공정은 8.5%다.



## 대학로 연극계의 돌풍 '연극열전' 시즌3 배우 조재현 · 송승환 등 참여

**일시** 2009.12.1~2010.1.31  
**장소** 동숭아트센터  
**문의** 02-766-6007

2004년 17만 명, 2007년 27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대학로 연극계에 돌풍을 일으킨 '연극열전' 시리즈가 12월 1일부터 세 번째 시즌 '연극열전 3'을 시작한다. '연극열전'은 화려한 스타 캐스팅과 파격적인 레퍼토리, 신선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내세워 '연극 = 돈 안 되는 사업'이라는 공식을 깨고 작품마다 놀라운 흥행 성적을 거뒀었다. 최근 공개된 '연극열전 3'의 라인업은 크게 4가지 테마로 구분된다. 먼저 '클래식 명작'을 테마로 피터 셰퍼의 <에쿠우스>와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무대에 올린다. <에쿠우스>에는 송승환 조재현 정태우 등 스타 배우들이 출연하며, 조재현은 이 작품을 통해 연출가로 데뷔한다. 이어 '원작의 무대화'를 테마로 김영하의 소설 <오빠가 돌아왔다>와 노회경의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연극으로 재탄생시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베토벤 바이러스> <다모> 등 인기 드라마를 만든 이재규 PD가 연출한다. '해외 초연작'으로는 지난 시즌 <웃음의 대학>으로 호평 받은 일본 극작가 미타니 고우키의 <너와 함께라면>, 캐나다 주부 6명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리얼 체험담을 다룬 <엄마들의 수다>, 두 남녀의 독특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매년 이맘때>가 공연된다. 마지막으로 완성도 높은 기존 작품을 초청하는 '연극열전 초이스'에서는 연극 <경남 창녕군 길곡면>과 한국의 정서에 맞게 각색된 일본 창작뮤지컬 <트라이앵글>을 소개한다.



## 미발표 14점 한국에서 최초공개 색채의 연금술사 루오展

**일시** 2009.12.15~2010.3.28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문의** 02-585-9991



20세기 전반 마티스와 피카소를 뛰어 넘는 당대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은 현대 미술의 거장 조르주 루오. 중후한 마티에르와 자유롭고 힘찬 선의 율림으로 대표되는 루오의 작품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그만의 색채와 화풍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국립龐피두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루오 컬렉션에서 엄선한 170여 점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로니카, 미제레레 등 루오의 대표작들을 비롯하여 그가 고집스럽게 그리던 광대, 무용수, 풍경 등을 다룬 국내 미공개 작품인 중·후기작들도 포함하고 있다. 내면의 고뇌와 성찰을 정열적이고 강렬한 색채로 그려낸 루오의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그의 삶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루오 말년에 다량으로 존재했던 미발표 작품이 세계 최초로 해외에서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 이 미공개작들은 루오 사망 시 화실에 있었던 작품들로, 1953년 국가에 기증되고 10년 뒤龐피두센터로 왔는데, 그 이후 프랑스를 떠난 적이 없다. 이들 미공개 작품은 루오 사후 10년 기념전이 루브르박물관에서 열렸을 때 말년 작품을 다 보여줄 수 없어 일부만 전시하고龐피두가 보관해 왔던 것들이다.

## 12월의 성년의 날 서울남산국악당 전통문화체험 “성년식”

일시 2009.12.13 15:00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문의 02-810-5056

서울남산국악당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가족과 사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1회, 일요일에 전통문화체험 “성년식 관·계례(冠筮禮)”를 무대에 올린다. 12월에는 13일 오후 3시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리며 관람료는 전석 전원이다.

“성년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활인 四禮 – ‘관·혼·상·제’ 중 첫 번째 의례로, 아이의 시기에서 성인의 시기로 가는 청소년들이 어른의 평상복, 외출복, 관복으로 갈아입는 시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인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고 어른으로서의 독자적인 권위를 부여받는 의례이며, 고려 광종(서기 965년) 이후부터 왕족, 귀족, 선비, 지식계급 층에서 널리 행해져오다 조선 말기 조혼경향과 1895년 단발령으로 상투가 없어지면서 서서히 사라진 우리의 전통의례다.

전통문화체험 “성년식”은 퍼포먼스가 아우러진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영상화상 연주로 성년식의 참된 의미를 전달할 것이며, 우리의 전통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25현 가야금 ‘아리랑’ 독주연주로 우리의 전통가락소리 음향에 심취할 수 있으며 탭댄스 ‘LOVE’, ‘Hello Dolly’ 등 흥겨운 무대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축하공연은 성년식 퍼포먼스 식후에 진행된다. 전통문화체험 “성년식”은 성인이 되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절 및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만 18~20세의 예비 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나 전화(02-810-5056)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생일을 맞는 달에 맞춰 신청해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SK사회적기업사이트 ‘세상’ 오픈

11월 1일에 오픈한 세상(www.se-sang.com)은 Social Enterprise(사회적기업)의 약어인 ‘SE를 생각하다’와 ‘세상(the Universe)을 생각하다’라는 ‘세상(世想)’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인류사회에서 기아, 빈부격차, 실업, 교육문제, 환경, 고령화 등 점차 구조화, 만성화 되어가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한계는 항상 아쉬움을 남겨 왔다. SK사회적기업사이트 ‘세상’은 이러한 문제의 지속적이고 범사회적인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을 보다 널리 알리고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의 제안을 통해 제안자가 그것이 실제로 개선되고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물론 아이디어 제공자에게도 수입의 일정부분이 돌아가게 된다. ‘세상’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기업’이라는 해결수단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장으로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 600년 고도 서울의 정수, 북촌의 일상과 역사 『서울, 북촌에서』



600년 고도 서울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북촌의 일상과 역사를 생생한 현장 취재와 발굴로 새롭게 조명된 『서울, 북촌에서』가 출간됐다. 30여 년간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문화부장으로 일한 저자 김유경과 중견 사진가 하지권이 삼청동에서 성북동까지, 서울 성곽에서 언더그라운드 미술 공간까지 북촌 골목 구석구석에 새겨진 과거와 오늘의 모습을 200여 컷의 담백한 사진들과 함께 담아냈다. 저자는 한 공간에 중첩된 역사적

배경과 함의를 좇는 날출과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이들의 모습을 담은 씨줄을 촘촘히 엮어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북촌에 관한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를 완성했다. 사료와 문헌에 의존하는 기존 역사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주민, 상인, 문화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옴니버스처럼 엮어냈다. 세종문화회관을 설계한 건축가 엄덕문, 서울에서 100년을 산 원로 법학자 고 최태영 박사, 조선 마지막 황후 순정효 황후 윤 씨의 후손 윤홍로 씨 등 근현대사의 현장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역사의 기억을 복원한다. 군사 정권 시절의 한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삼청각과 세종문화회관 건축 뒷이야기, 대한 제국의 황실 복식 유물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 사연과 마지막 황실 가족의 삶 등 이 책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내용들도 많다. 저자는 서문에서 “북촌은 보통 이르는 삼청동과 가회동 일대 어느 한정된 지역이라기보다 친근한 숨은 힘 같은 것이 느껴지는 서울 생활의 한 전형”이라고 말했다. 『서울, 북촌에서』는 골목길 탐방식의 표피적 접근이나 공간 비평을 시도하는 상아탑식 접근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개발 논리와 승자 독식의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정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지은이 김유경 출판사 민음인 출간일 2009년 11월 11일



## 조선시대 서울 사람들, 무덤 밖으로 걸어나오다 ‘은평 발굴, 그 특별한 이야기’ 展

일시 2009.11.4~12.13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02-724-0114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은평뉴타운 발굴조사 성과를 가지고 조선시대 서울 사람들의 상장례 풍속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은평 발굴, 그 특별한 이야기’ 展이 12월 13일까지 열린다. 최근 뉴타운 등 재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들이 사장될 위험에 처해있다. 발굴이 되더라도 발굴조사 기관의 수장고에 보관되어 서울 시민들의 접근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한데 모은 특별전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은평뉴타운지역 발굴조사는 지금까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발굴조사다. 한강문화재연구원·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진행되어, 5,000기에 달하는 조선시대 근대 무덤과 통일신라시대 가마터, ‘청담사(靑潭寺)’ 명(銘)기와 출토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분청사기어문매병, 백자명기세트, 동전(朝鮮通寶), 동경, 유리제 구슬, 귀걸이 등 8,000여 점이 있다.

전시는 크게 5개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옛 은평을 향하다’에서는 은평의 역사와 이곳에 무덤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마당 ‘옛 서울사람을 만나다’에서는 이말산에 남아 있는 비석을 통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으며, 인골을 통해 당시 서울 사람들이 앓던 질병을 추적해 보았다. 다음으로 ‘예법과 풍습을 돌아보다’에서는 어느 서울 사람의 죽음에서 매장까지의 과정을 추적해 보고, 발굴된 유물을 통해 조선시대 상장례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며 네 번째 마당인 ‘발굴 현장을 찾다’에서는 지금까지의 발굴성과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유물과 모형을 전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유적들’에서는 무덤 이외에 발굴된 절터, 가마터 등을 선보이고 있다.



## 창의성과 문화수준을 한 단계 UP! 복합문화예술채널 Creative Art Channel C.up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및 서울시창작공간 각 사이트

문의 서교예술실험센터 070)7711-0246, <http://cafe.naver.com/seoulartspace>

미디어문화예술 채널 앨리스온 <http://www.aliceon.net>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서교예술 실험센터 및 서교예술실험센터 입주단체 ‘미디어아트 채널 앨리스온 (AliceOn)’이 공동제작하는 ‘Ch-C. up(채널컵)’의 1회 상영이 시작됐다. 채널컵은 동시대의 문화예술 양상과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작업들을 소개하는 영상채널로, 서교 예술실험센터를 비롯한 서울시창작공간 각 사이트, Ch-C.up web page([www.c-up.kr](http://www.c-up.kr)) 등에서 방영되며, 향후 서울 시내의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내 채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채널컵은 Creative Art Channel C.up(C.up = Creative + Culture up!)이라는 프로그램 타이틀처럼 Art News, Exhibition+Project Report, Artist / Artworks, Art Space / Book의 총 4개의 채널로 구성되며, 특히 시각문화 및 예술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매월 2편씩 제작되어 각 공간에 편성 및 방영될 본 채널은 추후 영상콘텐츠를 통한 기업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
|------|---------------------------|-------------------------|
| 채널 1 | Art News                  | 창조적인 예술 및 문화 소식 전달 코너   |
| 채널 2 | Exhibition+Project Report | 관련 전시와 프로젝트 소개 코너       |
| 채널 3 | Artist / Artworks         | 작가 및 작품 소개 코너           |
| 채널 4 | Art Space / Book          |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 / 서적 소개 코너 |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전문 무용수

창작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  
가치관가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

관객의  
예술적  
가치관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2010 SEOUL ARTS SUPPORT PROGRAMS FAIR

2009年  
12月7日

OPENING 12:00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제1,2전시관

[www.fair.sfac.or.kr](http://www.fair.sfac.or.kr)



- 1 2010년 예술지원사업의 모든 것 미리보는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 2 2010 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변화를 공유하다 예술지원사업 체계 개선 대담
- 3 이것이 궁금하다 2010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
- 4 해외 예술지원제도를 엿보다 일본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2010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이 시작되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을 위한 직접 지원보다  
예술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조금씩 자리를 바꾸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변화하는 예술지원정책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2010 예술지원정책의 지형도를 그려본다.

12

## 2010년 예술지원사업의 모든 것

미리보는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오는 12월 7일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에서 2010년 예술지원사업의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수많은 예술지원 기관과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 모아 시민과 예술가에게 필요한 예술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기관들의 지원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최초의 대규모 예술지원행사 탄생

오는 12월 7일 월요일, 만 하루 동안 열리는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는 국내 최초의 예술지원박람회로서, 65개가 넘는 민·관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 공유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각 기관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사업공동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예술지원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서비스, 예술단체와 지원기관이 알아야 할 트렌드, 나아가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공유하는 '만남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박람회 공간을 크게 '서울문화존(Zone)', '협력기관존', '포럼존'으로 나누고, 각 존마다 2~5개의 세부섹션을 구성하였다.

'서울문화존'에서는 컬처노믹스 전략에 따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2010년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공모계획을 소개한다. 서울문화재단의 정기공모지원사업 계획을 비롯해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전문예술가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채로운 예술지원 사업들을 만날 수 있으며 참가기관의 담당자들이 상주하면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력기관존'에서는 각 기업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지역문화재단, 25개 자치구, 서울내 문예회관 등의 예술지원 프로그램과 예술가 참여가능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서비스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알찬 정보는 예술단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포럼존'에서는 예술정책과 트렌드 전망이라는 주제로 'Creative Forum 2010'이 열린다. 세션1에서



예술지원정책의 변화방향을, 세션2에서 2010년 트렌드를 전망하고, 저녁 7시부터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예술인들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포럼을 진행한다.

### 문화예술계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사실 이러한 예술지원박람회에 대한 필요성은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었다. 서울시의 문화예술 지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시민의 문화만족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우리 문화예술계의 발전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는 한해 100억이 넘는 예산을 문화예술 지원에 사용하였지만 시민들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했고, 예술가들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커지면서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각 지자체와 여러 민·관기관이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많은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그 혜택을 받으며 활동했지만, 결국 별다른 시너지 없이 '지원금이 없으면 창작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고객과 타 기관에 대한 보수적인 행정도 문제였다. 많은 예술지원 프로그램이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고객을 만나지 못하고 운 좋게 정보를 입수한 소수를 위해 운영되다 사라졌다. 하지만 서울시의 창의 문화시정 추진으로, 예술지원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새 정부의 예술지원 4대원칙 천명, 민간기업의 예술지원 확대, 특성화 지원사업의 확대라는 변화의 한 가운데서 서울시는 켄치노믹스와 서울형 예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예술지원은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민과 예술가를 이어주는 문화 복덕방이 되는 것이며, 그 시작이 바로 예술지원박람회라는 열린 행정 서비스다.

### 정보의 공유와 매개를 위한 축제의 장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는 이러한 서울시의 창의문화시정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축제의 장이다. 서울시가 먼저 고객을 찾아가 예술지원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제안하기 시작하자, 많은 지원기관이 열린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이 낯설지만 신선한 시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미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던, 하지만 잘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문화예술서비스의 기회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다리를 놓기로 한 것이다.

주머니는 가볍지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시민,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려는 시민, 열린 공간에서 공연을 해보는 것이 꿈인 시민동아리, 돈 걱정 없이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 예술가,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가, 해외에서 작업을 해보고 싶은 예술가, 예술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시민 또는 예술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술단체를 찾는 예술대학생이나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을 받고 싶은 예술단체 등 누구에게나 예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 이번 서울예술지원박람회는 이러한 기회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값진 정보의 보물섬을 탐험하는 설레고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것이다.

하루 동안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일반적인 박람회와 달리 월요일이 개최일이며,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이는 박람회의 가장 절실한 고객이 예술가를 비롯한 공연예술관계자들과 대부분의 공연장이 월요일에 쉼다는 점, 예술가들이 주로 작업하는 시간대가 저녁 이후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12월의 문화+서울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 예술지원 정보, 서비스, 트렌드를 한 자리에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시민과 예술가에게 One-stop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는 지원기관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지원사업 중에는 특히 창작활동에만 전념하기 원하는 예술단체들에게 반가운 정보가 많다. 서울문화재단의 2010년도 정기공모지원사업들을 비롯해 CJ문화재단의 ‘창작예술지원공간 CJazit’, KT&G 상상마당의 ‘밴드인큐베이팅’ 사업 등 예술활동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소개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눈에 띈다. 상해 무용수나 직업 전환을 준비하는 무용수를 지원하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 특정분야의 특정대상을 위한 예술지원 정보들도 접할 수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 솔깃한 정보도 있다. 뉴욕에 국내작가를 위한 거주공간 겸 작업실을 제공하는 연강재단(두산)의 ‘두산레지던시 뉴욕’, 뉴욕 근교에 위치한 아트오마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작가를 뽑아 참가비와 체류비 일체를 지원하는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의 사업 등이 그 예다.

전문예술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풍성하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지원하는 발레, 미술, 국악 클래식, 뮤지컬 교육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한 선물이다. 또한 청계천이나 서울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직장인밴드와 같은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행복한 예술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밖에 예술교육을 원하는 선생님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활동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가정형편이 어려운 음악영재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필요한 기관의 문화담당자들을 위한 예술지원기관의 콘텐츠 서비스 등이 마련된다.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는 12월 7일 오후 1시30분에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0년 새로운 예술지원의 변화를 모색하는 첫 향해를 시작한다.

#### 글 | 이현구

잡지기자, 사보기자, 광고기획사 카피라이터를 거쳐 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다양한 기업의 사보 및 간행을 필자로, 광고카피라이터로, 매체를 넘나들며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고 있다.





#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 2010 SEOUL ARTS SUPPORT PROGRAMS FAIR

| 공간구분 | 섹션구분      | 프로그램(안)                              | 프로그램 개요                                                                                                                                                                               | 참여기관                                                                                                                                                 |
|------|-----------|--------------------------------------|---------------------------------------------------------------------------------------------------------------------------------------------------------------------------------------|------------------------------------------------------------------------------------------------------------------------------------------------------|
| 1관   | 서울문화 Zone | 예술교육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활동을 하고 싶은 시민들과 예술가,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의 101개 시책사업 소개</li> <li>• 주제관 별 사업 개념 및 우수 성과물 소개</li> <li>• 2010년 예술가 참여 가능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li> </ul> | 서울시 문화국, 서울시 북서울꿈의숲,<br>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br>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br>서울역사박물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설공단                                                            |
|      |           | 도시축제관                                |                                                                                                                                                                                       |                                                                                                                                                      |
|      |           | 문화공간관                                |                                                                                                                                                                                       |                                                                                                                                                      |
|      |           | 문화복지관                                |                                                                                                                                                                                       |                                                                                                                                                      |
|      |           | 창작지원관                                |                                                                                                                                                                                       |                                                                                                                                                      |
|      | 협력기관 Zone | 기업예술지원 정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예술단체 및 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는 각 기관 예술지원 사업 정보 안내 및 상담</li> <li>• 각 지원사업에서 발굴된 우수한 사업 성과 소개</li> </ul>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CJ문화재단,<br>두산그룹연강재단, KT&G 상상마당, PLATOON                                                                                          |
|      |           | 국제예술교류지원정보관                          |                                                                                                                                                                                       | 경기창작센터,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br>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한 독일문화원,<br>파라다이스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br>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팀<br>* 서울문화재단 국제교류사업 소개                                   |
|      |           | 공공부문 예술지원 정보관                        |                                                                                                                                                                                       | 서울문화재단연합회(강남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br>마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br>제주문화예술재단, 춘천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br>(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강남장애인복지관,<br>한국장애인미술협회<br>*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업 소개 |
|      |           | 예술경영컨설팅관                             | • 예술단체에 대상 무료 법률/세무/노무 등 컨설팅                                                                                                                                                          |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 컨설턴트 6인                                                                                                                                 |
|      |           |                                      |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관련 정보 안내 및 컨설팅                                                                                                                                                        | 하자센터 외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15개 내외                                                                                                                           |
| 2관   | 포럼 Zone   | Creative Forum 2010<br>(예술정책과 트렌드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션1. 2010년 예술지원 정책 변화 : 서울시, 중앙정부, 기업, 국제교류기관의 지원 변화 트렌드</li> <li>• 세션2. 트렌드전망 2010 : 2010 문화트렌드, 소비트렌드, 공연시장, 미술시장 전망</li> </ul>            | 발제자 9인                                                                                                                                               |
|      |           |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포럼                        | •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전환 희망 예술단체, 기업 담당자,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모든 예술인들의 네트워킹 장                                                                                                           | 발표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10개 단체(공모)<br>사회공헌분야에 관심 있는 기업 담당자<br>사회적기업 전환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 단체<br>박람회 참가자 전체                                                          |

# 2010 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변화를 공유하다

예술지원사업 체계 개선을 위한 대담

서울문화재단이 2010 정기공모에 앞서 주최하는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가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날 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럼Zone에서 'Creative Forum 2010'이 '2010 예술정책과 트렌드 전망'이란 주제로 열릴 예정. 이에, 포럼 대담자들은 박람회에 앞서 토론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서로의 의견을 1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사전 대담을 가졌다. 대담은 지난 11월 16일 대학로 카페 '장'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일시** 2009. 11. 16(월) 19:00

**장소** 대학로카페 '장'

**대담자** 오진이(서울문화재단 경영혁신기획본부장)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송시경(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장)

송중석(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부장)

이충관(한국메세나협의회 Art&Business 팀장)





## 12월의 문화+서울

예술지원사업 체계  
개선 대담

**오진이**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예술지원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도 지난 9월 중앙정부에서 4대 지원원칙을 발표한 후 서울형 예술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라도삼 선생님께서 여러 연구위원들과 연구한 결과와 12월 7일 박람회에서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소개할 2010년 예술지원제도에 대해 미리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라도삼 선생님, 2010년 예술지원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2010년 예술지원정책의 변화를 진단하다

**라도삼** 올 여름부터 아홉 분의 연구위원을 모시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먼저 지원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예술지원사업 전체를 혁신해 지원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술지원 정책개편을 위한 4대 원칙입니다.

첫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단순한 나눠주기식 지원에서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역량과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지원건수를 줄이는 대신 지원액수는 늘리고, 단순 예술지원사업을 지자체로 이전해 지역협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사후지원제도를 마련해 지원시점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사전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창작공간과 컨설팅지원 등의 간접 지원 사업 활성화, 마지막은 일반국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지원입니다. 이밖에 전문심의관 제도를 도입해 지원심사의 편파성 논란을 없애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즉, 정부정책이 수월성 중심, 인큐베이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음, 예술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면 뮤지컬 중심의 상업적 예술시장 급성장, 일반시민들의 문화 활동 확산, 기업들의 다각적 문화마케팅 활성화, 지역축제를 비롯한 거리예술활동의 증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적 장르에 대한 선별지원, 시민문화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업의 요구에 대응한 전략지원, 예술의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를 위한 지원,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하고 새로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문화정책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화로 먹고 사는’ 창의문화도시를 선포한 후,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예술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창작공간과 서울시내 광장을 잇는 광장네트워크, 예술콘텐츠 교류를 위한 ‘e-북덕방’ 개발이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도 문화재단 설립, 주민자치 문화활동 강화, 예술축제 개최, 문화공간 조성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진이(서울문화재단 경영혁신기획본부장)



## 서울문화재단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다

오진이 이번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정책으로 범위를 좁혀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기관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먼저 라도삼 선생님께서 연구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삼 여러 분들이 먼저 재단의 핵심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심을 문화공간 운영에 둘 것인가, 순수지원기구로서의 위상 강화에 둘 것인가? 또 사업의 우선순위는 예술가와 예술현장 활성화가 먼저인가, 시민의 문화활동 활성화가 먼저인가? 나아가 직접사업을 통한 매니저 역할과 민간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자의 역할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직접지원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성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술위 정기공모사업의 지역 이관에 따라 직접지원사업의 비중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서울문화재단으로서 부담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 양효석 연구위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 추진단장)은 분담과 협력, 차별화, 특성화의 3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예술위 이관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배분중심의 다원적 지원정책으로 전략을 차별화하며, 서울시 고유의 지원정책을 개발해 특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견예술가 지원, 젊은 예술가 육성, 숨은 예술가 발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죠. 또 양현미 연구위원(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교 교수)은 재단의 지원사업이 예술생태계를 고려한 선순환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원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오진이 지금까지 라도삼 선생님이 정리해주신 논의과정을 통해 11월 18일 2010년도 정기공모사업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올해 지역협력형 사업을 위해 문광부에서 전체기금의 38%에 해당하는 70억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배당해 주었는데, 지원금이 서울시에 치중된다는 의견에 따라 2010년도 서울시 배분기금은 47억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예요. 이런 변화에 따라 재단은 단순 기금배분형 규모는 줄어들지만 실제 지원효과를 줄어들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창작공간추진단, 그리고 재단 내 기존 문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또 예술위에는 대한민국 대표 예술창작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위임하고 재단은 서울시민과 예술이 만나게 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협력과 분담의 균형을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2010년부터는 국가문화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과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송중석(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부장)

평가내용 등을 공유하게 되면 행정력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은 사업의 특성화를 위해 서울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학 분야 지원 등 서울형 예술 콘텐츠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차별화를 위해서는 2005년부터 지원해온 예술지원 브랜드를 특화해서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로 같은 공연장 거점을 활용한 공연문화 인큐베이팅, 금천예술공장 등 창작공간을 활용한 시각분야 인큐베이팅 쪽으로 차별화하려 합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예술평론과 예술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을 꾀할 예정입니다.

### 각 기관의 정체성과 특화된 역할을 공유하다

송중석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최근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은 문화관광부 소속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의 특수운용조직으로, 순수하게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공연을 해왔고, 그러한 니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와 어떤 변별성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중복지원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저희에게 중복지원이 되냐고 물어온 적이 있는데, 서울문화재단과 서로 지원형식이 다르다 보니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중복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어떻게 중복지원 문제를 피하고 외교부 기관의 특성을 살려 필요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과는 거리를 두면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순수한 문화예술교류 차원의 접근이 어려운 국가의 문화단체 또는 예술인들과 기념사업 등의 형태로 친선교류를 주선해 보려고 합니다.

**라도삼** 하지만 막상 문화예술위원회와 변별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중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외교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예술활동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예술 쪽이 아닌 문화일반 쪽에 더 비중을 두려는 것입니다. 즉 한식, 한복 등 예술 밖의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외교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의 문제는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좋은 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문화단체들 스스로 노력해서 자생적인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진이** 서울시 문화국에서도 이번 예술지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예술과, 정책과, 시설관리공단 등의 자료를 받다보니 시 안에서도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기관 간에 부처 간에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몰아줄 것은 몰아주고, 없앨 건 없애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재단은 내년부터 독일, 일본 등과 국제공동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최근 기업들도 예술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메세나협회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충관** 한국메세나협회의는 중소기업 매칭 펀드 외에는 자체펀드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 개념이 강하고 예술단체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반 정도 되지요. 또 지역사회와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기업과 예술의 윈윈(Win-win)이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투자 개념이 추가되면서 ‘사회’까지 염두에 둔 3자 간의 윈윈을 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 요즘 저희 협회도 매니저와 매개자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개자 역할이 절대적이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매니저의 역할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일단 기업들의 지원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협회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해 얘기하자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지원정책이 너무 많아서 차별화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문화적 혜택이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이죠. 이렇게 따로 놓고 있는 예술지원과 실질적인 성과(시민 문화향수 확대)를



이충관(한국메세나협회 Arts&Business 팀장)

## 12월의 문화+서울

예술지원사업 체계  
개선 대담

하나로 묶어내려면, 예술단체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서울시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광화문광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과연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땐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수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납세자인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의욕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적인 소양을 심어줄 수 있는 ‘시민 아카데미’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3년은 시각예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다음 2~3년은 또 다른 분야의 예술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신진예술가를 길러내는 것이죠. 요즘 보면 비싼 해외 유명아티스트를 불러오는 데 급급할 뿐 우리 예술가를 해외로 내보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서울시가 국제적 문화도시를 표방한 만큼 우리 예술가를 보내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런던과 같은 대표적인 문화도시들과의 공식적인 교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교류재단과의 중복지원 문제를 피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예술시장의 트렌드와 시대적 요구를 전망하다

오진이 예술지원을 하며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지원대상인 예술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입장에서 볼 때 예술가는 시민의 편에 서는 게 당연하고, 따라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성과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의무도 있고요. 하지만 성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예술가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술가를 길들이려 하나며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도 보았고요. 하지만 양질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대중이 돌아보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시경 문화예술지원 현장에서 보면, 문화예술가는 문화예술자체가 공공재이므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 당연히 ‘문화예술가’로서 공공지원, 즉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큼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사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 활동이 적었던 예전 시기에는 문화예술창조자에 대한 보전 및 육성이 우선 시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공공재 개념에 내포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송시경(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장)





실현'이 지원여부의 척도로 중요하게 기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의 예술활동이 직접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얼마만큼 기여했고 기여할 것인가를 보조. 해외 출장에서 본 공연장의 경우, 공연이 없는 아침에는 유치원생 등에 대한 예술교육을 공연장에서 하는가 하면 공연한 단체도 경우에 따라 지역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예술교육을 하도록 당초부터 계획되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술에 대한 공공재원으로서의 지원에 대한 반대가 없고 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술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입증되어야 공공지원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우리나라도 성과평가 등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문화예술활동이란 '행위'에서 보다 나아가 이로 인한 문화예술 활동의 파급효과, 즉 '사회적 가치 실현의 결과'까지도 따져보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지원기준도 점점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꼭 외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문화예술인들도 국민 혹은 지역주민에 대한 기여를 의식 한 권에 중요하게 두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충관** 영국에서도 공공재원이 투입된 예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결과 평가를 합니다. 개인 독자의 지원과는 재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희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개념을 예술 '협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국메세나협의회는 예술 '활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입장에서 예술을 도구화한다고 반발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술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은 예술가들에게도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술성 논쟁은 정답이 없는 문제이고, 흥행 문제를 떠나 예술가의 작품세계를 접하는 사람이 많아야 예술이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오진이** 맞아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예술가나 단체들의 고민이 깊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2월의 문화+서울

예술지원사업 체계  
개선 대담

송시경 말이 나온 김에 예술시장의 트렌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73년 문예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생겨 74년부터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술단체를 보존, 육성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지요. 그러다 제5공화국 때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했고, 1991년 연극영화의 해에 관람금액 일부 보조 형태의 '사랑티켓'과 2004년 복권기금의 문예진흥기금 유입을 계기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바우처' 지원을 해 오고 있어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문화예술 복지지원사업'이 생겨났습니다. 1990년에 '원로문예인 복지지원(현재는 일몰제 사업으로 운영 중)'과 조만간 입법화되어 발족될 '문화예술인 공제조합' 사업도 펼쳐지게 되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지원 사업'도 강화됩니다. 이처럼 향후에는 국민(주민)이나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문화복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예전의 '보는 예술' 중심에서 이제는 '하는 예술', 즉 체험하고 참여하는 예술에 대한 지원도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점차 효율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지원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로세스별 지원과 유통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창작팩토리' 사업의 경우, 희곡대본을 지원한 후 이중 선정된 대본으로 쇼케이스를 지원하고 여기서 선택된 작품의 무대공연을 지원하며 국내 순회 및 해외 유통까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예술단체에 돈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재정' 지원 방식이었다면, 근래에는 알선, 조정, 중개 역할 및 조세, 노무 및 인력운영, 홍보, 마케팅, 저작권의 예술경영 관련 자문 등 '컨설팅' 지원, 즉 '비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지원방식의 효율을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안에서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영역까지 아우르는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 효과와 추진방식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서울문화재단이 이번에 전면내세운 '복덕방' 개념은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수요와 창작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프로세스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도로 보입니다. 지역예술의 자생력이 뿌리내리려면 이러한 복지와 유통과 비재정 컨설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해보고 싶은 것은 여기 모인 기관들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간 중앙과 지역 그리고 예산과 기금 등의 측면에서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간 역할분담 설정이 필요하다는 공감은 있어 왔지만 실제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16개 시·도 중 10개 문화재단이, 230개 시·군·구 중 현재 23개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등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가 점증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유사사업 추진과 중복지원이 나타날 개연성이 커지면서 조속히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분담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내년 이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및 연구를 추진하여 필요하다면 법률의



개정 등 제도개선까지 추진하려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적 범주의 역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적(서울) 범주의 역할은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하는 원론 속에서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상호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라도삼** 지금까지 2010년 예술정책의 변화와 개선방향에 대해 여러 지원기관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각 기관이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특화된 자기 역할을 찾아나가는 한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술지원의 효율성을 높여나갔으면 합니다.

**오진이** 2010년 예술지원정책의 변화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의 역할도 더욱 다양한 요구를 현장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리 | 이현구**

**사진 | 천현정**

여러 매체를 거쳐 사진작업을 해오고 있는 프리랜서 사진가.  
연예인, 기업홍보 촬영과 다수의 개인전, 단체경력이 있다.  
렌즈 너머 보이는 세상은 늘 흥미롭다.

# 이것이 궁금하다

## 2010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

2010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정기공모는  
예술연구서적발간 지원과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는 한편,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이 더욱 간편해 졌다. 정기공모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미리 들어보았다.

# Q&A

### Q1 2010년에는 지원금액이 보다 확대되나요?

**A** 2010년에는 문예진흥기금 배분의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협력형사업의 서울시 배분기금이 32% 축소되면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규모 역시 2009년 188억에서 2010년 114억으로 37%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은 기존 공모사업형태 위주의 지원방식을 다각화하여 서울시창작공간이나 재단의 문화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장기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창작공간은 2009년에 이미 서교, 금천, 연희, 신당 등이 문을 열었고, 2010년에는 추가로 문래, 성북 등 네 곳이 더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로 우수작품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원, 창작연습실 지원, 생활 속 문화향유 사업, 사회문화 예술교육지원사업 등 예술가와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공모 이외의 지원사업들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간접지원의 확대를 통해 문예진흥기금 배분 축소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총규모는 전년 도와 동일할 수준인 180억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공모 지원사업 외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직·간접적 지원사업에도 시민, 예술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Q2 2010년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지원프로그램이 있나요?

**A** 2010년에는 예술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모든 분야(문학, 시각, 공연, 다원)에 '예술평론활성화'와 '예술연구서적발간'이 신설되어, 예술평론가들과 예술연구인들이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원예술 창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일반 지원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다원예술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심사와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표현활동지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공연창작활성화지원'으로 나뉘어 있던 공연예술 지원사업은 '공연창작활성화지원'으로 통합하여 지원신청에 혼란을 줄이려 합니다.

## Q3 2010년 지원방향이 크게 변화하는 지원프로그램이 있나요?

**A** 2010년에는 시민 대상과 예술가 대상의 지원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기존 '생활 속 예술지원'은 없어지고 '시민예술활동지원'이 신설되어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시민이 주체가 된 비영리 동호회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예술가(단체)들은 '창작활성화지원' 등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축제지원' 역시 일반시민의 예술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축제에 대해서만 주력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 '시민축제지원'에서 지원받았던 전문예술축제들은 2010년 신설된 '서울예술축제지원\_우수 예술축제 육성지원'이나 '서울예술축제지원\_예술축제 콘텐츠 제작 및 교류지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 지원사업에서 시각예술 분야 개인전 개최 지원이 없어지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8년까지 운영하던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이 지역으로 이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원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않고 자체 연구결과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개선을 단행하였습니다. '시각예술 창작활성화지원'은 개인 창작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기획 비평분야와의 불균형, 관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향적 발표형식 팽배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작과 기획역량 보강을 위한 '기획프로젝트지원', 세대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및 서울의 국제도시화에 발맞춘 '국제교류사업지원'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획프로젝트지원'에는 기획력이 있는 작가가 계획한 개인 프로젝트도 신청 가능하나, 개인작품 발표만을 위한 단순 개인전은 지원 대상 순위에서 맨 마지막으로 고려될 예정입니다.

**Q5** 이번에 공모하는 ‘문학창작활성화’ 지원에 작품집 발간 지원 분야가 없는데, 혹시 작품집 발간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인가요?

**A** ‘문학창작활성화’ 지원 작품집 발간 지원 분야는 2010년에도 계속 추진됩니다. 다만, 2009년 ‘문학창작활성화’는 2009년 9월에 공모하였기에 다소 기간을 두고 2010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0년 지원 사업은 2010년 상반기에 진행하게 됩니다.

**Q6** ‘NArT 젊은예술가지원’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은 사라진 것인가요?

**A** ‘NArT 젊은예술가지원’은 NArT: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 운영됩니다. 우선 지원대상이 기존 신진예술가에서 보다 확대되어 차후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만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지 않고 서울시창작공간들과 연계한 공간,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등 지원방식이 달라집니다. 충분한 준비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10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7** 기업 입사지원처럼 지원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서울문화재단은 인터넷 접수를 도입할 계획이 없나요?

**A** 지역문화재단 중 최초로 올해 11~12월에 진행될 2010 정기공모에서부터 전면적인 인터넷 신청 및 접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청 뿐 아니라, 지원금청구와 정산과정을 모두 포괄합니다. 그동안 서류를 직접 제출하느라 겪으셨던 불편과 접수는 잘 됐는지 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간편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Q8** 정기공모 지원사업 설명회는 언제 열리나요?

**A** 11월 27일(금) 오후 1시 남산예술센터 극장에서 지원사업 1차 설명회가 열리며, 12월 7일(월)에 진행되는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에서 행사시간(12:00~24:00) 내내 정기공모사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별도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그 때까지 작성하셨던 신청서 검토 서비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예술지원박람회 홈페이지 <http://fair.sfac.or.kr>에 추후 공지)

**Q9** 신청단체나 대표자의 주소지가 꼭 서울이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지원사업의 경우는 주요활동, 공연, 전시, 발표 장소 등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의 경우 주소지가 서울인 단체나 개인으로 신청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신청조건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신청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 2010년 정기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 공모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 그 주인공인 당신을 지지합니다.

## 1 사업개요

### 지원사업

| 구분       | 세부사업           |                |
|----------|----------------|----------------|
| 시민문화예술지원 | • 시민예술활동지원     | • 시민축제지원       |
| 창작활성화지원  | • 공연예술 창작활성화지원 | • 시각예술 창작활성화지원 |
|          | • 문학 창작활성화지원   | • 다원예술 활성화지원   |
|          | •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 예술평론 활성화지원   |
| 축제지원     | • 서울예술축제지원     |                |

**지원대상** 2010년 서울을 거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  
※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2 제출서류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인터넷 입력 신청서로 대체)

**기타서류** 주요 실적(활동) 증빙자료 등 (※ 각 사업별 첨부서류 확인요망)

## 3 접수기간 2009. 11. 25(수) ~ 12. 14(월)

## 4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지원신청 웹사이트** <http://sfac.artskorea.or.kr>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불가

## 5 문의 (재)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02-3290-7110~8)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http://www.sfac.or.kr)) 및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참여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sfac.or.kr](http://www.sfac.or.kr)



12월의 문화+서울  
일본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 일본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일본은 지난 8월 교체된 민주당 정권 이후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와 예술을 통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본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서울형 예술자원의 밑그림을 그려본다.



도쿄 원더 사이트에는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 12월의 문화+서울

### 일본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일본은 지난 8월, 2차 대전 이후 54년간 이어진 자민당 집권시대가 끝나고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다. 민주당은 현재 선거 전 발표한 '매니페스토(정권공약)'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행정, 복지 등 각 분야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국립미디어예술종합센터(가칭) 건설이 백지화 된 이래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정책이나 지원제도의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을 통한 청소년 육성 사업은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복지 중시 정책에 따라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의 문화예술 지원 공공조직

일본에서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조직은 문화청,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 특수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 지방자치단체, 재단법인 지역창조가 대표적이다.

문화청은 문부과학성(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기관으로 일본의 문화 전반을 담당한다. 1실2부10과로 되어 있는데 예술정책과 저작권, 국제교류 등을 총괄하는 문화청장관관방심의관실, 문화예술 진흥 및 일본어 교육과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부, 전통문화(가부키와 분락쿠, 노 등)와 문화제 및 미술 등을 담당하는 문화재부로 크게 나뉜다.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은 각 부에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일본예술문화진흥회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주요 활동은 문화청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과 지원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Japan Arts Council로 번역되긴 하지만 영국의 문화예술위원회처럼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문화청의 산하기관으로 보는 편이 맞다. 원래는 1966년 특수법인 국립극장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지금도 국립극장을 비롯해 국립연예장, 분라쿠(文楽) 극장, 노가쿠도(能樂堂), 오키나와 국립극장, 신국립극장(운영재단 위탁), 전통예능정보관 등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1990년 문화예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가 출자한 541억엔과 민간 출연금 112억엔의 기금을 합친 예술문화진흥기금이 설치되었고, 명칭도 특수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에서 다시 2001년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가 됐다.

한국의 국립극장 등이 실시하는 책임운영제의 모델이기도 한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은 행정의 슬립화를 목적으로 정부 산하기관 가운데 정책을 실시하는 조직을 독립시킨 것이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되는 운영비와 교부금의 운용은 법인의 재량에 맡기되 엄격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이외에 국립미술관, 국립서양미술관, 국립박물관, 문화재연구소, 국립국어연구소 등이 독립행정법인 형태를 띠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은 해외에 일본 문화예술을 알리고 일본어와 일본 연구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한국의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유사하다. 1972년 외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가 2003년 독립행정법인이 되었는데, 해외 20개국에 22개의 거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21세기 외교 전략으로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대중문화를 국가 브랜드로서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시킨다는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을 적극적



- 1 도쿄 원더 사이트에서는 예술 관련 심포지엄이 자주 열린다.
- 2 일본의 전통예술 가운데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부키
- 3 도쿄도역사문화재단의 문화발신프로젝트에서 청소년들이 전통예술을 체험하고 있다.
- 4 도쿄 원더 사이트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미술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도쿄 시내에만 세 곳이 있는 도쿄 원더 사이트는 비영리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한편 신진작가에게 작업실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12월의 문화+서울  
일본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관리를 받는 신국립극장.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국립극장 등을 운영관리하는  
한편 예술문화진흥기금을 통해  
문화예술을 지원한다.

으로 추진해 왔는데, 바로 일본국제교류기금이 그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일본에서 문화예술지원의 가교 역할을 한다. 특히 도쿄도(東京都 都는 한국의 특별시와 유사)는 재단법인 도쿄도역사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도쿄도역사문화재단은 1980년 도쿄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서울문화재단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도쿄도역사문화재단은 도쿄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각종 공공시설의 운영까지 관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재단법인 지역창조는 '문화예술 진흥에 의한 창조 넘치는 지역 만들기'를 목적으로 199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금을 조성해 만들었다. 비상근이긴 하지만 지자체 지사들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공공 문화예술시설 및 축제의 활성화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금 외에 복권기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지원받는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에 의한 지역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 지역의 문화예술 인력 육성과 공공문화시설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일본의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일본은 문화청 등의 공공조직을 통해 매우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지원 프로그램은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을뿐더러 중복되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 취지에 따라 크게 예술창조 활동 활성화와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진흥,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술창조 활동 활성화 부문에 있어서 일본은 예술단체 중점 지원을 통한 톱 레벨의 작품 창조, 세계적인 예술가의 양성,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감수성 풍부한 청소년 양성을 목표로 2002년부터 '문화예술창조 플랜(일명 신세기 아트플랜)'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신세기 아트플랜' 이전에도 예술창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격 지원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세기 아트플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점지원을 통한 예술창조에는 전통과 현대를 망라한 공연예술과 영화의 제작, 해외진출 및 교류, 페스티벌 개최, 예술거점형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다소 생소하게 보이는 예술거점형성사업은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진흥과도 연관된 것으로, 지역의 공공극장과 국공립 박물관 등이 실시하는 자체 기획·제작 공연 및 교육사업 등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것은 자격조건으로 무대예술에 관한 기획·제작과 교육 활동에 대한 상당한 실적을 가졌으며 향후 3년간 일정 규모(매년 기획·제작 공연 5편, 교육 활동 3건 이상) 이상의 사업을 실시한다는 보장과 함께 예술감독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스태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예술가 양성에는 신진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각종 장학제도와 연수제도, 해외에  
술가 초빙, 신진 예술가의 발표기회 확보 등이 포함된다. 셋째,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활동 추진에는 청소  
년들이 공립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은 물론 예술단체 등에 의한 워크숍  
및 실제 공연 참가 등이 있다. 특히 학교에 예술가를 파견해 청소년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진흥 부문에 있어 일본은 21세기 들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대신 세원(税源)을 중앙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경  
관이나 문화자원을 살려 주민의 창조성을 기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자체가 부쩍 많아졌다. 지방분권 강화와 더불어 각광받는 프로그램이 바로 '문화예술에 의한 지역 만들  
기' 사업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전통이 잘 보존된 편이지만 최근 지자체의 역량이 커지면서 예전부  
터 내려오는 제례행사(마쓰리 등)와 전통예능을 종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한편 전승자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특색 있는 예술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향  
상은 물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영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창조도시'의 바람이 최근 한국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 셈이다. 즉 노후한 공장이나 발전소, 폐교, 창고, 병원 등 기능이 다한 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예술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창작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도시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창조도시'보다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표  
현을 좀 더 많이 쓰고 있다. 또한 문화청은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장관 표창을 하는 것은 물론 이들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한국에도 많  
이 소개된 요코하마시와 가나자와시를 포함해 오미하치만시, 오키나와시, 삿포로시, 도쿄 토시마구, 사사야  
마시, 하키이치시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거대도시인 만큼 중소도시들이 추구하는 '창조도시'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바로 2007년부터 도쿄도역사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도쿄 문화발신 프로젝트'다.  
도쿄 문화발신 프로젝트는 도쿄만의 문화예술 창조·발신,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의 육성을 목적으로 도  
쿄도와 도쿄도역사문화재단이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극장이나  
미술관에서 열리는 공연과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나 축제, 시민과 아티스트의 합동 프로그램,  
창작공간의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오다이바 시오가제 공원에 세워진 건담 프로젝트나 도쿄  
내 미술 창작 환경 구축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도쿄 원더 사이트' 등은 주목할 만하다.

#### 글 | 장지영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와 동대학원(미술사 전공)을 졸업했고, 성균관대 공연예술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 국민일보에 입사해 사회부를 거쳐 문화부에서 오랫동안 공연예술과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했으며, 2009년 9월부터 1년간 한국기자협회 지원으로 도쿄대학대학원  
문화자원학과에서 연수 중이다.

사진제공 | 도쿄도역사문화재단·신국립극장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11월호에 실린  
구보씨, 카페 구경 가다(상)에  
이은 속편입니다.

# 구보씨,

## 카페 구경 가다 (하)

사랑에 울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아도  
가슴에 남은 건 사랑 하나뿐이었다.  
가녀린 몸으로 한강에 뛰어든 그들에게는 어떤 속사정이 있었을까.  
다하지 못한 그들의 사연을 들어본다.

### 여급 이야기

‘카페 걸’, ‘여 뽀이’, ‘웨이트리스’ 등으로 불렸던 카페 여급은 자신의 몸을 밀천삼아 고객들의 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였다.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에로서비스의 한계는 유동적이었으며 밀매음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 비록 흥등 아래서 녹주를 따르며 웃음과 노래와 몸짓을 파는 신세였지만 여급들의 삶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하는 여급이기 이전에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여성들이었기에 저마다 개인 서사 하나씩은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그들을 지탱해온 힘이었다. 그들이 처한 존재적 위치 때문에 사랑에 울고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위해 다시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에 눈먼 부나방과 같은 숙명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식인 남성과의 연애를 모티프로 한 여급의 이야기는 소설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풍경이었으며, 당시 식민지 조선의 일반 여성들이 경험한 사랑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이미 결혼한 유부남과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으며 더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일 경우에는 결국 사회적 약자인 여급들을 자살로 내몰았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1920년대의 유행 풍조를 타고 1930년대까지 점증했던 사회문제 중의 하나였으며,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연애 관련 자살도 급증했다. 특히 실연에 의한 자살과 정사(情死)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다. 그럼 자살로 결말을 맺은 여급들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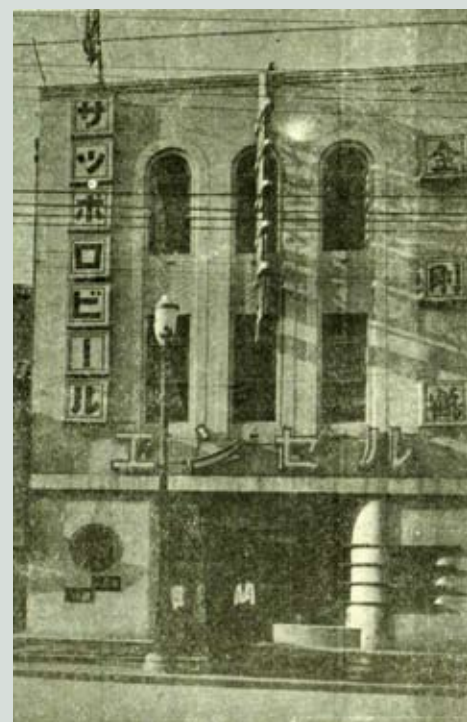
## 엔젤이 된 여급,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다

1933년 11월 5일 한강 인도교 밑에서 고기잡이하던 어부들은 자신들이 쳐 놓은 그물에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걸려든 것을 발견하였다. 그물을 끌어 올려보니 겉에는 스프링코트를 입고 속에는 파란색 양장을 한 24세가량의 단발 미인이었다. 크게 놀란 어부들은 시체를 강가로 꺼내 놓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시체에서 특별한 사항을 알아내지는 못했으나 여러 정황을 들어 수일 전에 투신자살한 엔젤 카페의 여급 유순자로 보았다. 유순자가 한강에 뛰어든 것은 시체가 발견되기 나흘전인 11월 1일 새벽이었다. 영자라는 이름으로 여급 생활을 했던 그녀는 전날 밤 카페 엔젤에서 일을 마치고 노량진 친오빠 집에 간다며 금강택시를 불러 타고 나갔다가 인도교에 내려 한강에 투신했다. 카페 동료들은 그녀가 인기 있던 여급으로 남편도 있고 애도 나서 기르던 몸이었으나 가정불화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았다.

카페 여급의 한강 투신자살은 그해 가을 들어 벌써 3번째였다. 이미 9월 27일에도 카페 엔젤에서 봉자라고 불렸던 여급 김갑순이 새벽 1시경 한강 인도교에서 투신하였고, 연인 관계였던 의사 노병운도 그날 오후 4시경 그녀를 뒤따라 같은 장소에서 뛰어내렸다. 그녀의 자살 원인은 오래전부터 모 공립병원에 조수로 있던 노병운과 정을 두고 지내오던 중 최근에 와서 그 남자에게 처자가 있음을 알고 비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갑순의 자살 소식을 전해들은 노병운도 시신을 수습하러 한강으로 가던 중 카페 주인과 본처에게 유서를 남긴 채 그와 같은 정사(情死)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이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카페 엔젤에 소속된 여급들의 자살 소식이 유독 많았다는 것이다. 카페 엔젤을 떠나 한강 다리 위에서 엔젤이 된 여급들이다.

한강에서의 투신자살 소식은 해를 넘겨 1934년에도 이어졌다. 괴로운 삼각연애의 갈등에 자살한 묘령의 여자가 있었으니, 종로 2정목 백마 카페에서 '다리야'라고 불리던 스물 세 살의 유정순이 그 주인공이다. 5월 2일 새벽 한강철교 위에서 창파에 몸을 던진 그녀의 자살 동기는 이랬다. 작년 왕관 카페에서 여급으로 있었을 때 경성부청에 근무하는 김영복과 만나 사랑을 주고받다가 살림까지 차렸으나 남자의 변심으로 사랑의 상처만을 남긴 채 쓰러린 가슴을 안고 다시 백마 카페에서 여급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곳 카페 주인 민준식의 동정을 받고 지내오다가 우연히 주인과 사랑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여 곧 부부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전남편 김영복이 카페로 찾아와서 다시 살기를 강청하자 그녀는 갈등에 빠졌고 또 카페 주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비판하여 그리한 것이었다. 어떤 소설, 어떤 연극이 이보다 더 비극적일 수 있을까. 친일과 항일 사이를 오갔던 식민지 조선인의 내면적 갈등도 유정순과 같았으리라.

1936년 8월 24일에는 한강 인도교 옆에 있는 한 유선구락부에서 모터보트를 빌려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몸을 날려 물속으로 뛰어 든 두 남녀의 투신자살사건이 발생했다. 정확히 10년 전 그날, 현해탄에 몸을 던진 성악가 윤심덕과 극작가 김우진의 정사사건의 재판이 있었다. 사흘이 지난 뒤 용산 경찰서로 찾아온 가족들에 의해서 투신한 남녀의 정체가 판명되었는데, 남성은 황금정에 위치한 경성택시의 운전수인 최승돈이었고 여성은 카페 여급인 김갑진이었다. 그 둘은 두 달 전부터 알게 되어 정을 쌓아갔으나 남자에게는 이미 처자가 있는 몸이었고 그의 부모 또한 타락한 여자와 만나고 다닌다며 자식조차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정식 내외가 될 수 없는 것을 비판하여 끝내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카페 엔젤의 외관, 1937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자살로 얼룩진 여급의 사랑과 실연 그리고 배신

1933년 7월 엔젤 카페의 여급으로 있던 이성자는 1년 전부터 이남성(가명)이란 자와 관계를 맺고 동거해 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남성을 남편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 천여 원을 주었는데, 남편이란 자는 같은 카페에 출입하면서 이군자라는 다른 여급과 정을 통하고 그녀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돈을 모두 써버린 남편이 이군자와 동침하는 현장을 목격한 그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집에 있는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다행히 집안사람들이 발견하여 인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순간 원수로 바뀌고 그에게 바친 피 섞인 돈 천 원만 날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1934년 8월에는 ‘기요미’라고 불렸던 엔젤 카페의 여급 홍순녀가 자기 집에서 담배 한 갑을 전부 물에 풀어서 독한 니코틴 액을 만들어 음독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신음하던 그녀를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 목숨은 겨우 건질 수 있었는데, 그녀가 자살을 결심한 이유는 이랬다. 14살의 이른 나이에 인근 부호의 집으로 시집을 갔으나 19살에 청년 과부가 된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찾자 이듬해 상경했다가 모 전문학교 학생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아들까지 낳고 살았다. 그러나 남편은 전 해 2월에 자신을 버리고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다른 처녀와 혼인을 한다. 생활난과 양육을 위해 여급이 된 그녀는 금년 봄 시내 모 철공장에 다니는 이 모 씨와 다시 사랑에 빠져 동거하면서 임신 3개월이 되었는데, 그 사람마저 그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얻는다. 이렇게 번번이 배신당하자 낙심 끝에 박정한 남자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하직할 작정으로 독약을 마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랑에 배신당한 쪽은 여급만이 아니었다. 앞서 소개한 경우와는 정반대로 남편이 버림받은 경우도 있었으니, 39세의 김연호가 바로 다음 사연의 주인공이다. 1933년 5월 6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그는 생활난에 쫓겨 미모의 아내인 박연규를 카페 여급으로 보내고 이발직공 노릇을 하며 세 살 먹은 딸자식과 함께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카페 백립홀로 출근한 아내가 이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 이를 수소문해 본 결과 그곳에 출입하던 다른 남자와 도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매달리는 어린 자식 때문에 이발직공 노릇도 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게 되자 절망하여 죽기를 작정하고 한강에서 투신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의 제지로 그마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 해 12월에도 박근수라는 청년이 애인을 찾으러 부산에서 올라왔다가 엔젤 카페의 여급이 된 애인 테루코(照子)가 변심한 것을 알고 동 카페에 찾아가 술을 먹던 중 다량의 칼모친을 술에 타서 음독한 일이 있었다. 마침 당번으로 있던 여급의 신고로 경찰이 달려와 응급 처치를 한 결과 생명만은 건졌다고 한다. 사랑에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데에는 남녀구분이 따로 없었다. 같은 해 3월에는 종로 4정목에 위치한 카페 신세계에서 이곳에 빈번하게 출입하던 손근환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반한 여급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이를 비판해오다 카페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미리 준비해간 염산을 들이켜 자살을 시도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이나마 겨우 건졌는데, 돈만 있다고 여급의 사랑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보다.

일본인 여급이라고 연애 자살에 있어 예외는 아니었다. 1933년 9월 카페 본마치의 여급 노나카 토미코





기노모 차림의 카페 백접(白蝶)의 여급들.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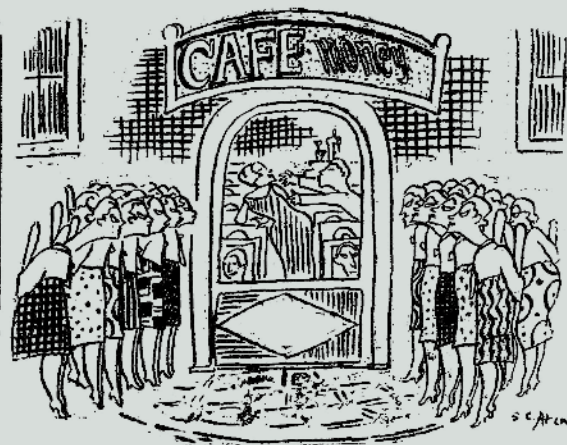
(野中富子)는 경성부청 회계과에 근무하는 시바노(芝野)와 정이 들어 400원의 빚까지 얻어가며 남자에게 돈을 썼는데, 그가 다시 정부(情婦)를 얻고 자신을 박대하자 이를 비판하여 음독을 시도하였다. 그녀는 두 차례나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용산 경찰서에서 보호를 받는 신세가 되었으니, 눈먼 사랑보다 질긴 목숨이었다. 또한 1938년에는 국제연애에 실패하고 자살을

기도한 일도 있었다. 5월 12일 ‘빠 올림픽’의 여급 조춘자가 자기 방에서 칼모친을 먹고 신음하는 것을 주인이 발견하고 인근 병원에 옮겨 생명을 건졌다. 그녀는 한 달 전부터 청엽정(현 청과동)에 위치한 중국 요리집 효창루의 주인 중국인 류 모씨와 사귀며 시내 각 처로 밀월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 전날 유 씨의 청혼을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다가 남자가 그동안 사준 사랑의 선물을 모조리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자 그것을 비판하여 자살극을 벌였던 것이다.

## 여급의 라이벌 또는 자유연애의 또 다른 피해자

커피의 여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안타까워할 때 숨죽여 울어야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으니, 여급에게 빠져 처차식을 버린 유부남의 아내들이었다. 구식여성과 사랑 없이 결혼한 남편들이 자유연애 풍조 속에서 모던한 분위기의 카페를 드나들며 서구화된 여급들과 어울리다 그들의 에로서비스를 받고 심지어 외도를 일삼게 되자 이는 곧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1933년 1월 안석영은 '카페 성곽 점거'라는 만문만화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미있게 풍자했는데, 카페 안에서 단발에 양장을 한 여급을 희롱하는 남편과 문 밖에서 구식복장을 한 채 몽둥이를 들고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마담(부인) 부대들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앞으로 카페광들이 카페출입을 위해서는 몽둥이 세례를 당해낼 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라며 '33년 식가정쟁의'를 예고하였다.

하지만 부인이 구석여성이든 신여성이든 할 것 없이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편의 태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결국 1934년 9월 16일에는 첩의 신세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남편만을 믿고 살아왔던 엄복희가 최근 남편 최구용이 서대문정 천일식당의 여급 길자에게 반해 자신을 돌아보지 않자 이에 비판하여 태평통의 자기 집 방에서 양젖물을 들이키고 자살을 감행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illegible]

##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자유연애를 즐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시대의 폐습인 축첩제도를 유지하려한 조선인 남성의 이중적 욕망이 부른 화였다.

1937년 2월 17일자 <조선일보>에는 결혼한 지 1년 된 한 여성이 증권회사에 다니며 평소 얌전하고 술도 먹을 줄 몰랐던 남편이 지난 연말부터 카페나 바에 자주 드나들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해왔다. 조선일보에서 답하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이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기는 쉽다며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니 될 수 있으면 온전한 태도로 충고를 하되 결코 조급하게 강짜를 내어서는 안 된다며, 마음이 좋아 보일 때를 골라서 '이제는 어지간히 다녔으니 그 만두는 게 어때요' 하고 슬쩍 웃음을 지어보라며 예의 남성 중심적 시각의 충고를 보냈다.

### 여급들의 삶과 현실

1932년 경성 시내에 카페가 대거 진출하면서 여급들의 수도 늘어나자 <매일신보>에서는 그들의 교육수준을 조사한 바 있다. 2월 1일 당시, 종로에는 16개의 카페가 있었다. 각 카페 주인이 종로 서에 신고한 여급의 수는 100명에 달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여급의 수를 합치면 140~50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 중 66명이 조선인 여급으로 이들은 대부분 보통학교 졸업생이었으며 무학은 3명에 그쳤다. 특히 낙원회관과 킹홀 등의 카페에는 숙명, 경성, 이화 등 여자고등보통학교 출신도 3명이나 있었다. 이들 인텔리 여급들이 점차 늘어나자 당시의 대표적인 대중잡지인 <삼천리>와 <별건곤>에서는 각각 1932년 9월호와 11월호에 여급들을 소개하는 지면을 앞 다투어 마련했다. 여급들은 이 지면을 통해 자신들이 여급이 된 사연을 소개하고 그동안 매음녀니 매소부니 하며 자신들을 천하게 여겼던 기존의 인식을 넘어 자본주의의 모순에 맞서는 당당한 직업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드러냈다. 특히 '헤레나'라는 살롱 은좌의 여급은 <호남평론>(1935년 4월호)에 쓴 '여급도 직업여성으로서'라는 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금전으로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영원히 금전의 종으로 굴욕과 유린 속에서 너희들의 운명을 마치리라'고 하며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돈으로만 여급의 환심을 사려는 남성들에 대해 저주를 퍼붓기까지 했다.



모 카페의 여급, <조광>, 1935.10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여급들은 카페에서 일정한 월급을 받는 대신 손님이 주는 팁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자존심은 그들에게 사치였다. 그래서 예로와 '이트'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밀매음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월급쟁이들이 보너스를 받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오면 여급들도 덩달아 분주해지는데, 그들의 두둑한 숙주머니를 노리고 밤늦도록 영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카페 팁 문화 때문에 웃지 못할 사건도 일어났다. 1937년 12월 16일 밤 명치정(현 명동)의 한 카페에 모 회사원 이관진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술을 먹다가 현금 30원을 잃어버렸다고 이를 찾아달라는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가 술을 먹고 나올 때 팁 3원을 준다는 것이 만취한 관계로 그만 보너스 봉투에서 10원짜리 3장을 꺼내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는 미안한 마음에 그대로 30원을 팁으로 주고 가 버렸는데, 이는 본정경찰서 관내에서 팁으로는 최고액이었다고 한다.

전차금 제도 역시 여급의 발목을 붙들었다. 이는 고용주가 여급에게 미리 수백 원씩 전차금을 주고 여기에 이자까지 붙여 장부에 올린 후 차후 손님에게서 받은 팁에서 변제하는 제도로 여급을 착취하고 영구적인 노예상태로 두는 데 활용되었다. 전차금은 여급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1934년 8월 카페 올림픽의 여급 구교순이 전차금을 갚지 않고 사라지자 그녀의 남편이 카페 주인에 의해 불법 감금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1938년 5월에는 도화식당의 여급 이기순과 결혼하려던 청년이 자기 애인에게 전차금 100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변상할 길이 없어 고민하다 죽음밖에 길이 없다 생각해 한강에 투신자살하려다 순시 중인 경찰에게 발견되어 구호된 일도 있었다.

전차금의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38년 8월 본정경찰서 보안계에는 천복회관이라는 카페의 일본인 여급이 찾아와서 몇 달 전 카페 주인에게 전차금 65원을 빌려 썼는데 그동안 40여원을 갚았으나 아직도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까지 갚은 것은 모두 이자라고 하여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처럼 카페 주인이 여급들을 상대로 악질 고리대금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은 끊이지 않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여급들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1934년 경찰당국에서는 전차금 감액 대책을 강구하고 팁은 전부 여급의 수입으로 하는 카페 규칙을 제정하고 나아가 팁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봉급을 받는 샐러리맨이 되도록 하는 여급의 고용조건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여급들은 이러한 불리한 고용 및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카페 업주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파업을 하기도 했다. 1932년 7월 17일 살롱 아리랑이란 카페의 여급 22명이 결속하여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 파업의 목적은 카페 지배인이 횡포와 폭력이 심해 그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급들은 주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복업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경성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노동쟁의가 일어났으나 카페의 여급들이 결속하고 파업을 단행하여 영업주를 곤란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일반 동업자들은 물론이고 사회방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진전을 주시하였다. 1934년 1월에도 본정의 모 카페 여급들이 자신들의 대우에 불만을 갖고 처우개선을 주인에게 요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주인은 주모자인 마에다 도시코 외 2명의 여급을 해고하였고, 이에 분개한 20여 명의 여급은 모두 결속하여 동맹휴업을 일으키고 대우개선과 해고 여급의 복직을 완강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주인 측에서는 다시 휴업으로 맞섰다. 이에 본정경찰서에서 조정애 나서 여급들을 진정시켰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동맹휴업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급들의 미담 소식이 적지 않게 들렸다. 뜻하지 않은 적설로 큰 피해를 입은 울릉도 동포의 가여운 소식을 듣고 1934년 2월 7일 카페 올림픽의 본점과 지점 주인과 여급 그리고 종업원 55명이 현금 20원 76전을 모아 이재민에게 보내달라며 조선일보에 전했다. 흥동녹주 속에서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밤잠 못 자가며 빈 돈을 보내는 것이어서 더욱 동포애를 자극하였다. 올림픽 카페의 여급들은 8월에도 수재민 구제에 써달라며 9원 50전을 모아 조선일보에 보낼 정도로 구제활동에 적극적이었다.

### 일본 카페의 경성 진출과 카페 간 경쟁

1931년 2월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 대형 카페에서는 시내에 '여급 학교'를 설립하고 17~8세의 소녀 약 200명을 신시대적 여급으로 훈육시켜 이 학교를 졸업한 여급 투사들을 경성은 물론 대련과 상해에까지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 이 학교의 수업과목은 댄스와 영어, 불어, 독어 등의 외국어 그리고 음악 등 5~6과목이었다고 한다. 학교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 카페가 기업형 성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



## 다시보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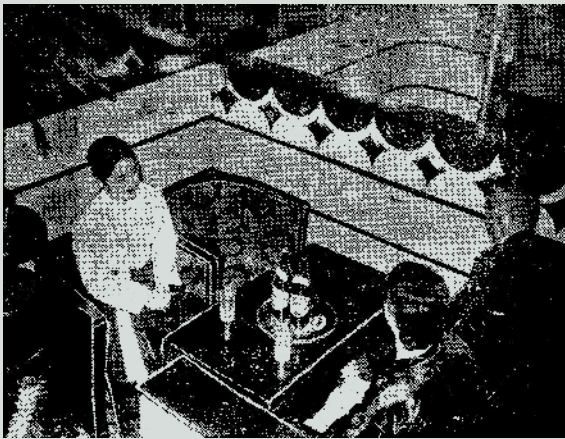
이경민의 경성 산책

또한 3월에는 오사카의 대형 카페가 경성의 본정 2정목에 있던 삼월오복점(三越鳴服店) 경성지점 자리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마치 오늘날의 다국적 기업처럼 대자본을 앞세운 일본의 대형 카페가 경성은 물론이고 구주나 대련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일본운수회사로 하여금 상기 장소를 매수하여 경영하고자 교섭에 나섰던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경성의 군소 카페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지만 '에로당'과 '카페당'들은 자못 흥미를 가지고 기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일본의 공세에 대응이라도 하듯 경성 시내 북촌의 카페 수는 전년도까지 6개에 불과했으나 1932년 봄에 이르러서는 17개로 급격히 늘었다. 이처럼 카페가 늘어나고 일본의 카페와 여급들이 경성으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카페 간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이로 인해 여급들의 에로서비스의 강도는 높아지고 외국인 여급을 쓰는 사례까지 있었다. 1931년 본정에 있던 '미인좌'(美人座)와 '살롱 아리랑' 두 카페에서는 고객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였는데, 소관 경찰서에서는 풍기상의 이유로 미인좌에 있는 러시아 여급 마리아 니나와 아리랑의 독일 여급 릴테메를 내보내라고 경고하고 벌금 10원씩을 물린 일이 있었다. 업주들이 카페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상을 올리기 위해 외국인 여급을 고용한 것이었지만,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실업난 때문에 이역만리 조선으로 건너 온

외국인 여성들의 엑소더스가 카페를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소련 붕괴 이후 경제난을 이유로 한국의 유흥업소에 취업하러 오는 동구권 출신 여성들의 이주 노동과 맥을 같이하며, 이런 점에서 과거 식민지 시대의 카페와 오늘날 유흥주점의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또한 1935년 경기도 경찰부 고등계에서는 유흥업소에서 선전용으로 제작된 특제 성냥의 표장 의장에 '에로 미(美)를 발산하는 그림을 붙인' 것이 많아지자, 카페와 바 그리고 여관에서 뿌려지는 성냥의 의장주문을 맡은 인쇄업체를 수색하여 에로성냥 포장 300여 종을 압수하고 관련 영업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요즘 유흥업소와 모텔 밀집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 전라의 여성사진을 넣은 명함크기 전단지 기원을 당시 일그러진 카페 문화에서 발견하게 된다.



바(bar)의 내부 풍경, 1937

### 카페의 단속과 쇠퇴

카페가 에로의 중심지로서 밀매음을 비롯한 각종 범죄와 탈법의 온상이 되자 사법 당국에서는 카페에 대한 각종 단속과 규제에 나섰다. 각 경찰서에서는 자체적인 내부 규정을 만들어 관할 카페를 단속해 왔는데, 1927년 본정 경찰서에서 여급의 호객 행위 금지 등을 담은 고용 여성에 대한 9가지 조항을 만들어 단속한 것을 시작으로 1931년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 제정한 카페의 외관과 내부 시설, 영업시간과 고용 조건 등에 관한 11개 항목의 단속령과 1933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일본 각지를 시찰하며 모든 결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만든 총 16조의 카페취체규칙이 각각 시행되었다. 그리고 다시 1934년 경무국에서 '카페 영업취체내용표준'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카페단속규칙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경찰이 가장 많이 단속한 사항은 밀매음과 학생의 카페 출입 등의 풍기 문제와 함께 폭리와 탈세 행위였다. 1935년 카페 미도리에서 정종 한 병에 30전 하는 것을 규정을 어기고 50전씩 받아오다가 과료를

문 적이 있었으며, 1939년에도 카페 백마에서 손님에게 시가 3원 50전 하는 매실주를 양주라고 속여 35원을 청구하여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폭리 행위가 잦아지자 경찰에서는 폭리취체규칙을 제정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하지만 카페 업주들은 이러한 단속 규정과 엄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통해 폭리와 탈세를 일삼으며 카페의 전성기를 구가해왔다.

그런데 1938년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전시체제로 들어서면서 카페에도 운이 감돌았다. 8월 27일, 카페의 신규 영업과 여급의 신규 고용이 모두 불허되었고, 카페 안팎의 선전 및 환락 장치는 몰자절약차원에서 호화롭거나 대규모의 것은 일체 허가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상사국 하에서 심야영업을 밤 12시로 제한했으며 영업시간 이후인 오전 1시부터는 네온사인 및 광고등을 소등하도록 했다. 특히 종로경찰서에서는 여급의 애청과 카페의 외국어 명칭도 순 일본식으로 개칭하도록 했으며 여급들에게는 파마와 같은 서양식 머리모양도 금했다. 또한 1940년에는 당국과 음식점 조합이 정한 공정가와 협정가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 없었으며 유흥세까지 신설되어 폐업하는 곳이 속출했다. 그해 7월 23일에는 '사치품제조판매금지령'까지 내려 오전 영업은 금지하고 영업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했다. 결국 1936년까지만 해도 향락산업을 이끌며 번창했던 카페가 1937년 중일전쟁 이래로 전시동원체제가 구축되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한편 여급들은 밀매음과 사창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작부나 창기와 마찬가지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1939년 화류병예방령의 실시를 앞두고 공장에 한하여 적용해 오던 검미(檢微)제도를 국민보건의 확보라는 이유를 들어 각종 사창과 접객업 종사자들에게까지 적용시켰으며, 결국 카페의 여급에게도 신체검사라는 명목 하에 방병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식민 당국에 의해 통제와 관리를 받는 성노예를 의미했다. 결국 카페의 몰락과 함께 여급들의 신체도 전시체제에 동원된 것이다.

오늘날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풍경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카페가 들어서 있고, 명동에서 가장 비싼 땅 위에도 대형브랜드의 커피 매장이 들어서서 몇 년째 성업 중이다. 그만큼 카페는 현대인들의 가장 대중적인 장소이자 기호품으로 자리 잡았다. 깊어가는 가을 카페에 앉아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온, 기록치 않았던 그 역사와 기원에 대해 음미해보는 것은 어떨지?



카페의 여급과 불야성 풍경, 1932

#### 글 | 이경민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2005년 중앙대 첨단 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사진 아카이브연구소를 운영하며 근대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진사 연구에 관심을 두고 사진 평론과 전시 및 출판, 기획 등의 일을 해왔다.



비하인드

# 책이 아닌 인생을 권합니다

③ 북 마 스 터 를 만 나 다





북마스터라는 직업은 몇 년 전 MBC의 <느낌표!\_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 밖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직업이다. 세계 최초이자 국내 최초로 교보문고에서 시작한 이 북마스터 제도가 서점가에 자리 잡은 지도 어언 십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비하인드 코너에서는 타인에게 책 권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일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뷰로 풀어보았다.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다고 한다. 돈 잘 벌고 좋아하는 일, 돈은 잘 벌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 돈은 잘 벌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 돈도 잘 못 벌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 이에 대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압도적인 다수가 네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다. 첫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직업은 선택받은 소수만의 이야기이며 거의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일생을 살아 간다는 것이다. 북마스터는 이 중에서 과연 몇 번째 직업군에 속할까? 인터뷰를 하러 가면서 이것을 알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신길레, 정지혜 북마스터를 만난 날은 초겨울의 칼바람이 부는 목요일이었다. 부산한 교보문고의 인파를 뚫고 두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고객센터센터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환한 표정의 신길레 북마스터가 어쩐지 친숙하다 했더니 예전에 MBC <느낌표!\_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에 1년 넘게 매주 출연한 경력이 있는 북마스터계의 '연예인'이었다.

### 장기적인 독서장려운동이 필요

“그때 매주 하루는 방송을 위해 출근하지 않았죠. 전국 방방곡곡 책 소개를 하기 위해 안 다닌 곳이 없었어요. 독서 붐도 많이 일어나고 보람찬 일이었죠.” 과거가 그리운 듯 신길레 북마스터는 현재 방송계에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준 것이 아쉬운 표정이었다.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그때처럼 힘이 있었으면 하는데... 시청률이 안 나오면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낭독의 힘>같은 프로도 없어졌고,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사회가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 있게 독서캠페인을 하거나 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영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하다못해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무슨 책을 읽는 장면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반짝 인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책을 소개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독서문화가 정착이 되어야죠.”

신길레 씨가 이렇게 말을 열자, 정지혜 씨가 옆에서 거들었다. “교보문고 직원들이요, 다른 건



- 1 신길레 북마스터가 손님의 책 상담에 응대하고 있다. 북마스터 표지가 붙어 있는 각 코너에 가면 본인이 보고 싶은 책에 대한 상담부터 찾는 책이 없을 경우 주문, 예약이 가능하다.
- 2 교보문고의 유니폼이 몇 년 전에 새로 바뀌었다. 유명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이 디자인한 블라우스 안에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란 한글 글귀가 들어가 있다고, 신길레 씨가 착용한 연두색 리본 스카프는 각 코너의 매니저급만 착용이 가능한 직위의 상징으로 교보문고에는 모두 19명 정도의 매니저 북마스터가 있다.

몰라도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정말 잘 알아요. 저는 곧 결혼하는데 신혼집의 거실을 완전히 서재처럼 인테리어를 했어요. 나중에 2세가 태어나도 거실에서 TV만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읽게 하고 싶어서죠. 그런데 신랑은 싫어해요(웃음).” 신길레 씨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어요. 저희 집은 원래 거실을 서재로 꾸몄다가 이번에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방 하나를 따로 서재로 만들었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애들이 전에는 거실에서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방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안 읽더라구...(웃음)”

경력 17년차 베테랑인 신길레 씨는 최초의 북마스터로 지금 담당하는 문학 코너의 매니저를 맡고 있다. 유니폼 블라우스 위에 단정하게 매여진 연두색 리본 스카프가 그녀의 직위를 상징하고 있다. 경력 9년차의 인문 코너 담당 정지혜 씨의 경우는 결코 적지 않은 경력임에도 직원 중에서 막내 축에 속한다고 한다. 그만큼 교보문고에는 장기근속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슬슬 근무조건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다.

“최고의 직장이지요.” 아무 망설임 없이 신길레 씨와 정지혜 씨가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자세한 설명은 근무연차가 긴 신길레 씨가 시작했다. “교보문고 근무는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 3교대로 이루어져요. 아침반은 아침 8시 반 정도 출근해서 매장을 9시 반 정도 오픈하고 저녁까지 근무하고요, 오후반은 12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저녁반은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교대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말은 고객들이 많다 보니 매주 쉬지는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쉴 수 있죠. 그 외의 날은 평일 휴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직원 입장에서 볼 때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배려는 최고예요.” 신길레 씨가 간단하게 업무내용을 요약했다. “북마스터는 매장에서 고객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 책에 대해 상담해 드리는 일이 주 업무예요. 없는 책은 주문, 예약해드리기도 하구요. 매장을 청소하는 업체가 따로 있긴 하지만 담당하는 코너는 직접 책의 먼지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매일 신간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신간을 배치하면서 책 제목, 저자, 내용 같은 것은 대충이라도 익혀 둡니다. 다 정독을 할 수는 없지만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신문 스크랩도 빼놓지 않구요. 하루에 문학 신간은 10권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 년에 3,600권 정도 되지요. 지금까지 17년 일했는데 한번 스쳐간 도서관들만 모아도 웬만한 도서관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웃음). 그냥 하루 종일 책하고 같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너무 좋죠(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다면?’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한참 생각하던 신길레 씨가 대답했다. “주말에 늘 쉴 수는 없는 것? 아이들이 각각 초등학교 4학년과 일곱 살인데 매 주말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지 않죠. 대신 애들 아빠가 주말에 모든 약속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해줘요. 맞벌이의 경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양육이 엄마만의 몫도 아닌데(웃음).” 듣고 보니 결국 직장생활의 고충이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고충? 까지는 아니고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객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책에 대해 모르면 스트레스를 받죠. 업무 초기에는 일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고객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외부요인보다는 스스로의 무능력(?) 때문이죠(웃음). 그런데 문학코너는 아무래도 고객들이 학생이나 젊은 분 위주다보니 고객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원체 적은 편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면 지혜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인문 코너는 아무래도 중장년층 손님들이 많으니 고객에게 대응하는 게 보통 큰 일이 아닌데 웃음을 잃는 일이 없거든요.” 칭찬을 들은 지혜 씨의 얼굴이 붉어진다.

### 손님한테 혼나서 울기도

“인문 코너는 다른 코너와 좀 달라요. 젊은 분들보다 연세 있는 분들이 주로 오시죠. 그러다보니 눈이나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 꽤 있고,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속 시원하게 말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책의 어느 부분만 발췌해 오셔서 어떤 책인지 찾아달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죠(웃음). 북마스터 초창기에는 고객 때문에 우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전에도 어느 할아버님께 호되게 혼나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고(웃음).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무조건 야단을 치시고 화를 내시니까(웃음)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았지요. 특히 점, 역학, 사주 같은 책을 찾으러 오시는 손님들은 정말 독특하세요. 외모부터가 예사롭지 않으시죠(웃음). 도인 같은 풍모를 하신 분들이 오셔서 쪽지 하나 들고 ‘이 책을 찾아주세요’하세요. 이렇듯 다양한 손님들을 접하다 보니 저도 덩달아 도인이 되어가는 것 같고(웃음)….”

문학이나 실용서적보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편인 인문코너에 대한 생각도 궁금했다. “인문 코너 담당자로서 안타까운 점은… 인문서적들이 알면 알수록 정말 재미있고 유용한데도 사람들이 거의 읽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출판사에서 ‘인문은 죽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담당자로서 참 슬프지요.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학교 교재로 채택되지 않는 한 일부러 와서 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 보면 인문서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코너에는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가 많아요. 그중에서도 역사 부문에 스테디셀러가 많죠. 앞으로 「희망의 인문학」 「통섭」 「슬픈 열대」와 같은 좋은 인문서적들이 많이 나가고 읽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과 함께 지혜 씨는 가벼운 한숨을 쉬었다.

평소부터 한국 순수문학이 너무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오곤 했었다. 한국 순수문학이 외국문학에 비해 외면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신길레 북마스터에게 물어보았다. “책도 유행을 탑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사회 변화에 무척 민감한 편이에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서 위주로 많이 나가고… 현재 한국문학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력 9년차 북마스터 정지혜 씨는 처음 일사했을 때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방식에 적응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저녁 무렵 퇴근해서 집에 가면 다리가 통통 부어 있어 당황했다고. 지금도 부츠를 신으면 아침에 헐렁했다가 저녁 무렵에는 꼭 맞는다며 웃었다.





## 비하인드

### ③ 북마스터를 만나다

작가들은 공지영, 신경숙, 김훈 같은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신인 작가들이 많이 나와서 무겁거나 어렵지 않은, 발랄하고 새로운 한국소설을 선보였으면 좋겠어요. 장르소설도 좋고요. 한국 문학은 ‘순수’라는 얼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는 장기상영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지만 어떤 영화는 며칠 안가서 간판을 내리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만 좋아서는 안돼요.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좋아야 하지만 작가, 북디자인, 출판사, 홍보전략 등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잘 되는 것 같아요.” 신길레 씨는 말하는 내내 숙연한 분위기였다.

### 우리는 인생상담가

듣다보니 북마스터의 가장 큰 임무는 아무래도 ‘고객에게 좋은 책을(혹은 고객이 원하는 책을) 권하는 일’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직업을 각자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을까?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봤다.

베테랑 신길레 씨가 웃으며 딱 잘라 대답했다. “도서상담가가 아니고 인생상담가예요. 단순히 이 책 주세요,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일대일로 고객을 응대하면서 그 분의 상황에 맞는 책을 추천해드리 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전에 한번은 딸이 나이 서른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는데 연애에 문외한인 것 같다, 그러니 남자를 사귄 수 있는 책을 권해달라고 부탁하신 어머님 고객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주변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마음에 위안이 될 만한 책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신 고객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신중하게 책을 골라 드리게 돼요. 고객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망설이던 지혜 씨도 입을 열었다. “북마스터는 ‘도인’...이 아닐까요? 인문 코너의 북마스터는 마음 의 도를 닦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문학코너 사람들이 정적이고 따뜻하다면 인문코너 사람들 은 말투나 눈빛이 깊고, 아동 코너 직원들은 밝고 명랑해서 어린이들 같아요. 실용서나 기술 관련 코 너 사람들은 전문적인 용어를 자주 구사하게 되구요. 북마스터는 자신이 담당한 책을 그대로 닦아가나 봐요(웃음).”

인터뷰 시작 전에 가졌던 궁금증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북마스터는 첫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축 북받은 소수의 직업임에 틀림없었다. 앞으로 교보문고에 들를 때 마다 꼭 인사하겠다는 다짐을 마지막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 글 | 박초로미

現 그라우 갤러리 대표. 본업은 미술인이지만 부업은 프리랜서 기고가다. 인터뷰, 여행, 문화예술 관련 원고를 쓰고 있다. 외인에 사족을 못 쓰며 분위기 좋은 곳에서 분위기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분위기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

#### 사진 | 한금선

판자촌, 독거노인, 거리의 아이들 등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7년 <집시 바람새 바람꽃>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 작업을 발표해 왔다. 현재 월간 <인간>에서 사진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 〈미니인터뷰〉



신길례 북마스터가 권하는 문학 분야 추천도서

### “감동을 주는 책이 최고입니다”

올해 세상을 등지신 장영희 선생님의 책 전부를 추천한다. 마지막 에세이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나 〈문학의 숲을 거닐다〉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문학사랑을 실천한 장 선생님의 책을 읽다보면 삶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청소년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고, 지치고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는 책이니 장영희 선생님께는 노벨문학상도 아깝지 않다.

또 한권의 추천도서는 신경숙 선생님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읽으면서 진정한 문학이 갖는 무게감을 느꼈다. 정말로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소설이다 싶었다. 특히 여자가 읽었을 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외국 작가의 소설로서는 기욤 뭈소의 〈구해줘〉 같은 책이 좋았다.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옛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소설가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그네〉, 〈인더풀〉을 권한다. 삶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 1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2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 3 오쿠다 히데오의 〈인더풀〉



정지혜 북마스터가 권하는 인문 분야 추천도서

### “인문학이 어렵다는 편견은 버리세요”

인문 서적 또한 유행의 흐름이 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역사서를 너무 좋아해서 역사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두근두근 거린다. ‘인문학’하면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일단 버리면, 정말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최근에 읽은 책 중 추천도서는 〈미쳐야 미친다〉라는 정민 선생님의 책이다. 개인적으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책을 찾아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재미있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하는 호기심에 시름을 잊고 빠져들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오타쿠 지식인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몰랐던 독특한 조선시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 다른 추천도서로는 노자의 〈도덕경〉. 읽으면서 노자의 자유로운 삶이 무척 부러웠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동양 고전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EBS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노자 강의를 했었을 때 노자 책 매출이 부쩍 올랐었다.

마지막으로는 인문코너 매니저님이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책인데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님의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도서다. 남녀관계와 결혼에 대해 새롭게 해석한 책으로 부부가 읽기에는 그만이다.

이렇듯 알고 보면 인문학 서적 중에도 쉽고 재미있는 책들이 많은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문학’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인간학’으로 바꾸어보면 어떨지 가끔 생각한다.



- 1 정민의 〈미쳐야 미친다〉
- 2 노자의 〈도덕경〉
- 3 김정운의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Image Seoul







# 작은 빛과 길을 걷다

첫추위라 그런가요?

많이 춥게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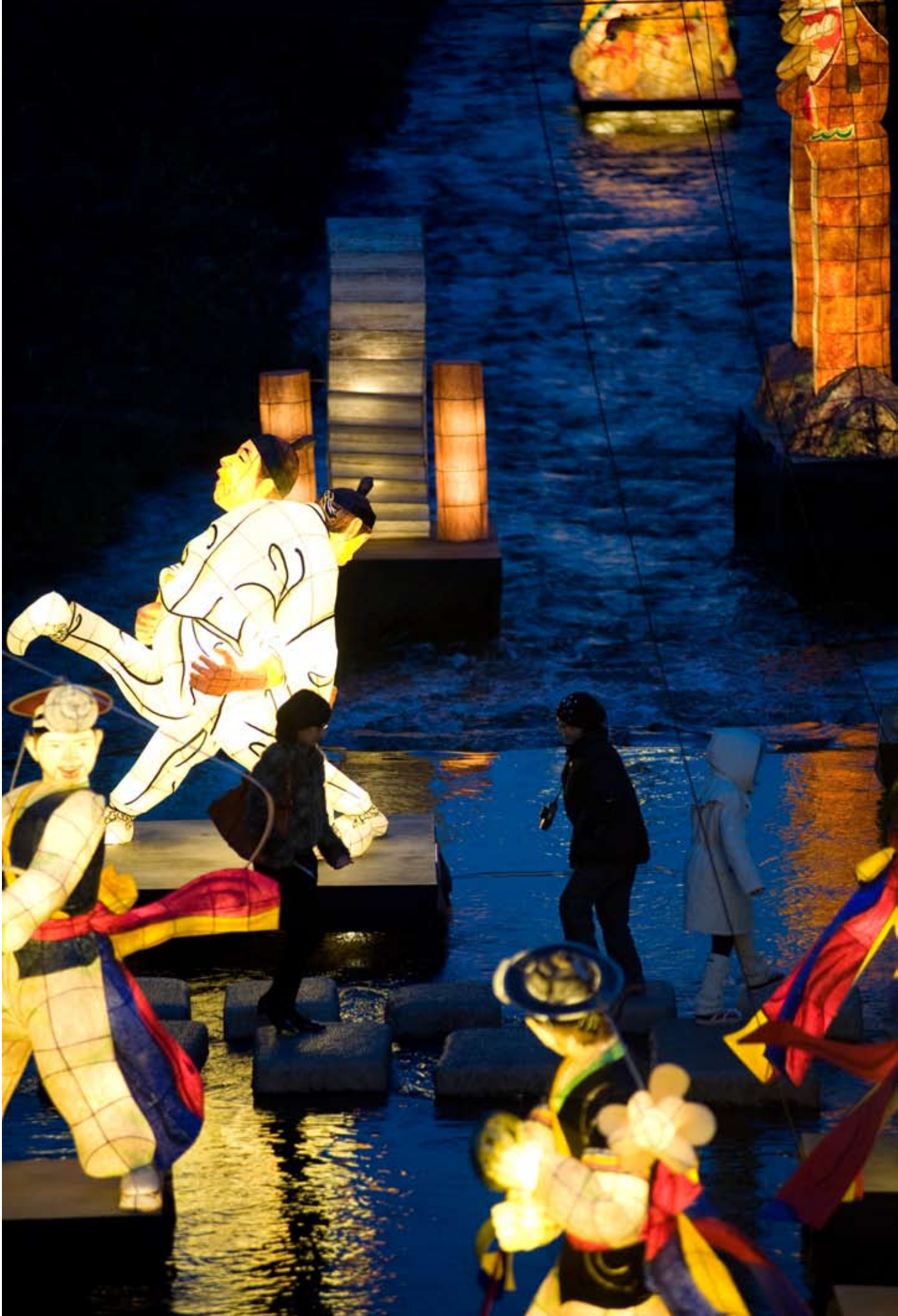
그래서인가요,

따스했던 기억만이 떠오릅니다.

훈훈했던 이야기는 추억으로 길을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오릅니다.







**사진 | 한금선**

판자촌, 독거노인, 거리의 아이들 등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7년 <집시 바람새 바람꽃>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 작업을 발표해 왔다. 현재 월간 <인권>에서 사진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HOT SKETCH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

〈운현궁 오라버니〉



〈운현궁 오라버니〉 출연 배우들



# 운현궁 오라버니, 담장 너머 세상을 만나다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 <운현궁 오라버니>

지난 6월 개관한 남산예술센터의  
2009 시즌 프로그램 마지막 작품으로 연극  
<운현궁 오라버니>가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조선 마지막 황족,  
이우의 이야기로 1930년대 초반 나라 잃은  
황족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운현궁에서 사진촬영이 있던 날과  
막바지 연습 현장에서 출연배우들을 만나보았다.



HOT SKETCH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  
〈운현궁 오라버니〉

그 날, 유난히 바람이 불었다. 이제 겨울인가 싶게 화려한 색을 입은 나뭇잎들은 찬바람에 힘없이 떨어졌다. 운현궁의 기획전시실, 이 날은 별다른 전시가 없어 비워진 이곳에서 분장을 하고 의상을 준비한다. 전날 남양주촬영소에서 빌려왔던 시대 의상을 입어보고 주름진 곳을 펴고, 품이 큰 곳은 옷핀으로 임시 수선을 한다. 벌써 해가 노락당 마당에 길게 그림자를 만든다. 해 지기 전에 프로필 촬영과 보도용 장면 연출 사진, 포스터 촬영까지 마치려니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 운현궁에서 만난 〈운현궁 오라버니〉

〈운현궁 오라버니〉는 2009년 옥랑회극상 수상작으로 신예 신은수 작가의 작품이다. 운현궁 하면 조선 말, 권력을 떨치던 흥선대원군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운현궁 오라버니는 누구일까. 작품의 주인공 이우는 손이 끊긴 흥선대원군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 운현궁의 네 번째 주인이 된다. 한일강제합방 이후인 1912년에 태어나 8살 무렵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이우는 일본에서 일본학습원과 군사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도 일본어 대신 조선말을 쓴 당찬 아이였다고 한다. 1930년대 조선 왕족을 일본인과 결혼시키려는 일본의 내선일체 정책에 따라, 이우도 일본 여성과의 혼인을 강요받지만 이를 거부하고 박영호의 손녀, 박찬주와 결혼을 한다. 훗날 일본군으로서 만주 산서성 전투에 참여하지만, 은밀히 독립운동을 도모하다가 일본에게 발각되어 만주에서 히로시마로 발령이 난다. 발령을 거부하고 운현궁에 은거하다가 그의 부관이었던

요시나리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꾼다. 히로시마로 첫 출근하는 날, 공교롭게도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부상을 입은 이우는 끝내 숨을 거둔다. 그렇게도 독립을 염원하던 그의 장례식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게 되는데, 그의 비극적인 삶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그대로 보여준다.

작품은 청년 이우가 방학을 맞아 운현궁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운현궁에서 오라버니를 기다리는 어린 동생 해원과 형길, 이들을 돌보는 한상궁, 친일파이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손녀딸을 이우와 혼인시킬 궁리를 하는 박영호, 조선은 시궁창이라며 조선의 앞날을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형 이건, 가상의 설정이지만 창덕궁 내선재에 머무는 이방자, 이우와 결혼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한 일본 황족의 딸 히사코 등 운현궁을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때는 1930년대 초반이다. 만주전쟁 이후로 일본의 대동아 침략전쟁이 시작된 시기였지만 궁 밖의 일상은 이미 일본문화에 젖어 모던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변화를 맞은 때였다.

박영호 역을 맡은 배우 이호재는 가장 먼저 분장을 마치고 촬영을 할 곳곳을 둘러본다. “대한제국의 풍운아 박영호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수염을 기르고 있어요. 우리가 훗날 역사적으로는 박영호를 친일파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분도 당시에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고 하려고 했던 분이예요.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남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당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무엇을 원했을까 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 인물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봅니다. 그분도 당시에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고민했던 인물이에요. 역사는 심판을 달리 했지만.”



이우 역의 김영민 배우





- 1 연습실에서의 스태프 회의
- 2 보도자료 사진 촬영 전 분장하는 배우 전수지
- 3 요시나리 역의 배우 김준태
- 4 연출가 이성열과 작가 신은수
- 5 이견 역의 이남희와 이우 역의 김영민



운현궁 노략당 앞에서 해원과 형길

#### 《운현궁 오라버니》를 기다리는 소년배우

연극계의 대선배 배우 이호재가 후배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면, 이우의 동생 형길 역을 맡은 열세 살 지혜찬 어린이는 긴 연습 시간 간간이 재롱을 부린다. 제법 출연작이 많아 누구인가 했더니 올해 초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벼랑 위의 포뇨》에서 소스케의 목소리를 더빙한 배우다. 초등학교 6학년인 지

혜찬 어린이는 연습에 참여하기 위해 2교시 수업을 마치고 조퇴를 한다. 연습실에 도착하기까지 두 시간, 어느새 날이 쌀쌀해져 이곳 연습실까지 걸어오는 게 벅찰 법도 한데 그보다는 친구들과 많이 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한다. 연습 현장을 보러 남산예술센터 연습실을 찾은 날, 다니기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어리광을 부린다.

“집이 인천인데요, 어제는 너무 늦게 끝나서 집에 가다가 버스가 끊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어요. 보통은 혼자 다녀요. 친구들과하고 놀지도 못하고… 저 되게 불쌍하죠.”

7남매 중의 맏이, 지혜찬 어린이는 4살 때부터 무대에 섰다고 한다. 첫 무대가 어땠는지 어떤 역할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니 그런 줄 안다. 동생들 중 몇 명은 어린 나이에도 영화나 연극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배우다. 연기 교육도, 연습도 아버지와 한다고 한다.

“형길은 저에 비하면 너무 착한 거 같아요. 저는 엄청 까불고 장난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형길은 착하고 순수하고 어른스럽고…” 못 말리는 까불이 혜찬이가 보기에 극 중 아홉 살인 형길이 어른스러워 보였나보다. 대선배 배우들 사이에서 찬찬히 제 몫을 해내는 자신의 의젓한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함이라.

#### 쇠락해 가는 운현궁의 일상,

#### 조선 마지막 황족을 둘러싼 사람들

하얀 천이 드리워진 무대, 담장 밖으로는 궁 밖을 오가는 일본군들이 보이고, 간혹 벚꽃이 날린다. 달빛 아래, 조선의 현실에 가슴 아파 하는 이우와 형길의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쓸 찻잎을 뿔고 있는 이우의 부관 요시나리가 이야기를 나눈다. 적이지만 같은 운명이기도 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느낀다. 그 고요를 깨고 들어오는 형 이건, 어느새 술도 한 잔 걸쳤다. 이건은 이우 앞에서 조선은 시궁창이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적국의 군인인 요시나리를 의심하고, 정해주는 대로 일본 여성과 결혼하라고 부추긴다. 의왕의 장남이지만 집안에서, 일본으로부터 이우와는 다른 대접을 받았던 이건은 이우의 행동이 성에 차지 않는다.

“이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리어왕》에 나오는 에드먼드 같은 캐릭터랄까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몸부림치는, 스스로를 파괴해 가는 인물. 이우는 이상주의자인데 반해 이건은 현실주의자예요. 생각의 차이겠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산 형으로서 이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다른 면으로 보면 태생적인 문제도 있겠죠. 이우는 부친 의왕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에 반해 이건은 아버지와 사이도 좋지 않았고 외부의 대접도 달랐죠. 그런 상황이 이우와는 다른 길로 가게끔 했을 거예요. 만나면 친한 것

형길 역의 지혜찬 배우



같지만 심기가 불편한 관계랄까....” 이남희 배우는 자신이 맡은 이견 역을 이렇게 소개한다.

### 〈황성옛터〉, 이우가 외쳐 부르는 내 나라의 노래

연극 〈운현궁 오라버니〉는 나라 잃은 황족의 일상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큰 사건은 없지만 미묘한 갈등이 있고, 시대 음악과 현대적인 영상이 어우러져 양식적인 재미도 더했다. 백색 비단이 객석까지 드리운 무대는 극 중 이우가 부르는 황성옛터의 그곳처럼 황량하며, 망자(亡者)들의 공간이 된다. 두 시간이 넘는 대본 분량은 연습하면서 한 시간 50분 남짓으로 줄였다.

이우 역을 맡은 배우 김영민은 얼마 전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에서 고종 역을 맡기도 해 그 시대 인물에는 정통한 것 같아 보인다. 그가 보는 청년 이우는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을지 궁금했다.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잖아요. 선택의 상황, 다양한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우에게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었어요. 그 길만 알고, 그 길만 보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시야에서 그 길이 흔들리고 다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작품 속의 청년 이우는 그 상태예요. 그 혼란스러움, 혼돈을 잘 보여주고 싶어요.”

혼재, 혼돈의 시절에 이우가 보았던 다른 길들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 장면, 운현궁을 떠나며 아우들과 사진을 찍던 이우는 어지럼증을 보인다. 시대가 어지러운 것인가, 무엇이 이우를 흔들어 놓았을까. 조선 마지막 비운의 황족, 이우.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쓸쓸함과 비애가 이 시대의 젊은 이들에게 어떤 질문으로 다가올지 자못 궁금하다.

### 글 | 김민정

희곡, 뮤지컬, 라디오 드라마를 쓰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종종 인터뷰 기사도 쓴다. 행복한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과연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다.

### 사진(53p 2, 3, 4, 54p 하단) | 유명환

엔데코 인테리어 CI/BI 디자이너. SBS 텔레트실 지정스튜디오인 몽상스튜디오 공동대표로 있다.

### 사진(50p, 52p, 53p 1,5, 54p 상단) | 최은선

극단 사다리움직연구소, 극단 사다리, 극단 타루 등의 사진을 전담하고 있다. 월간 한국연극 객원 사진기자로 활동했으며 창작과 비평사 잡지 화보, 한국 마임 연극제 홍보사진, 씨네21 - KT&G 상상마당 독립영화제 스틸 촬영 등을 담당했다.



### 〈운현궁 오라버니〉

신은수 작, 이성열 연출

기간 12월 4일~12월 13일

화~금 8시, 토 3시, 7시, 일 3시 (월요일 휴)

장소 남산예술센터

출연 이호재, 이용이, 이남희, 김영민, 서진, 김준태, 전수지, 김란희, 지혜찬

티켓 25,000원

예약문의 02-6381-4500

청소년(초·중·고등학생) 40% 할인, 서울문화재단 회원 20% 할인



HOT SKETCH

홍대 앞 다시 보다展





## 홍대 앞에서 2009년을 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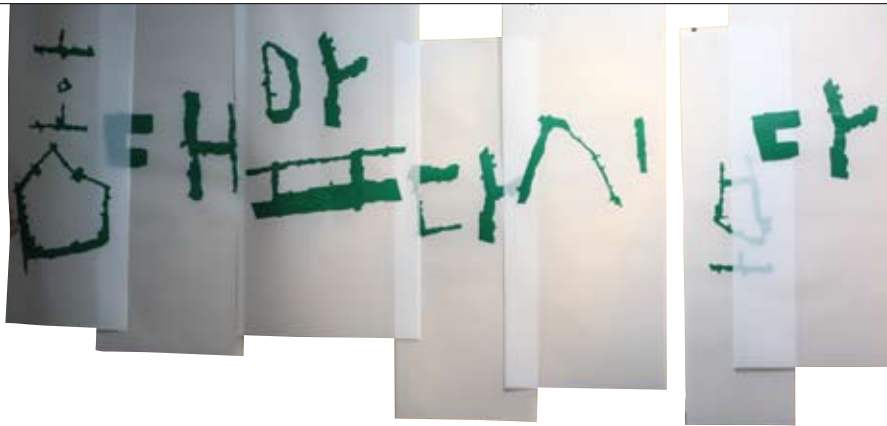
홍대 앞 다시 보다

〈수집가 홍씨의 2009 아카이브展·유랑마켓〉

언제부터인가 '홍대 앞'은 젊은이들의 문화지구가 되었다. 꿈을 키우는 청년들의 요람이며 예술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곳. 누구나 홍대 앞에 오면 문화의 주인이 된다. 홍대 앞을 꾸려온 사람들이 연말을 맞아 손을 잡았다. 2009년 홍대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누구보다 빨리 준비하기 위해서다.



HOT SKETCH  
홍대 앞 다시 보다展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한 해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홍대 앞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곳보다 볼 것, 들을 것 그리고 이야기 할 것이 많은 만큼 다른 지역보다 훨씬 소란스럽게 2009년의 마무리를 시작했다. 가장 앞선 것이 <홍대 앞 다시보다展>이다.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서교예술실험센터와 홍대 주차장 길 등지에서 펼쳐진 이번 프로그램은 한 해 동안 홍대 앞의 문화예술 활동을 되돌아보며,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집가 홍씨의 2009 아카이브展>과 <유랑마켓>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중 <수집가 홍씨의 2009 아카이브展>은 다시 '레코드 라이브러리'와 '아카이브 전시'로 나뉜다.

#### 다 모여라! 수집가 홍씨의 2009 아카이브展

<수집가 홍씨의 2009 아카이브展>은 음악, 시각, 공연, 축제 등 약 70여 곳의 홍대 앞 문화예술단체들이 2009년 활동 자료를 정리하고 재배열한 아카이브 전시가 중심이 된다.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에 자리한 갤러리 카페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대안 공간 루프를 비롯한 17개의 갤러리와 산울림 소극장 등 25곳의 공연장, KT&G 상상마당과 같은 복합 문화공간 및 디자인 출판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시각분야 150여 개, 공연 및 강좌 자료 50여 개 등으로, 다양한 홍보 인쇄 매체와 홍대의 주요 축제인 서울 프린지페스티벌, 서울 와우북페스티벌 등의 축제 가이드북과 현장 사진들이다.

무엇보다 이번 아카이브 전시의 목적은 한 해 동안 펼쳐진 문화예술 활동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고, 2009년 홍대 앞의 이슈들을 정리해 한 해를 생산적으로 돌이켜 보자는 것이었다. 특히 지하 1층에서 진행되는 '레코드 아카이브'에서는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한음파, 오지은, 문샤이너스, 크라잉넛, 브로콜리 너마저,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등 홍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디 밴드들의 2009년 앨범 102장을 선별하여 전시했다. 홍대 앞 공연 기네스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카이브 자료임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전시된 앨범을 직접 들을 수 있고, 한 편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서 뮤직비디오와 공연 실황 등 인디 밴드의 활동을 간접적이거나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와 밴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있었다. 11월 4일에는 디제잉 쇼와 함께 국카스텐과 텔레파시의 공연이, 11일에는 타바코 주스 등의 공연이 열렸고, 11월 13~14일 양일간에는 김청진, 신은경, 연미, 호상근 등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해 자신의 작품을 프레젠테이션하고, 비평, 토론을 펼쳤다. 홍대 앞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재기발랄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업에 관심을 두는 일반인 사이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론 비평가들도 함께 참여했다.

#### 거리 한복판의 시장, 유랑마켓

홍대 앞 주차장거리 어울마당길에서는 유랑마켓이 열렸다.





1



2



3



4



5

- 1 아카이브 전시 광경
- 2 레코드 라이브러리
- 3 오프닝 디제잉 쇼
- 4 유랑마켓 부스 광경
- 5 유랑마켓 광경



HOT SKETCH  
홍대 앞 다시 보다展



유랑마켓 중 재활용 상들리에



유랑마켓 중 인간 주크박스 공연모습

노리단 생태주의 퍼포먼스 그룹 '바투카다 앙상블'의 오프닝으로 시작된 유랑마켓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시민과 예술가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장르별 총 21개의 부스가 설치된 유랑마켓에는 33개 팀이 참여해 회화, 판화, 드로잉, 일러스트 그리고 금속공예 및 친환경 디자인 상품, 생활 속 필요한 아트상품과 실험적인 예술작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작품들을 사고팔 수 있는 아트마켓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캔이나 페트병, 우유곽 등 사람들이 먹고 버린 물건을 활용해 만든 '재활용 상들리에'는 따뜻한 미디어 공장 FACTORY36.5°C와의 협업을 통해서 야간 전시로 이어졌다. 그 외에도 소정의 금액을 넣으면 10팀의 인디밴드가 노래를 연주하는 '인간 주크박스', 홍대 앞 100곳의 카페가 기증한 100개의 컵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백다방의 취향', 책 속 마음에 드는 구절 등을 자투리 종이에 재구성해 미니 북 형태로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책방 : 타자를 쳐드립니다. 타자를 쳐도 됩니다.'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유랑마켓' 안에 자리했다.

#### 홍대 앞에서 2009년을 정리하다

2009년은 홍대 앞 인디음악 신에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장기화와 얼굴들에 대한 엄청난 관심은 신선한 음악을 찾는 사람들의 귀를 홍대 앞으로 쫓긋 세우게 만들었고, 장기화 외 다른 밴드들 역시 이런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듯 뛰어난 앨범들을 풍족하게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제아무리 좋은 앨범

이라 할지라도 아는 사람만 들었다면, 최근 나온 앨범은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대중의 관심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관심은 홍대 음악 신에 풍요로움을 더해 기존에는 펑크나 힙합 등 유행하는 음악의 조류가 큰 틀을 이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이 사랑받기에 이르렀다. 신인 밴드의 증가 역시 마찬가지다. 국카스텐, 검정치마 등 2009년 한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신인 밴드들의 음악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특이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잔잔히 홍대 음악 신을 따뜻하게 덮고 있는 포크 음악의 유행도 2009년을 지나며 정점을 향해 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리플라이와 같은 신인 밴드가 많은 사랑을 받는 동시에, 스왈로우가 4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와 포크 팬을 즐겁게 해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화와 얼굴들의 등장, 김창환의 화려한 복귀가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10년 넘게 홍대를 지키며 굳건히 음악만을 만들어 온 밴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올해만 해도 크라이넛이 새 앨범으로 돌아왔고, 노브레인에서 시작한 차승우의 새로운 밴드 문샤이너스가 2장으로 구성된 데뷔 앨범을 발표하며 홍대 인디음악 마니아뿐 아니라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다양성은 미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의 폭발적 증가는 지금까지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르의 예술, 심지어는 설치 미술 분야까지 아우르며 작품 활동을 가능케 했다. 물론 이러한 바탕에는 미술과 전시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 증가가 큰 자리를 차지한다. 잡지나 TV 프로그램을 통해 익숙해진



유랑마켓 중 워크숍 '다방 : 바다방의 취향' 부스 모습

홍대 앞 예술가들의 작품은 그동안 고수해왔던 특이함과 독창성을 대중들도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회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같은 축제와 KT&G 상상마당과 같은 복합문화공간의 증가, 정부와 서울시의 늘어난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홍대 앞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홍대 앞 주차장 길 주변의 골목과 홍대에서 신촌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 주변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상수역, 합정역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늘어난 공간을 채우는 다양한 카페나 갤러리 역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독창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작품을 전시하는 예술가나 작품을 찾는 일반인을 더욱 친밀하게 연결시키는 데 한 몫 한다. 공간의 확장이 단순한 상업지역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의 증가와 홍대라는 지역의 특성에 걸맞은 수용성을 함께 지닐 수 있었던 것은 홍대 외 다른 지역을 문화 특구 등으로 개발할 때 꼭 참고해야 할 사례다.

### 홍대의 힘, 그곳의 사람들

홍대 앞은 여전히 인디문화의 메카다. 상업적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곳만큼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젊은 문화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은 없다. 클럽과 와인바 등 철저히 소비 성향만을 노린 곳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인디 문화 유전자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홍대의 힘은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만든 것

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전공을 하지 않아도 예술가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인드, 그리고 배타적인 감성보다 새로운 것, 새로운 조류, 새로운 사람을 수용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꿈꿔온 그대로의 홍대를 간직하게 한다.

지금 홍대 앞은 매일매일 다른 풍경으로 인사한다. 단순히 인테리어 변경, 새로운 습의 오픈 등으로 인한 공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홍대 앞은 새로운 문화의 끊임없는 수혈과 꾸준한 자기 변신의 노력으로 다양성을 품으며 항상 새로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곳이다. 라이브 클럽을 찾는 젊은이와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 합주로 매일 밤을 지새우는 젊은이. 그 사이를 이어주고 소통하게끔 도와주는 공간이 홍대라는 사실은 아마 앞으로 몇 십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시 동 통폐합 과정에서 비게 된 옛 서교동사무소에 들어선 복합문화예술공간.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그리고 옥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009년 6월 개관해 홍대 앞의 다양한 문화 및 공연 정보 안내와 함께 전시, 공연, 워크숍 등 문화예술 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Tel 02-333-0246

Website [www.seoulartspace.or.kr](http://www.seoulartspace.or.kr)  
[cafe.naver.com/seoulartspace](http://cafe.naver.com/seoulartspace)



### 글 | 김용현

법학을 공부했지만 잡지 기자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클럽컬처매거진 <블링>의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음악 칼럼니스트라는 또 하나의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음악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다.

### 사진 | 정강

현재 사진과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전시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도 만난다. 카메라로 하는 일은 웬만하면 다 즐겁다.



HOT SKETCH  
2009 서울빛축제



# 다:라이트 서울 The Light, Delight Seoul

2009 서울빛축제

축제란 무엇인가.

광장에 모인 사람들, 밤하늘에 수놓은 빛의 잔치, 한껏 들뜬 마음.

2009년 광화문광장의 서울빛축제는 여기에 미디어아트라는 낯설지 않은 기술을 입혔다.

문화와 기술이 만나 보여줄 성찬을 미리 둘러본다.

디지털 시대가 열린 지 오래다. 컴퓨터도 핸드폰도 TV도 늘 새로운 진화를 한다. 우리가 만든 블로그도, 우리가 가입한 인터넷 카페도 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물살을 타면서 세상 풍경이 광속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어디 그 뿐인가? 2009년 광화문은 600년 전 세종대왕의 귀환으로 본래 뜻인 빛의 광장 '광화문광장'으로 등장했다.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질 서울의 빛축제도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쉬운 이야기로 '빛'이 '미디어(매개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축제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다.

### 빛이 미디어가 된다?

빛이 미디어가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고대인들의 동굴 벽화도 빛으로 그려진 그림이고, 바늘구멍 사진기도 영화도 모두 빛으로 그림을 그린 세계다. 빛으로 그리는 그림들은 계속 진화한다. 전자적인 '빛 그림'의 세계적 거장이며 우리 문화예술의 영웅인 고 백남준이 그 표본이다. 그는 미디어아트의 시조이며 생전에 미디어아티스트로 기억되길 바랐다. 2009년 광화문광장의 서울빛축제 이야기는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의 대작인 '프랙탈 거북선(1993년 작)'과 오랫동안 외롭게 광화문을 지켜 온 이순신 장군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무한으로 펼쳐지는 프랙탈 에너지는 세종대왕의 귀환과 더불어 광화문광장의 역동적인 빛으로 펼쳐진다.

서울빛축제는 광화문광장 양 옆의 세종문화회관과 KT 빌딩 외벽을 '문화와 미래'를 상징하는 초대형 스크린으로 활용한다. 2009년 12월 19일부터 2010년 1월 24일까지 37일 동안 세계적인 추세인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Facade)가 만들어지고 세계적으로도 길이 남을 최장 기간의 다양한 미디어 퍼포먼스가 매일

저녁 시간(6시30분~10시)에 펼쳐진다. 세종문화회관 전면 계단과 벽면, KT 빌딩 외벽을 초대형 스크린으로 사용하여 건물의 특징과 연동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미디어 퍼포먼스들이 진행된다. 축제의 오프닝 주제 작품인 '광화문 아바타(Avatar, 분신)'는 양쪽 건물 외벽의 스크린에 비춘 서울도심 풍경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영상안무를 이끌어간다.

### 우리가 미디어아트의 주인공이 된다

광화문광장 미디어 파사드의 또 다른 퍼포먼스는 바로 시민들이 미디어 퍼포먼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이 빛이 미디어가 되는 초대형 건물 외벽의 스크린 속에 등장한다. 매일 저녁 3차례 20분씩 실시간 인터랙티브 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져 광장에서 가족, 부부, 사랑하는 연인, 친구들끼리 다양하게 형상화되는 자신들의 초상화를 보며 뉴미디어 시대를 체험하게 된다. 광장 전체가 포토 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미디어 파사드 공간을 유유자적하게 거닐며 사진과 비디오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초저녁에는 어린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애니메이션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가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펼쳐지고,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인터랙티브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가 설치된 빛의 방도 운영된다. 미디어예술가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발상이 느껴지는 초대형 크리스마스카드와 연하장도 그 자체가 미디어 파사드 쇼가 된다. 송년과 신년 시즌에는 2010년 호랑이해를 맞아 맹호도와 태평성대를 기리는 태평무도 초대형 미디어 퍼포먼스로 연출된다. 크리스마스 전야(24일)와 제야(31일)에는 새벽 1시까지 미디어 파사드의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렇게 2009년 서울빛축제는 시민이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HOT SKETCH  
2009 서울빛축제



KT빌딩 '미디어 파사드'



세종문화회관 '미디어 파사드'

관람하는 축제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난다. 빛이 미디어로 탈바꿈 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퍼포먼스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무한한 프랙탈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놀이 그 자체다.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가 지나면서 인간의 오감에 연계되는 미디어 기반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문화적 시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에 따라 예술의 형식과 내용도 변화하고 축제도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는 바로 미디어 파사드의 미디어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다.

### 변화하는 빛, 변화하는 산업

이번 서울빛축제에서는 사진, 영화, 비디오, 오디오, 컴퓨터와 디지털아트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융합된 미디어 기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되는 미디어아트의 세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파사드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공간을 변형하고 확대시키는데 유효하다. 이러한 활용성은 미디어를 운용하는 공연, 전시, 이벤트, 건축, 자연 공간 등에 실제적으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창조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2009년 광화문광장의 서울빛축제는 미디어를 운용하여 새로운 문화적 시공간을 구축하는 미래형 업그레이드 축제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축제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 문화브랜드의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축제를 통해 고 백남준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닌 예술가들과 작품들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을 포섭하고 걸러내는데 미디어아트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미디어 파사드의 구축과 운영은 경쟁력을 갖는 전략사업이고, 미디어 퍼포먼스는 아이디어와 발상, 다양한 예술 장르와 기술을 융합하는 모듈이 된다. 축제는 그 자체가 창조산업이다. 축제를 미래형 창조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미디어아트를 도구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관점과 미디어를 운용한 생활공간의 창출을 위해 실재(reality)와 가상(virtual)을 넘나드는 영상 스크린을 조율하는 시공간 연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009년 겨울, 서울빛축제는 미디어 파사드에 의해 광화문광장의 생활영역이 새롭게 구축되고, 예술과 기술을 최적화시키는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노력으로만 들어지는 게 아니다. 모두 함께 하는 유기적인 생명체로서의 축제 모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9년 광화문광장에서는 우리 모두 광화문의 아바타가 되어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외벽, 초대형 빌딩 외벽을 타고 오를 수 있다. 그런 다양한 놀이를 통해 글로벌 서울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글 | 김형수

2009 서울빛축제 예술감독이며,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미디어아트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 〈2009 서울빛축제〉

기간 2009.12.19(토)~2010.1.24(일) 37일간

장소 광화문광장 일대

### Zone 1 Red 역사의 빛 -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장소 이순신장군 동상 앞

기간 행사기간 내 상시 운영

프랙탈 거북선은 TV모니터 384대, 수족관, 전자기 등을 재활용한 16M(가로) x 10M(세로) x 4M(높이) 크기의 작품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무수한 이미지로 뿜어내면서 세계적인 거대도시 서울의 질서와 조화의 통합적 미를 제시한다. 미디어아트의 시조 백남준과 이 시대의 미디어아티스트 김형수 그리고 음악계의 작은 거인 김수철이 함께한 3인3색 협주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만난 역사적 순간을 빛과 영상, 음악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 Zone 2 Blue 문화의 빛 - 세종문화회관의 '미디어 파사드'

장소 세종문화회관 본관, 중앙계단 및 벽면

기간 2009.12.19~2010.1.24 매일 18:30~22:00

약 100M의 세종문화회관 전면을 와이드한 스크린으로 활용, 전면 기둥, 처마, 계단 등 건물의 특성을 이미지화한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한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우리의 자연, 서울의 기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화면으로 분할 및 통합 사용하여 다양한 스토리가 전개된다.

### Zone 3 Green 소통의 빛 - KT빌딩의 '미디어 파사드'

장소 KT빌딩 정면 외벽

기간 2009.12.19~2010.1.24 매일 18:30~22:00

가로80M x 세로 60M(약 4,000인치) 면적을 단일화면으로 사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인다. 세종문화회관과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미디어 내러티브 및 첨단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품이 연출될 예정이다.

### Zone 4 White 창조의 빛 - 빛의 광장, L-Square

#### 〈미디어타워〉

세종대왕 동상 앞 좌우에 문자, 패턴, 동영상 등 자유로운 영상 표현이 가능한 미디어타워 6조를 운영한다. 한글, 수목화, 고서화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새해 소원메시지를 표출할 예정이다.

#### 〈빛의 방(인터랙티브 체험)〉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된 한글, 우리 음악과 가락, 전통 문양과 그림(수목화) 등을 주제로 하는 쌍방향성 인터랙티브 체험 존. 국내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전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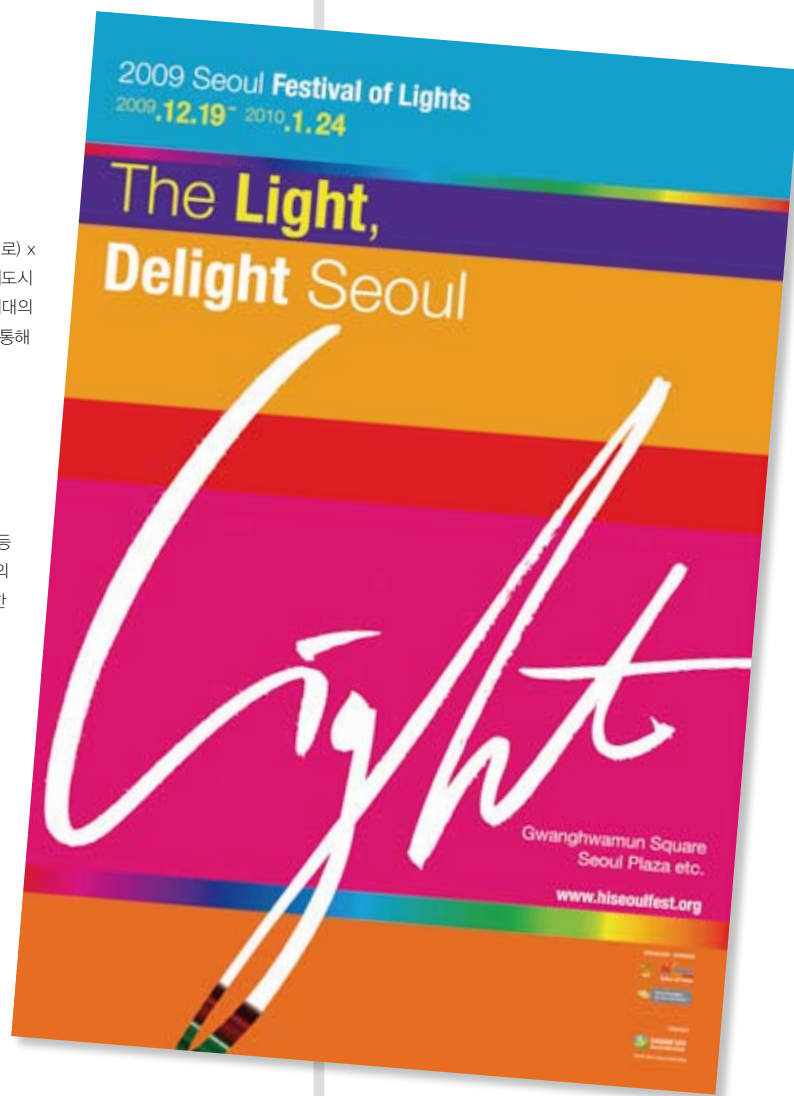
#### 〈일루미네이션(포토존)〉

LED 일루미네이션을 해치마당 상공에 설치하여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포토존을 제공한다.

### Zone 5 휴식의 빛 - 스케이트장

장소 플라워가넷

서울시 체육과 주관, 연계행사로 운영



EMERGING SPACE  
서울의 이색 명소,  
한강 전망 쉼터

# 한강에서 쉬었다 가자, 걷다 가자, 놀다 가자

서울의 이색 명소, 한강 전망 쉼터

한강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요즘, 몇몇 교량 위로 전망대와 카페가 들어서고 있다. 시민들이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한강 다리로 쉽게 접근하여, 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심의 멋진 야경이 그리운 날, 첫 눈 내리는 날, 아담한 한강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강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도 꽤나 운치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한강 쉼터 몇 곳을 소개한다.





시원하게 뻗은 동작대교의 모습. 이제 한강을 보다 멀리, 보다 가깝게 조망할 수 있다.



EMERGING SPACE  
서울의 이색 명소,  
한강 전망 쉼터

‘저기 달려 있는 게 뭐지?’ 최근 한강 다리를 건너본 사람이라면, 이런 궁금증을 한번쯤 가져 봤을지하다.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던 다리 옆으로 이상하게 생긴 건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니 말이다. 어떻게 보면 교통 관측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대판 정자 같기도 한 이 건물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지금까지 한강 다리는 보행자보다는 자동차를 위한 다리였다. 외국 풍네프다리나 하이델베르크 다리처럼 다리 위를 느긋하게 산책하거나 다리 위에서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진 않았다. 자동차가 뽕뽕 달리는 도로 옆이라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다리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강 다리의 남·북단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막혀 있었고, 한강 공원과 다리를 연결하는 통로는 불편했으며, 건너자 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일도 쉽지 않았다. 다리 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강 다리와 서울 시민들의 삶은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나갈 수는 있지만 머물 수는 없는’ 이 단절된 공간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점차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둔지에서 한강 다리로 가는 새로운 통로, 즉 전망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전망대는 다리마다 조금씩 다른 외관을 지니고 있지만, 보통은 다리 중간에 작은 전망 공간이 있고 그 아래로는 한강변으로 걸어 내려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이어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강공원에 내려가 산책을 할 수 있게 연결해 놓은 것이다. 자전거 거치대와 버스 정차대, 주차 공간이 마련된 곳도 있어서 전망대를 더욱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다. 현재 한남대교, 잠실대교, 광진교, 한강대교, 동작대교에 전망대 및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며 11월 말 양화대교에 2개의 전망 카페가 마지막으로 문을 연다. 이로써 서울은 총 5개의 한강 다리에 9개의 전망 쉼터를 갖게 된다.

**자전거 테마의 한남대교 카페 레인보우**

한남대교 남단에 자리 잡은 카페 레인보우는 한강 교량 전망 쉼터 중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선보인 시설이다. 자전거를 테마로 꾸민 전망대답게 카페 안에는 자전거 소품과 관련된 일러스트와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카페 아래쪽 한강 둔치에는 자전거 보관소도 운영되고 있어 자전거도로를 타고 강변을 달리다 들려서 차 한 잔 마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한강변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한남대교를 정면으로 반포대교까지 볼 수 있으며, 반대편 자리에서는 올림픽대로가 보인다. 많은 이용자들이 한강 다리를 지나는 자동차의 소음이나 매연 걱정 없이 편하게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서 이곳을 자주 찾고 있다.

카페 레인보우에서는 커피와 음료, 간단한 주류를 비롯한 스낵이 준비되어 있다. 이곳만의 특색 있는 메뉴는 막걸리 칵테일. 이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오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막걸리 베이스에 주스를 혼합해 색을 낸 칵테일인데 알코올 함유량이 낮아 술을 잘 못하는 이들에게도 환영 받는다. 하루에 5~7회 작동하는 반포대교 달빛무지개 분수를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으니, 미리 작동 시간을 체크해서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 개장 시간은 오전 11시~밤 11시. 문의 02-511-7345.

**야외 전망대가 있는 동작대교 구름 카페, 노을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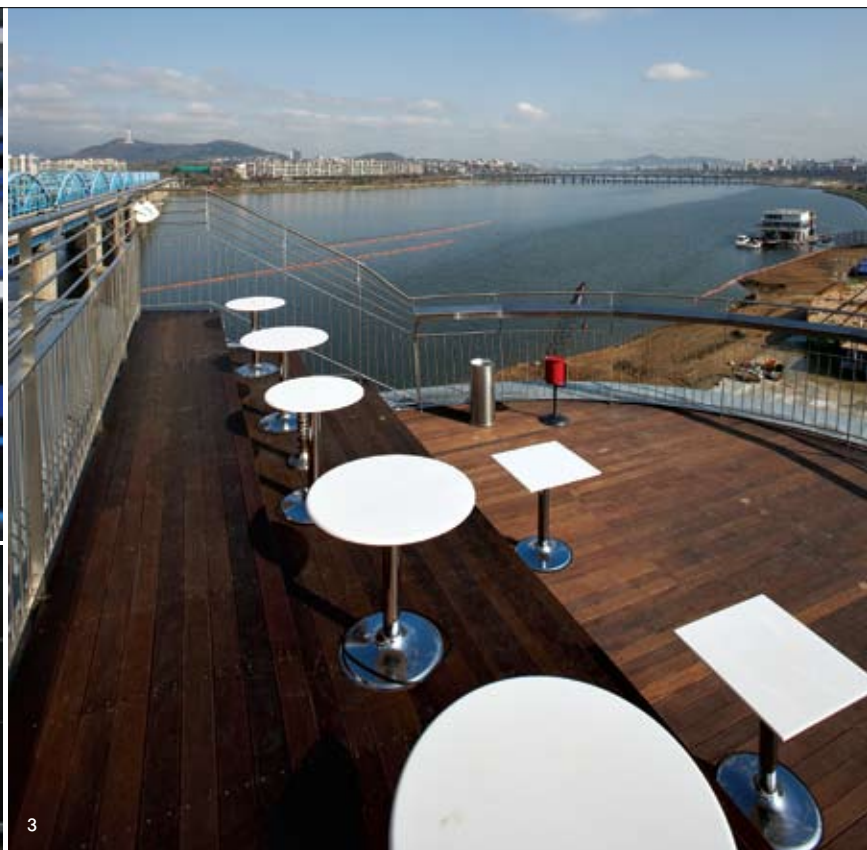
지난 11월 5일 동작대교 남단 양측에 3층 규모의 전망 쉼터가 설치됐다. 똑같은 외관의 전망대가 다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독특한 모습 때문에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 전망대 이름은 구름 카페와 노을 카페. 규모는 동일하게 각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내부 인테리어는 조금 다르다. 구름 카페는 컬러가 많이 가미된 캐주얼한 느낌으로 젊은 층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반면, 노을 카페는 내추럴 한 원목으로 조금은 중후한 분위기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와인 바도 갖추고



1



2



3



4

- 1 자전거를 콘셉트로 꾸민 카페 레인보우. 자전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 자전거 지도를 비치하고 있다.
- 2 구름 카페 내부 전경. 천정에는 별자리 조명을 설치해 한강의 야경과 어울리는 특별한 장소가 되도록 공간을 연출했다.
- 3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와 저녁노을을 즐길 수 있는 옥상 전망대. 구름 카페와 노을 카페에만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다.
- 4 동작대교 남단에 위치한 쉼터 전경. 사진 오른쪽이 구름 카페, 왼쪽이 노을 카페다. 총 5층 규모로 1층은 지층, 2층은 다리, 3~5층이 전망 카페로 운영된다.

EMERGING SPACE  
서울의 이색 명소,  
한강 전망 쉼터

- 1 전망대가 들어선 광진교는  
보행로 폭을 10m로 넓혀 걷고  
싶은 다리로 조성했다.
- 2 다리에서 전망대로 들어가는  
계단.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장쾌한 한강 풍경이 펼쳐진다.



있어서 중년층이나 격식 있는 모임 장소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옥상에는 남산과 여의도 및 반포대교의 달빛무지개 분수를 가깝게 볼 수 있는 별도의 전망대로 마련되어 있다. 신선한 한강 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와 저녁노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온다. 반포대교 분수를 잘 보는 것이 목적이려면 구름 카페를, 한강 야경을 잘 구경하고자 한다면 노을 카페를 이용해 보자.

동작대교 전망 쉼터에는 교량 상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24면씩 총 48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다. 또한 전망대에서 3분 거리에 지하철 동작역이 위치해 있고 카페 바로 앞까지 오는 버스도 있어서, 다른 전망대보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최대화하고 있다.

구름 카페와 노을 카페는 카페만의 독특한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아로마 향을 위주로 유난히 식물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 전망쉼터 내부 천정에는 별자리 조명을 설치하여 한강의 야경과 어울리는 한강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도록 공간 연출에 신경을 썼다. 이곳에서는 음료뿐 아니라 스테이크, 계절 메뉴 등의 식사도 즐길 수 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문의 02-3476-7999(구름 카페), 02-3481-6555(노을 카페).

문화 휴식, 스릴이 공존하는 광진교 리버뷰 8번가

광진구 광장동과 강동구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는 올해 7월 한강 다리로는 유일하게 보행자 중심의 다리로 변신했다. 기존의 4차로 중 2차로를 보행로, 자전거도로, 녹지공간으로 바꾸고 시민들이 한강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꽃과 식물, 강바람을 느끼며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걷고 싶은 다리' 광진교 아래에 타원형의 전망 쉼터가 있다. 광진교 북단에서 8번째 교각에 있다는 의미로 '리버뷰 8번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곳은 교각 하부에 위치한 유일한 전망대라는 점도 독특하지만, 5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공연장과 전시장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도 다른 전망대와 차별화된 점이다. 전망대의 중간벽체를 기준으로 남단 방향은 갤러리와 한강 홍보관, 북단방향은 공연장으로 꾸며져 있다. 현재 공연장에서는 <100년 전 한강을 만나다>라는 사진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공연장에서는 거의 매주 주말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음악과 퍼포먼스 공연들이 열려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다리 밑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심분 활용해, 리버뷰 8번가는 한강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넓은 강화 유리를 일부 바닥에 설치했다. 투명 창으로 넘실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아찔한 스릴과 함께 즐기는 공연과 전시가 시민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던져 준다.



전망대에서 난간 밖으로 나서면 거칠 것 없는 주변 풍경이 펼쳐진다. 강바람을 직접 맞을 수 있는 계단에 서면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리버뷰 8번가는 여러 방향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데, 천호대교와 테크노마트, 아차산과 천호공원 등 주변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개장 시간은 오전 11시~저녁 9시까지. 문의 02-476-0722.

#### 글 | 이은아

세상의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프리랜서 에디터. 글 쓰고 사진 찍는 걸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 현재 잡지, 사보, 웹진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사진 | 이완기

중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콘 스튜디오(조세현 스튜디오)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현재 라운드테이블 이미지 컴퍼니 실장으로 있다. 주로 광고작업을 많이 하지만, 잡지는 늘 친구같은 생각에 놓을 수 없는 것 같다.

#### 〈그밖에 찾아가 볼만한 곳〉

**잠실대교 리버뷰 봄** \_ 꽃과 함께 한강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이라는 서울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홍보관과 여성 창업 꽃가게인 '여행화가' 2호점이 들어서 있다. 시민 참여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해설사가 한강의 역사와 자연생태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어도(魚道)와 야생화 탐방, 압화 목걸이 만들기 등 공예체험, 아리수정수장 견학 등을 할 수 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11시. 문의 02-415-4952

**한강대교 리오 카페 & 노들 카페** \_ 한강대교 상류와 하류에 각각 위치한 이 곳 전망 카페는 등대를 닮았다. 라일락 향기가 가득하며 도시락, 음료 및 아이스크림, 맥주 등과 함께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기 좋다. 또한 기존의 2.5m인 보도 폭을 5m로 확장,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탁 트인 다리를 마음껏 달릴 수 있게 했다. 전망대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다리 아래 한강 공원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와도 연계되어 있다. 02-796-2003(리오 카페), 02-790-0520(노들 카페)



한강교에 설치된 전망대에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한강 둔치로 바로 내려올 수 있어 편리하다.

# 내가 사랑하는 서울

본 쪽지는 이 시대의  
문화예술인들이  
보고 느끼는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서울을 처음 구경(?)한 것은 고등학교 이학년 때였다. 경희대학교에서 열리는 고교문예 백일장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서울역에 도착해 덕수궁과 세종문화회관 주변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여기가 바로 조선 오백 년 왕도의 서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무척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다닌 직장인 한국일보사 뒤편 수송동에 있었다. 인사동, 가회동, 삼청동, 북촌, 청진동, 광화문이 모두 가까이에 있었다. 그중에도 나는 광화문을 특히 좋아했다. 서울에 대한 첫 기억이 그곳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늘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약속장소로 정하고 그 주변에서 헤어지곤 했다.

그러다 직장을 홍대 근처로 옮기면서 수 년 간 피카소 거리와 신촌을 드나들었다. 물론 젊었을 때의 일이다. 또한 영화나 연극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동숭동 대학로에도 자주 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서울 시민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작년까지 일산 신도시에서 십 수 년을 살았고 한때는

마포 한강변에 작업실을 얻어 지내기도 했지만 주소지는 서울이 아니었다.

작년 여름 정릉으로 이사를 왔다. 마침내 서울 시민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일 년여 서울에 살다보니 아무래도 서울에 대한 느낌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오랜 세월 내게는 서울이 단지 '드나드는 곳'이었으나 이제는 실제적인 삶의 공간으로 변한 것이다.

이사를 오고 나서 주말마다 바람을 쏘일 겸 서울 순례를 시작했다. 지인들이 많은 홍대 근처와 신촌에도 나가보고 물론 집에서 가까운 대학로에도 나갔다. 그런데 뭔가 예전처럼 즐겁거나 편안하지만은 않다. 홍대 주변과 대학로는 주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이므로 언제나 새롭고 세련된 느낌을 주지만 어쩐지 그윽한 안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동안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싶지만, 지나치게 소비적이고 평면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과거와 현재가 입체적으로 공존해야 도시는 우아함과 격조를 띄게 된다고 한다.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세월에 따라 변하되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깊은 존재감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입체적으로 공존해야 도시는 우아함과 격조를 띄게 된다.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세월에 따라 변하되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깊은 존재감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결국 나는 첫사랑을 찾아가듯 광화문 근처로 돌아왔다. 덕수궁, 경복궁, 비원, 삼청동, 북촌, 효자동으로 말이다. ‘그래, 여기가 나의 서울이었지.’ 지난 주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경복궁 근처에 있는 오래 된 김치찌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북촌과 삼청동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그제야 깊은 안도감이 느껴지며 서울 시민이 되었다는 묘한 자긍심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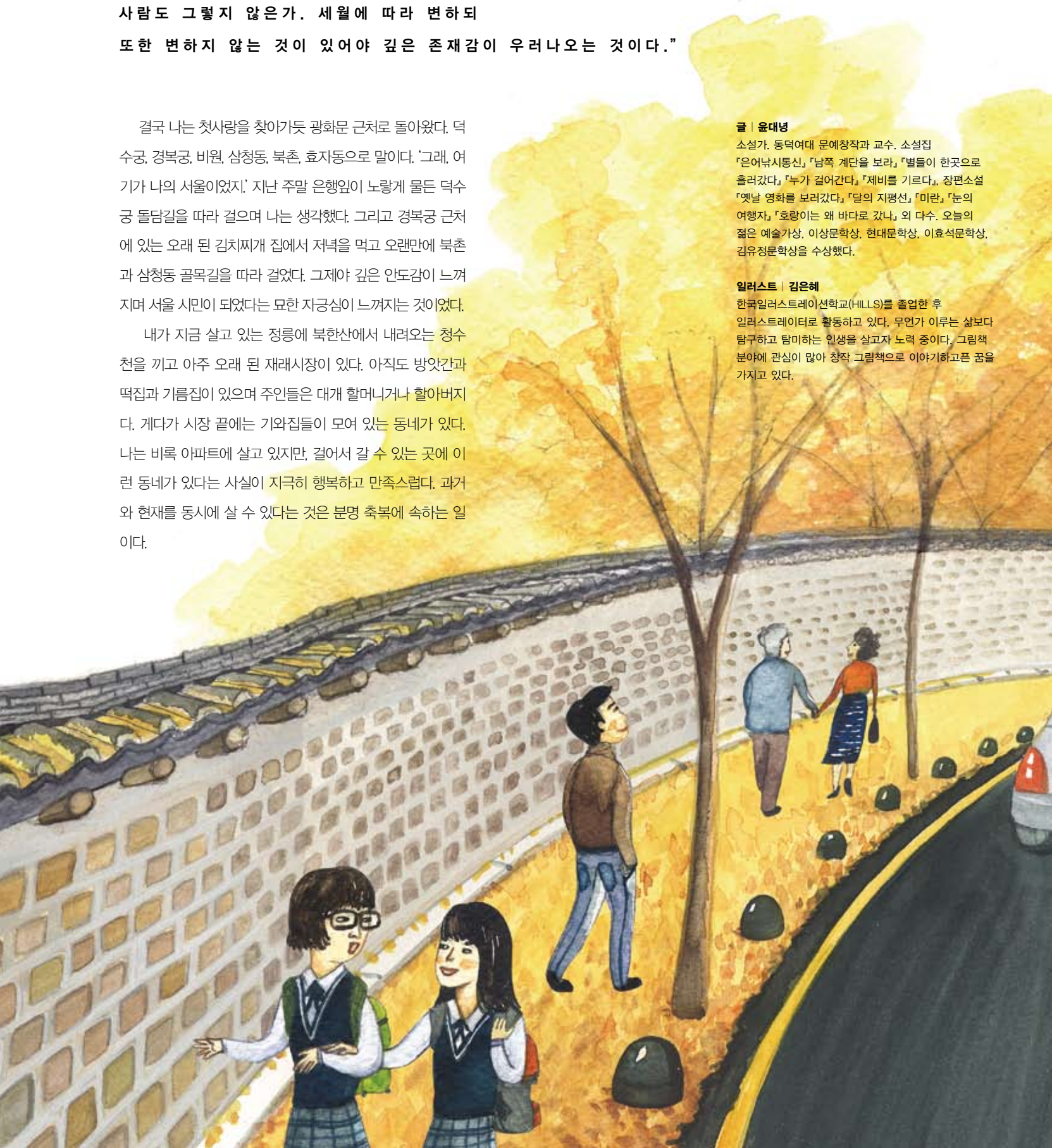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정릉에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청수천을 끼고 아주 오래 된 재래시장이 있다. 아직도 방앗간과 떡집과 기름집이 있으며 주인들은 대개 할머니거나 할아버지다. 게다가 시장 끝에는 기와집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있다. 나는 비록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이런 동네가 있다는 사실이 지극히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에 속하는 일이다.

#### 글 | 윤대녕

소설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소설집 『은어늬시통신』, 『남쪽 계단을 보라』, 『별들이 한곳으로 흘러갔다』, 『누가 걸어간다』, 『제비를 기르다』, 장편소설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 『달의 지평선』, 『미란』, 『눈의 여행자』,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 외 다수.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효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을 수상했다.

#### 일러스트 | 김은혜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HILLS)를 졸업한 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무언가 이루는 삶보다 탐구하고 탐미하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 중이다. 그림책 분야에 관심이 많아 창작 그림책으로 이야기하고픈 꿈을 가지고 있다.





FOCUS INTERVIEW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예술감독 인재진

# 느리게 걷다 보면 언젠간 마주칠 축제의 시간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예술감독 인재진

“재즈로 듣는 음악이 있다.  
재즈로 추는 댄스가 있다.  
재즈로 마시는 카페가 있다.  
그리고 여기,  
10년의 시간을 우러내  
재즈로 노는 섬을 만든 사람도 있다.”



2009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무대

가평에 섬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웠다. 그 섬을 알게 한 또 다른 조합이 ‘재즈’라면, 섬의 이름만큼이나 생경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을 덮을 수 없는 야외행사에서 ‘비’는 최악의 파트너고, 비가 오면 없어졌다가 그치면 나온다는 자라섬, 그곳에서의 축제는 시도 자체가 스틸이다. 비에 가라앉으리라 확신한 이들에게 기막힌 반전을 주고 재즈의 섬을 띄운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의 인재진 예술감독을 만났다.

쏘 안, 작은 무대가 있다. 피아노, 드럼, 베이스, 사람 빼고 소리를 내는 이들이 다 올라가 있다. 이제 그가 들어온다. 이 시간, 저 무대와 이 관객의 잼(Jam)이 재즈처럼 엉켜도 좋겠다 싶다. 핸드드립을 내리는 이는 쏘의 주인이자 ‘자라섬’의 기술감독. 10년 지기 인재진 감독의 등장에 아까부터 걸음이 가볍다. ‘커피를 진하게 내릴까요, 연하게 내릴까요.’ 라는 그의 물음에 인 감독의 대답은 정답을 넘어 일종의 말씀에 가깝다. ‘엔간하게’

“텐마크에 이정식 씨랑 녹음 갔을 때죠, 아마. 세션 중 한 덴마크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할까 물었어요. 그때 이정식 씨도 그랬죠. ‘엔간하게 하지.’ 재즈에 무슨 말을 더하겠어요.”

‘엔간하게’, 그러니까 그에겐 ‘모테라토’

### ‘꼭 참자’에서 ‘안 되면 말고’ 까지

“10년 동안 공연을 천 번 넘게 했죠.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해 이번만 이번만 하다가 얼추 그렇게 되었어요. 흥행이요? 그 중 성공한 건 10번이나 될까. 제가 ‘흥행업계 마이너스의 손’이예요. 뭐 흥행이라고 해 봐야 10만원 남은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 사훈이 ‘꼭 참자’예요. 다들 단련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아, 요즘 하나 더 만들었다. ‘안 되면 말고.’”

1%의 흥행. 숫자를 넘어 당당한 이유가 있다. 이제 그의 이름보다 더욱 유명해진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2004년부터 시작한 축제는 첫 해, 일정의 대부분을 폭우로 마감했음에도 3만여 명의 놀라운 집객을 기록한다. 이후 올해까지 6년, 조사된 경제적 효과만도 300여억 원, 아무도 모르던 ‘자라섬’을 ‘재즈의 섬’으로 그리고 ‘가평군’을 ‘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마이너스의 손’ 역사상 최대의 흥행작이다.





2009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현장

“홍행은 생각도 안했죠. 예전 딸기극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기극장 시절이 살면서 가장 재밌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죠. 온갖 아티스트 다 만나고, 나중에 이런 재미들과 문화적 벨류가 모아지면 대접받는 날도 오겠단, 이 정도 생각했죠. 그게 10년이에요. 생각보다 빠른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 버린 ‘딸기소극장’은 90년대 말,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시도였다. 대학로에 자리한 ‘재즈 전용극장’으로 100석도 안 되는 규모에 에어컨을 틀어도 서로의 살 냄새가 음악과 함께 뿜개지는, 그러나 재즈 아티스트와 마니아들에게는 태반과 같이 소중한 아지트였다. 비단 재즈 뿐만이 아니다. 재즈에서 아방가르드 언저리까지, 인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재즈와 이상한 음악’이 함께 사는, 극장 자체로도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이 이어진 곳이었다. 인터뷰가 이뤄지고 있는 이 공간 또한 그때의 ‘딸기’를 못 잊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이다.

“그때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오래하고 있다고 해야 맞겠죠. 오래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지속하지 못하니 나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하는 것, 제 모토 중의 하나예요. 공연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많이 하는 건 안 해요.”

2009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포스터



## 재즈가 아니더라도 즐거운 축제

그때에 비해서 마니아층이 두터워졌지만, 재즈라는 비주류의 장르로 음악 축제를 만드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엄두 낼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는 지극히 서울스러운 콘텐츠를 짊어지고 가평의 이름 모를 섬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도시 전체의 브랜딩에 이르렀다. 실제로 자라섬에서 만난 관객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피크닉박스 속 와인과 치즈, 그리고 재즈로 휴식하는 연인들.

“재즈 축제에 관한 사람들의 동경,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자라섬이 아니었나 싶어요. 삶의 풍요로운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축제기획자들은 관객을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재즈축제라고 재즈에만 집중할 수는 없죠. 관객의 절반 정도는 재즈보다는 ‘재즈 같은 분위기’를 즐기러 오니, 음악 외에 즐길 수 있는 것을 많이 배려해야 합니다. 물론, 재즈마니아를 고려해서 기본에 충실한, 진짜 제대로 된 콘텐츠는 필수구요.”

재즈로 음반, 전용극장 그리고 축제까지 만든 인 감독은 거리낌 없이 본인은 재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소리가 마치 사춘기 시절, 좋은 내색을 시비로 푸는 소년 같다. 아니라고 하지만 더욱

주위를 맴돌면서, 누구보다 가장 충직한 연인처럼 배가 고픈지, 화가 난 것은 아닌지 이리보고 저리 보면서 연구하다보니, 재즈 그 자체를 넘어 재즈를 맛있게 먹는 법까지 섭렵한 느낌이다. 재즈와 상관없는 관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 물속에서 바다를 헤아릴 수 없듯, 음악을 위해 재즈를 벗어난 도인의 느낌마저 든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들었다고 꼭 제 것은 아니에요. 기획자의 오너십(Ownership)은 제작 초기에는 열정으로야 필요하지만, 세상에 내 놓고 난 뒤에도 그 작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일종의 물과 같이 흘러가야 해요. 물론 애정이 있죠. 그러나 떠날 때는 미련 없이.”

## 내가 재미있으면 남도 재미있다

느릿한 말투에서 먼 산을 보는 시선까지, 무대 뒤에서 재즈를 지켜온 10년의 세월 동안 사는 방식도 재즈를 닮아온 것일까. 기획자에게 ‘예술’에의 동경은 숨겨진 사랑처럼 참 애틋하다. 직접 무대에 설 수도, 속 시원하게 원하는 바를 캔버스에 그려낼 수도 없는 사이, 예술이 기획자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시간이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티스트야 천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획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시간’이 약이에요.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쌓여야 하죠. 예전에는 마음 한편에서 ‘빨리 빨리’를 외칠 때도 있었지만, 느리게 일하는 것이 실제로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을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거죠. 내가 즐겁지 않으면 즐거운 축제가 나올 수 없어요.”

축제가 없는 자라섬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운영된다. 동네 꼬마들을 모아 청계천이나 미술관 등 서울구경을 가기도 하고, 재즈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 강좌가 이어진다. 오래된 읍사무소 건물이 재즈센터가 되고, MT 손님을 받기 바빴던 주민들은 이제 가평의 주인노릇을 제대로 즐기기 시작했으며, 군청 스피커에서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다. 지역이 외질수록 예술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는 어린 시절 우연히 접한 재즈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집 앞 동산이 있었어요. 해질녘이었는데 어디선가 나팔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밴드 동아리 아이가 색소폰으로 부는 유행가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시작이죠.”

그를 키운 팔 할의 재즈,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도 밟지 않던 척박한 섬을 재즈로 다져냈고, 아시아에서 손꼽는 몇 안 되는 재즈 프로듀서로 인정받게 하였다. 무엇이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가 재미있으면 남도 재미있다’고 말하는 이 느낌보 감독이 그리하여 축제의 시간에 이르렀노니.



인터뷰 | 임미혜(서울문화재단 축제제작팀장)

글 | 오승희(서울문화재단 축제제작팀)

사진 | 손승현

한국인을 비롯하여 역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 글, 비디오, 영상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2 광주비엔날레, 뉴욕의 데니스 비브로 파인아트, 최근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에세이로 기록한 <원은 부서지지 않는다>가 있다.



# 북한의 실상과 남한의 이면을 바라보다

탈북화가 선무

평생 그림을 그리며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망.  
북한에서는 가능했던 일이 남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신 평생 무엇이든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그림을 봐주는 사람도, 읽어내는 의미도 훨씬 다양해 졌다.



KT&G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열린 선무 개인전 전경

우리는 북한의 실상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 서구 어느 나라보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북한이 통제된 사회인 것도 원인이지만 우리도 이념에 묶여 있어 자유롭게 알기 때문이다. 전후 오랜 시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남과 북,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낯선 곳이다. 그림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탈북작가 선무를 전시장에서 만났다. 남과 북의 차이를 누구보다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선무 작가는 자신이 보고 느꼈던 ‘한반도의 두 모습’을 KT&G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10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 북한에서 그림을 그리며 꾸던 꿈

선무는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사범대학 미술학교에 진학해 체제선전 미술을 3년간 공부하던 중 탈북 해 중국, 라오스, 태국 등을 떠돌다 2002년 남한에 오게 되었다. 그 후 2003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홍익대학교 미대 회화과에 입학했고, 2009년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우리는 탈북 작가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 선무 작가에게 탈북화가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화실에 가면 되지만 북한은 학교 외에는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 안에 있는 미술반에 넣어줍니다. 거기서 소질이 보이면 미술로 상급학교를 진학합니다. 그런데 지역 할당제라는 것이 있어 군에서 선출된 사람만 진학할 수 있지요.”

가끔 북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절제 있는 예술교육과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사실적인 묘사에 감탄을 넘어 낯선 기분까지 들 때가 많다. 아무래도 북한은 그림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안목이 남한과 다르지 않을까 싶었다.

“여기서는 창의력이라고 말하지만 북한에서는 개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북한은 사실적인 그림을 주로 그리지만, 그 안에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북한의 미술학교 역시 다른 학생들과 같이 60%는 주체사상, 40%는 실기입니다. 실기는 밖에 나가서 많이 그림니다. 여기처럼 물감이 흔하지 않아 수채화나 연필로 주로 그림을 그림니다. 북한에서 유화 물감은 학생 신분으로서는 구하기 힘든 물감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북한 미술학교 졸업생들은 국가에 소속되어 그림을 그리는 일만 한다. 북한은 평생 예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훈 예술가라는 칭호를 부여해 주는데, 졸업 후 모두 공훈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공훈 예술가가 되는 것은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의 꿈이다. 공훈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주체사상을 개성 있게 표현해 내야 한다고 한다. 인물의 내면이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사상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무 작가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고 싶어 탈북 했을까, 그의 탈북 동기가 궁금해졌다.

“고향에서 누구 탈북 했다는 소리를 가장 싫어했을 정도로 탈북 할 생각은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3학년 방학 때 생활이 어려워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원성까지 나왔습니다. 황해도에서 원성까지 15일, 중국의 친척을 20여일 기다렸지만 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까지 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 강을 한번 건너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 갔다 와도 상관없겠지 하는 생각이었지요. 3년 동안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떠돌다가 2002년도에 왔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화가 선무





North Korea의 풍경, oil on canvas, 91x72cm, 2009



조선의 행복, oil on canvas, 160x130cm, 2009

### 남한에서 주어진 가혹한 숙제

선무 작가는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오면 북한에서처럼 그림을 그려 먹고 살기를 원했다고 한다. 처음 공주에 살게 되었을 때 담당 형사한테 그림을 그리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는데 남한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형사는 대학 교수와의 만남을 주선해주었다. 하지만 태국에서 들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림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말만 다시 듣게 된다. 그에게 그림은 가족을 보고 싶은 것만큼이나 절박한 삶이었을까.

“북한과 같이 그림으로 먹고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힘들다고 했지만 그림밖에 아는 것이 없어 공주 주변의 개인 미술관을 찾아가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미술관에 살면서 그림을 배우려고 했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월급 없이 일만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홍대에 가겠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탈북자로서 남한에게 오기까지 그 힘든 여정도 이겨냈는데 이것 하나를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홍대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게 된다.

“오히려 대학에 입학한 후가 힘들었습니다. 대학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유인 줄은 모르겠는데 너무 무질서하고 무정부주의 같았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습법의 차이도 문제였습니다. 추상화를 그리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으로 그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라고 하더군요. 여기 방식으로 그림도 그려보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태는 비슷하게 그릴 수 있지만 마음을 담지 못하는 그림은 제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학년이 돼서야 이러한 고민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강한 미디어 작가 강의의 교수님께서 그것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의에서 그것을 깨우쳐준 것입니다.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셈이죠.”

### 남과 북, 이질적이지만 결국 하나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도 선무 작가는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 북에 있는 부모에게 당신 자식이 남한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의 그림을 보면 북한 체제에 대한 풍자가 묻어난다.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도 그런 맥락에서 읽혀진다.



Korea의 모습(북) oil on canvas, 193x260cm, 2009



Korea의 모습(남) oil on canvas, 193x260cm, 2009



나 어때!!, oil on canvas, 72x60cm, 2009



들어라 1, oil on canvas, 116x91cm, 2009

“풍자라는 의미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생각대로 그림을 그릴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풍자했다고 하더군요. 그저 어린 시절부터 본 북한 사회를 솔직하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곳 상황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니까 이야기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곧 북한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래왔으니까요. 오로지 충성만 생각했는데 북한을 떠나보니 북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함부로 그릴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분노를 초상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2008년 부산 전시에서는 그가 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전시 금지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전시기획자가 용공논쟁에 휘말리기 싫어서라고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럴수록 선무 작가는 북한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밖으로 나가 전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북한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걱정돼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종종 걸림돌이 되곤 한다. 처음에는 북한 사람들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전시는 한반도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등장한다.

“남과 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단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연하는 어린이와 남한의 아이돌 스타를 통해 남과 북의 현실을 그려 보았습니다. 북한의 공연하는 아이들에게 노래는 북한을 찬양하는 도구였다면 여기서 노래는 스스로 선택한 행복의 도구입니다. 어린이들의 옷차림을 통해 억압된 의식을, 반대로 남쪽의 아이들이 자유분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인물의 감정보다는 사회의 분위기를 그린 것입니다.”

전시장 한 구석에 걸려 있는 자유로운 필치의 자화상은 선무 작가의 시선을 움아매었던 한반도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욕망의 시작처럼 보였다. 인공기를 벗고 있는 여인처럼 그는 북한을 벗어던지고 싶지만 살아왔던 나날이 길었던 만큼 그것을 완벽하게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 글 | 박희숙

동덕여자대학교 예술학부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 석사, 강릉대학교 산업공예과에 출강했다. 9차례에 걸쳐 개인전을 연 서양화가로 월간조선 '인물탐구',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영화이야기' 등을 연재했다. 저서로 <그림은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클림트> <영화 속의 삶과 욕망> <나는 그사람이 아프다>가 있다.

#### 사진제공 | KT&G 상상마당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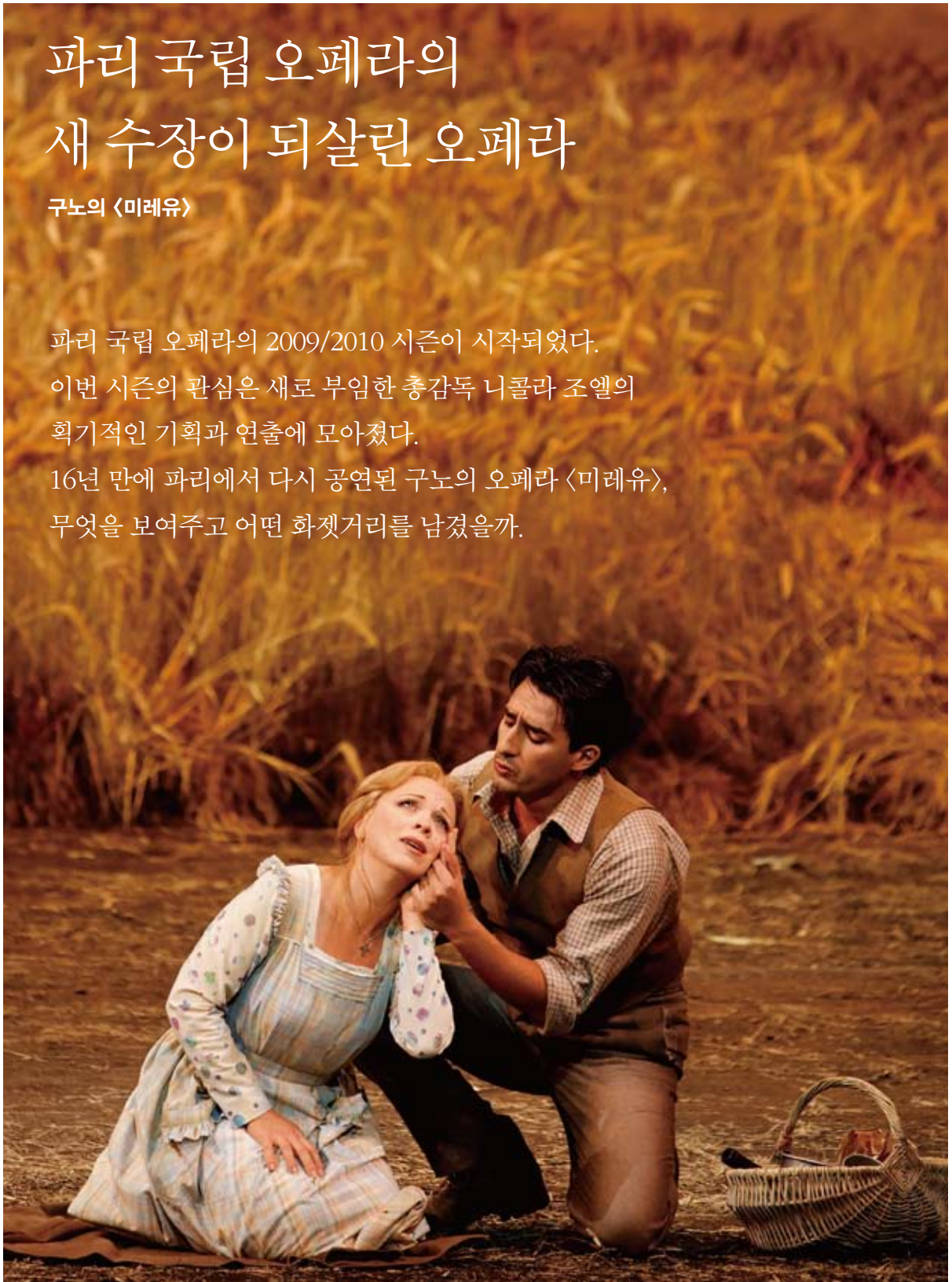


OPEN REPORT  
서울 너머로  
파리 국립 오페라  
구노의 <미레유>

# 파리 국립 오페라의 새 수장이 되살린 오페라

구노의 <미레유>

파리 국립 오페라의 2009/2010 시즌이 시작되었다.  
이번 시즌의 관심은 새로 부임한 총감독 니콜라 조엘의  
획기적인 기획과 연출에 모아졌다.  
16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공연된 구노의 오페라 <미레유>,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화젯거리를 남겼을까.



1막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미레유와 뱅상

## 파리 국립 오페라의 신임 총감독이 쓰아올린 시즌 개막작

지난 9월 14일, 파리 국립 오페라의 2009/2010 시즌이 개막했다. 이번 시즌부터 지난 5년간의 제라르 모르티에 시대를 뒤로 하고 파리 국립 오페라의 총감독으로 니콜라 조엘이 부임했다. 올해 56세의 조엘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툴루즈 국립 카피톨 극장의 총감독을 역임하였고, 극장 행정가로서 뿐 아니라, 오페라 연출가로도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다. 툴루즈에서의 19년 동안 조엘은 툴루즈 국립 카피톨 극장을 프랑스의 특급 오페라 극장으로 변모시킨 공으로 호평을 얻었다. 꾸준한 호평을 이끌어내기까지 그는 덜 알려졌지만 내실 있는 가수들을 툴루즈의 무대로 불러왔고, 고전으로 회자되는 많은 오페라 무대를 직접 연출했다.

프랑스 출신인 그가 벨기에 출신인 모르티에 후임으로 파리 국립 오페라의 총감독으로 입성한 것은 매우 납득할 만한 인사였다. 모르티에는 극장 행정가의 전범적 인물이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총감독을 역임하고 2004년 파리 국립 오페라 총감독에 부임한 모르티에 집권 5년 동안 파리 국립 오페라는 런던 로열 오페라와 베를린 국립 오페라를 앞지르는 호화로움을 과시했다. 오직 명연출가와 명가수, 명지휘자들만이 파리 국립 오페라 무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같은 이름값에 상응하지 못한 졸작들이 많았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호화 캐스팅이란 명연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티에의 집권기 5년은 증명했다. 그에 비해 극장 행정가로서 뿐 아니라, 오페라 연출가로서도 명성을 구축한 조엘 체제의 파리 국립 오페라는 좀 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엘이 취임작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회에 걸쳐 선보인 구노의 오페라 <미레유>가 그 같은 방향키를 알려주었다.

## 구노의 숨은 진주 <미레유>, 파리에 올린다

샤를 구노(1818-1893)의 1864년작 오페라 <미레유>는 작곡가의 또 다른 오페라인 <파우스트(1859)>와 <로메오와 줄리

에트(1867)>보다는 덜 알려진 작품이다. 그러나 일찍이 프랑스의 음악평론가 제라르 콩테가 일갈했듯이, 구노의 <파우스트>는 그보다 13년 전에 작곡된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겁별(1846)>보다 고유색이 덜하고, <로메오와 줄리에트> 또한 그보다 28년 전에 작곡된 베를리오즈의 동명 작품(1839)에 비해 약센트가 약한 감이 짙다. 콩테의 말대로 구노의 두 대표작이 베를리오즈에 뒤처지는 아류작이라면, <미레유>야말로 구노의 고유함이 살아 숨 쉬는 독자적인 작품이 아닌가 싶다.

1863년 연초, 프레데릭 미스트랄의 연애서사시 <미레유>를 접한 구노는 크게 감명을 받은 나머지 이를 제재로 오페라 작곡을 꾀한다. 미스트랄의 원작을 바탕으로 미셸 카레에게 오페라 대본을 위촉한 구노는 카레의 주선으로 미스트랄을 만난다. 미스트랄의 조력에 힘입어 원전에 충실한 오페라 대본은 빛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864년 초연 당시 미레유 역을 부른 소프라노 마리 카롤린 미올랑 카르발요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미레유>는 심각한 훼손을 당한다. 1864년 테아트르 리리크에서의 초연 당시, 극장장의 아내이기도 했던 카르발요는 구노에게 자신의 기교를 과시할 수 있는 패시지를 적잖이 요구했다. 그 결과, 원작에 대한 카르발요의 자의적인 난도질이 수없이 행해졌다. 이 같은 원전에 대한 훼손이 바로잡힌 것은 구노 사후 근 반세기가 흐른 1939년에 이르러서였다. 구노의 제자들인 레이날도 앙과 기 페랑, 앙리 뷔세가 공동으로 스승의 원전 악보를 복원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후 이 작품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확립되었고, <파우스트>와 <로메오와 줄리에트>에 이어 적잖이 공연되는 구노의 '숨은 진주'로 평가받았다. 올 시즌 파리 국립 오페라가 무대에 올리기 전까지 <미레유>는 1993년 오페라 코미크에서의 파리 공연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공연은 그 후 16년 만의 파리 공연이었다. 파리 국립 오페라의 두 보금자리 중 팔레 가르니에에서 공연된 이번 <미레유>는 니콜라 조엘 연출로 마르크 밍코우스키 지휘, 루브르-그르노블의 음악가들이 관현악을 담당하고, 알바니아 출신의 세계적 소프라노 인바 몰라가 주역인 미레유를 부르는 등 볼거리가 풍성했다.



OPEN REPORT

서울 너머로

파리 국립 오페라  
구노의 <미레유>

**프로방스 아를 지방의 연에서사시, 오페라 <미레유>**

막이 열리면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 아를의 시골 아가씨들이 딸기를 수확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예고 없이 등장한 마법사 타벤은 젊은 여인들이란 언젠가는 크나큰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 법이라고 그림자를 드리운다. 마을 아가씨 중 클레망스는 언젠가 백마 탄 왕자에 의해 시골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찾으리라 너스레를 떠다. 그에 반해 아를의 부유한 농장주의 딸 미레유는 한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 고백을 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녀의 동료들은 최근 미레유가 가난한 바구니 장사꾼의 아들인 뱅상과 열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욕심 없는 말에 놀라지 않는다. 마법사 타벤은 미레유에게 부와 가난은 함께할 수 없다고 경고하지만, 그녀가 곤경에 처하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윽고 뱅상이 등장해 미레유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미레유를 향한 연모의 심정을 늘어놓는다. 헤어지기 전 두 연인은 만약 둘 중 한 명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하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남은 한 명이 생트-마리로 순례를 떠나리라고 언약한다.(이상 1막)

마을 사람들이 아를의 원형 경기장 앞에 모여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다. 뱅상과 미레유는 마을 사람들의 강권에 못 이겨 '마갈리의 노래'를 부른다. 이 때 타벤이 미레유에게 투우사 우리아는 그녀에게 청혼하러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뱅상과 열애에 빠진 미레유는 투우사의 청혼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아는 미레유의 아버지인 라몽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 때 뱅상의 아버지인 앙브루아즈가



2막에서 뱅상 일가에게 자신의 딸 미레유와의 혼담을 없던 일로 공표하는 라몽

등장해서 자신의 아들이 지체 높은 가문의 아가씨에게 청혼을 받았다고 거드름을 피운다. 이에 분노한 라몽은 뱅상이 자신의 딸을 잊어야 하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당황한 미레유는 아버지에게 뱅상과 자신은 헤어질 수 없다고 항변한다. 불같이 화가 난 라몽은 뱅상과 앙브루아즈를 모욕하고 그들이 다시 미레유를 볼 수 없으리라고 엄포를 놓는다.(이상 2막)



3막의 론 강에서 저승사자에게  
익사당하는 우리아

마법사 타벤이 살고 있는 지옥 계곡 근처에 모인 우리아의 친구들은 우리아에게 미레유를 잊으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로 인해 자신을 모욕한 뱅상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한다. 이윽고 뱅상이 계곡에 당도하고, 우리아는 뱅상을 갈퀴로 내

리친다. 뱅상의 신음소리를 들은 타벤은 우리아를 저주한다. 보름달이 환한 론 강가, 우리아는 뱅상이 죽었다고 믿고 후회한다. 그는 건너편 강가로 건너가기 위해 뱃사공을 부른다. 그러자 론 강의 심연에서 유령들이 출몰하고 어느덧 자정의 종소리가 울린다. 뱃사공이 당도하자 우리아는 배에 올라탄다. 그 순간 강물이 요동치면서 저승사자 뱃사공은 우리아에게 뱅상을 상기시키고, 우리아는 익사한다.(이상 3막)

성 요한 축일을 맞아 라몽의 농장 안뜰에서 추수를 마친 농부들이 왁자지껄 소란하다. 농부들이 떠나가고 라몽은 불행한 자신의 딸을 보며 한탄한다. 미레유가 과거 뱅상과 '마갈리의 노래'를 부른 행복했던 한 때를 추억하는 동안, 뱅상의 여동생인 뱅세네트가 등장해서 오빠의 사고 소식을 전한다. 미레유는 1막에서 뱅상과 한 언약대로 크로 사막을 가로질러 생트-마리까지 위험한 순례를 감행하기로 작정한다. 그녀는 봉헌물로 보석들을 챙기고



5막의 생트-마리 장면에서 눈을 감기 전 아버지 라몽과 뱃상.  
뱃세넬트에게 작별을 고하는 미레유

두 여자는 뱃상의 회복을 기도한다. 건조한 자갈밭의 연속인 크로사막 한복판에서 지칠 대로 지친 미레유는 호숫가에 있는 마을의 환영을 본다. 환영이 사라지는 순간 미레유는 절망으로 괴로워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목동의 목가에 힘입어 발길을 재촉한다.(이상 4막)

마침내 두 여인은 간신히 생-마리의 성당에 도착한다. 그러는 사이 타벤의 도움으로 회복된 뱃상이 헐레벌떡 들어서며 미레유를 찾는다. 그러나 그녀의 기력은 소진되어 착란 상태에 있다. 미레유는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하늘의 환영을 본다. 딸을 뱃상과 갈라놓은 라몽은 자책한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 속에 미레유의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는 천상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미레유는 눈을 감는다.(이상 5막)

### 명곡의 향연, 프리마돈나의 탄생

남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아를을 배경으로 부유한 시골 농장 아가씨와 가난한 바구니 장사꾼의 사랑을 그린 오페라 <미레유>는 제재부터가 소박한 작품이다. 구노와 동시대의 비제가 작곡한 <아를의 여인>이나 <카르멘>을 연상시킬 정도로 이 오페라는 19세기 프랑스의 평화로운 전원풍경 속에 감추어진 비극을 조명하고 있다. 3시간의 공연 시간을 잊게 할 만큼 오페라 <미레유> 속에는 적지 않은 명곡들이 숨어 있다. 대표적으로 2막이 시작될 지 얼마 안 되어 미레유와 뱃상이 부르는 '마갈리의 노래'와 2막 말미에서 우리아가 부르는 쿠플레가 절편이다. 3막의 론

강에서 유령들이 출몰하는 장면의 음악과 4막의 크로사막에서 지친 미레유가 환영을 보는 장면의 음악 또한 신비롭기 이를 데 없다.

이번 조엘의 연출 무대에서는 무엇보다 미레유 역으로 분한 소프라노 인바 물라의 열연이 두드러졌다. 모르티에 시절에는 한 번도 파리 국립 오페라에 초청받지 못했던 물라는 조엘의 입성과 더불어 새롭게 선을 뿜 대표적 성악가다. 1993년 플라시도 도밍고 성악 콩쿠르에서의 그랑프리 수상을 기점으로 명성을 쌓아온 46세의 저명한 알바니아 소프라노는 혼신의 미레유를 열연했다. 그녀의 푸진 성음에 비한다면 연기력은 조금 미흡했지만 지중해적 전원 속에 감추어진 비극의 속살을 드러내기에 물라의 역량은 모자람이 없었다. 그에 비한다면 그녀의 상대역인 뱃상으로 분한 미국 테너 찰스 카스트로노보의 빈약한 음성과 연기력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마법사 타벤을 부른 메조소프라노 실비 브뤼네의 고아한 저역은 매력적이었다. 그 외에도 우리아의 바리톤 프랑크 페라리와 라몽의 베이스 알랭 베르네의 단단한 저음은 공연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카스트로노보를 제외하면 모두 프랑스 출신 성악가들로 주요 배역이 채워졌다. 이탈리아의 노장 에지오 프리게리오가 형상화한 아를의 밀밭 무대는 프로방스 지방의 평화로운 전원풍경을 무리 없이 구현했지만 조금 단조로웠다. 마르크 밍크우스키 지휘 루브르-그르노블 음악가들의 관현악은 평소의 다이내믹함을 자제하고 작품의 정적인 라인에 최대한 동화하고자 한 태가 역력했다. 몇 가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조엘이 이끄는 파리 국립 오페라 시대에 청신호를 밝힌 명 무대였다.

#### 글 | 김승열

고전음악 칼럼니스트, 2004년 LG아트센터 주최 연극평론 콘테스트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파리 7대학 박사과정에 있다.

사진제공 | Opéra national de Paris / Agathe Poupeney



## 기억속의 맛을 찾아서

인간의 혀는 얼마나 섬세하고 부지런한가. 어리고 부드러운 세 치, 그것이 다 여물기도 전에 맛을 느끼고 저장해 놓았다. 향긋한 오이 냄새와 함께. 오랜 시간 기억의 창고에 머무르다가 어머니를 만난 후 맛보았던 그 새콤한 국물은 그리움이었을까, 눈물이었을까.

우유, 땅콩버터, 젤리, 쿠키, 사과.... 초등학교 시절 미국인 어머니께서 점심 도시락으로 싸 주신 것들이다. 처음에는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익숙하지 않아 구역질이 나곤 했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을 먹으면 복통, 알레르기, 충치 등으로 고생하곤 하는데 그 시절에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미국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억지로 먹었다.

나는 대구에서 태어나 5년간 한국에서 살았고, 그 후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 한 가족에게 입양되었다. 돌이켜 보면, 미국으로 오기 전 고아원에서 20여 명의 아이들과 커다란 방에 모여 함께 잠을 잤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진다.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었다. 델라웨어의 카페테리아에서는 달콤한 땅콩 페이스트와 딸기잼을 바른 하얗고 부드러운 빵이 나오는데, 이곳에 오기 전 내 입맛은 매운 김치와 참기름 향이 나는 짭짤한 야채, 뜨끈한 국과 찌개 그리고 생선구이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 '한국인'으로 바뀔까봐 일부러 멀리 했다. 때문에 비슷한 맛이 나는 미국의 음식들을 탐닉했다. 카탈리나 드레싱을 얹은 샐러드만 있다면 몇 접시라도 비웠을 것이다. 그 드레싱은 약간 맵고 시큼 짭짤한 맛이 났다. 멕시코 살사를 한번 맛보고선 금세 가장 선호하는 양념이 되었고, 생선 튀김, 마카로니, 치즈 등 가장 싫어하는 요리 위에 쏟아 부었다. 타바스코 소스는 모든 음식에 잘 어울렸는데, 특히 피자에 제격이었다. 사워 크라우트(독일식 김치)에도 타바스코를 뿌렸는데, 그 맛이 마치 김치의 먼 친척인 것처럼 느껴졌다. 때때로 부모님들은 녹색의 식초물만 남아 있는 커다란 피클 병과 잔내 나는 내 손을 발견하고 놀라곤 하셨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잃어버린 맛과 정체성을 찾고 있었고, 그것이 내가 한국에 돌아온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내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정체모를 맛을 늘 그리워했다. 다섯 때 나는 서울에 있는 한 고아원에서 입양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큰 고아원이었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커다란 집과 털이 부송부송한 개가 있는 인자한 미소의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고아원에 서양인들이 도착하자, 우리는 모두 사진에 찍히기 위해 최대한 귀엽고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그 사진만이 그곳을 나가 좋은 곳으로 입양될 열쇠라고 믿었다. 어느 여름 날 나는 식당에서 오이와 미역이 들어 있는 커다란 국그릇을 받아 들고 옆지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향하고 있었다. 흔들리는 국물을 쳐다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 동안 몇 명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내 옆을 달려 지나갔다. 그제서야 나는 국물에 반사된 번쩍이는 플래시 불빛을 보게 되었다.

고개를 들자 키가 큰 금발의 여성이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옆에서 있던 나는 순간 머리에 떠오른 행동을 본능적으로 했다. 활짝 웃으며 그녀를 향해 국그릇을 들어 올린 것이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나를 쳐다보더니 카메라를 내게 돌려 사진을 찍었다. 그리곤 카메라를 목에 걸고 국그릇을 받아 든 후 한 모금 마셨다.

나는 그 국물의 향을 잊지 못한다. 바다의 짭짤과 오이의 신선한 햇빛이 담긴 그 맛을. 한국에 돌아오고 친어머니와 재회한 날, 미국에서는 맛 볼 수 없었던 그 맛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내가 찾던 그 맛은 바로 오이냉채였고, 어머니는 집에 와 계신 동안 오이냉채를 만들어 주셨다. 내가 찾던 맛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늘 오이냉채를 먹었고, 때때로 그것을 달라고 울며 때를 썼다고 한다. 흠... 국물 때문에 울기까지 했더니 심한 것 같긴 하지만, 평생 그 맛을 잊지 못했을 정도였으니까... 내가 서울에 돌아온 건 분명, 그 이유였다.

# The Search for a Taste

Milk, peanut butter and jelly, cookies, and an apple were what my American mother packed me for lunch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At first, this kind of lunch wasn't what I was accustomed to and often made me sick. Now even though my body rejected these foods - stomachaches, allergies, cavities- I forced myself to eat them because I truly believed by eating these foods, I would become American.

I was born in Daegu, Korea and I lived in Korea for the first 5 years of my life. Then a family in Delaware, USA, adopted me. Looking back, it's so strange that before my life in America, I was in an orphanage sleeping in a large room with 20 other children. It's almost like living in a parallel universe because here I was in a cafeteria holding a white bread sandwich. Before arriving in Delaware, my taste buds were accustomed to pungent kimchi, salted vegetables flavored with sesame oil, scalding hot soups and stews, and broiled fish.

In America, I avoided Korean food because I feared it would turn me "Korean." So I ate foods that had an equivalent taste in America. I would eat bowl after bowl of salad topped with Catalina dressing because the dressing had a tart, slightly spicy, salty taste. Mexican salsa quickly became my condiment of choice and I would pour this over the most unlikely of dishes, including fish sticks and macaroni and cheese. Drops of Tabasco sauce would go over everything-especially pizza. I even put Tabasco on sauerkraut for it seemed distantly related to Kimchi. And more than once, my mother and father would often find large jars of pickles with only green vinegar inside and that my hands would have a briny, dill scent.

Throughout my life I was looking for a missing flavor and I this was one reason why I returned to Korea. There was one memory that was embedded in my mind and I sought that taste. When I was 5 years old, I was awaiting adoption in a Seoul orphanage. The orphanage was huge and there were hundreds of kids living there and I was hoping to be adopted by a smiling American couple with a big house and fluffy dog just like everyone else. Whenever a Westerner came into the orphanage, we would all try to look as cute and happy as possible in order to have a picture taken. We believed this picture was our key out.

One summer day, I was in the cafeteria and I got a big bowl of cucumber seaweed soup and I was gingerly trying to make it over to my table without spilling the contents of the bowl all over the floor. While I was slowly walking over- my eyes focused on the shifting liquid in the bowl- a number of kids ran past me. They were all screaming. Then I saw a flash of light bounce off the soup in my bowl.

I looked up to find a tall, blond haired woman taking picture of the all the kids. Since I was right there, I did the only thing I could think of. I smiled and held up my bowl of soup. She paused; I saw her look my way. She then aimed the camera at me and snapped my picture. Then she lifted my bowl of soup, and took a sip.

Throughout my life, I have searched for the flavor of that soup- salty with the taste of the sea and the green, sunshine taste of cucumber. I rediscovered this taste when I was reunited with my mother. The taste I was looking for was chilled cucumber seaweed soup (Oi Naengchae). She must have known that this was the taste I was searching for. She told me I would eat it all the time as a young boy and I would often cry for it. Hmmm ... crying over the taste of soup- that seems a bit extreme. But so does searching your entire life for a particular taste. I knew I returned to Seoul for a reason.



## 글 | 대니얼 그레이

작가이자 O'ngo Food Communications의 음식 전문가다.  
유명한 음식 블로그([www.seouleats.com](http://www.seouleats.com))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 Daniel Gray

is a writer and food consultant with O'ngo Food Communications. He also runs the popular food blog: [www.seouleats.com](http://www.seouleats.com)

OPEN REPORT  
서울 속으로  
제1회 해외 입양인  
종합예술제

본 쪽지는 문화예술활동의  
대중화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다양성의 축제를 만들어내다

## 제1회 해외 입양인 종합예술제

조금 다른 성장배경을 가졌을 뿐이다.  
한때는 상처와 혼란이었던 그것으로, 오늘은 축제를 벌인다.  
나와 너의 다름이 더 큰 공감을 만들어 냈다.



제1회 해외 입양인 종합예술제 참여예술가들



예술은 예술가가 지닌 성장배경, 문화적 배경, 각자 다른 표현 방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한자리로 모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예술을 통한 소통의 경험은 삶의 값진 경험 중 하나다. 예술을 매개로 소통을 할 때 우리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10월 30일에서 11월 1일까지 (사)해외입양인연대(Global Overseas Adoptee's Link)에서 개최한 '제1회 해외 입양인 종합예술제'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예술제는 'Boarding Bridges(탑승구)'라는 주제로, 해외 입양인 예술가와 한국 예술가들이 '한국인'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 예술을 통해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예술감독을 맡은 드니 성호 얀센스(Denis Sung-Ho Janssenes)는 "이번 예술제가 한국 예술계와 사회에 다양성을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국인 예술가들을 하나의 가치로 묶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예술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동시에 각자의 정체성에 다른 시각의 문제 제기를 해보고, 창조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된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의였다.

예술제에 참여한 제인 진 카이즌(Jane jin Kaigen, 덴마크 입양인, 비디오 아티스트)은 입양인이라는 정체성이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현대 예술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범세계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초월해서 존재하는가에서 의미를 찾죠. 입양인 예술가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성장했지만 아직도 한국과의 연대를 갖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이런 특이성은 언어, 문화, 사회, 민족, 예술 장르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피상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국



제인 진 카이즌의 비디오작품

경을 초월한 정체성과 축적된 기억들을 통해서 더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과정을 단순히 우리가 겪은 고통이나 희생뿐만 아니라 축제의 형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예술제에서 그는 '한국 전쟁 기념(Korea War Memorial)'이라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작품을 한국인 예술가(심현정, 작곡가)와의 공동 작업의 결과물로 전시했다.

현대 무용을 공연한 레나 순희 메이어코드(Lena Soon-hee Meierkord, 독일 입양인 현대 무용가)는 한국 특유의 정서인 '한'을 주제로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을 오랜 식민지 역사와 전쟁 그리고 분단이 만들어 낸 고통, 고독, 억압 등이 만들어낸 눌린 정서라고 표현했다. 이 주제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와 같은 현대 영화작품에서 극단의 폭력과 공격성으로 표현되기도 했으며, 동시에 '한'이라는 정서는 내면을 향한 밀도 있는 고요함과 과격하고 역동적인 폭발이 공존하는 특이한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인 예술가들과 작업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질문에 당연한 문화적 차이의 예를 들면서도 대부분의 한국 작가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 등을 했기 때문에 예술작업을 하는 데 국적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1



2



3

- 1, 2 해외 입양인 종합예술제 중  
〈입양인의 시각〉
- 3 해외 입양인 종합예술제  
예술감독 드니 성호 안센스
- 4 조나단 하프너의 색소폰연주



10월 30일 오프닝 색소폰 연주는 Jonathon Haffner(미국 입양인 2세)가 맡았으며 Jette Hye Jin Mortensen(덴마크 입양인, 비디오 아트), Jane Jin Kaisen(덴마크 입양인, 비디오 아트), Hanna Alvgren(스웨덴 입양인, 설치미술), 안윤모, 권남희 씨를 포함한 예술가들의 설치 미술 전시가 있었다. 31일에는 Maja Lee Langvad(덴마크 입양인)의 낭독회와 김화림(한국인)의 바이올린 연주, Lena Soon-hee Meierkord(독일 입양인)의 현대 무용 공연 그리고 오프닝 공연을 장식한 Jonathon Haffner의 연주가 다시 한 번 있었다. 11월 1일에는 예술감독인 드니 성호 안센의 기타 연주와 오케스트라 협연이 있었고 오케스트라는 성기선(이화여대 음대 교수)의 지휘 아래 소리얼 오케스트라가 맡았다.

김대원 사무총장은 이번 예술제의 목표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암울한 상처로만 여겨던 입양인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해외 입양인들은 대개 성장과정에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혼란을 겪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이겨내고 자신들을 키워준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사)해외입양인연대는 이들 중 특히 예술가들에게 주목하고, 해외 입양인이라는 독특한 배경이 그들의 예술 작품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점과 그들이 국내외에서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이러한 예술제를 열게 되었다.

이번 예술제를 개최한 (사)해외입양인연대는 1998년 한국에 체류 중인 유럽, 미국 등 해외 입양인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해외 입양인 스스로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입양인 자조단체로서, 한국의 후원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입양 한국인들의 친부모 찾기, 그들의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한국에서의 적응과 체류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제1회 해외 입양인 종합예술제는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해외 입양인 예술가들이 겪은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겪었던 수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축제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한국의 예술가들과 소통한 뜻깊은 자리였다. 동시에 해외 입양인 예술가들에게는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확인하고, 한국 예술가들은 민족적 동일함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화합이 오늘날 우리 예술계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앞으로도 매년 해외 입양인 종합예술제를 개최해 해외 입양인 예술가와 한국 예술가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글 | 정주영(오픈리포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전문사 과정에 있으면서, <문화+서울> 오픈리포터로 활동 중이다.

사진제공 | (사)해외입양인연대



한 장의 선포

본 쪽지는 필자가 직접 꼽은  
세 권의 책으로 엮어낸  
이야기입니다.

# 다시 태어남을 위한 여행

계절의 끝, 잠재운 줄 알았던 열병은 다시 가슴을 달뜨게 하고 무작정 신발 끈을 매게 한다. 묵묵히  
동행해 줄 가장 좋은 벗은 배낭 속 책 한 권.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엔, 나도 이 세상도 전과  
똑같지 않으리라.

## 김훈 『풍경과 상처』

스무 살 때는 훌쩍 자주 떠나곤 했다. 거기엔 글 쓰는 자가 으레  
지닐 법한 약간의 감상과 치기도 분명 섞여 있었겠지만, 몸 안쪽  
깊숙이서 도사리고 있던 어떤 열병 하나가 아직 길들이지 못한  
짐승처럼 이따금 고개를 쳐들고 내 몸을 몇날며칠이고 달뜨게  
만드는 것이어서, 떠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던 탓도  
있다. 여튼 그때는 약간의 여비만 생기면 사라지기를 밥 먹듯 했  
다. 사라져서는, 강진이고 해남이고 보길도 같은 남도의 끝자락  
이나 정선, 영월 같은 강원도 골짜기나 들을 두뼘뼘 걸어 다녔  
다. 딱히, 그러나 여행에서 어떤 이미지를 얻어서 습작으로 써내  
본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저 떠남 자체 혹은 풍경 자체에 매혹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혹은 그 풍경이 지닌 상처에?

그때 옆구리를 찔러가며 내 떠남을 자주 부추기던 책이, 김  
훈의 『풍경과 상처』다. 지금은 소설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그는 본래 뛰어난 문학담당 기자였다. 그는 문학이라는 프리즘  
으로 들여다본 풍경을 자신의 독특하고 화려한 인문학적 수사  
로 이 책에 되살려놓고 있다. 그러면서 풍경 너머 혹은 풍경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를 눈부시도록 참혹하게 드러낸다. 그 눈부  
신 상처 때문에 되살아난 풍경은 더욱 생생하다.

가을산, 나무와 나무 사이의 냄새는 존재의 핵심부를  
버티는 뼈의 향기이고, 떨어져 있는 것들의 간격의  
냄새다. …… 빠로 돌아가는 먼 산맥들이 험겁고,  
가을에는 강물조차 습기를 버린다. 가을의 섬진강은  
여름날의 그 사나운 탁류를 모두 흘려보내고, 숙일 수

없는 머리를 끝까지 숙여, 흐르는 것의 뼈만을 챙겨서  
호르고 있었다.

- 「가을의 빛」 P.135 중에서

이처럼, 이 책은 아무 쪽이나 펼쳐도 김훈이 빚어놓은 상처  
의 매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문장들로 촘촘히 직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그 상처의 날실과 씨실로 엮은 풍경 속으로  
떠나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는가.

## 후지와라 신야 『인도방랑』

서른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또 좁이 쭈셨다. 그 무렵 내가 만난  
책이 후지와라 신야의 『인도방랑』이었다. 일본의 사진작가인  
저자의 사진기행 산문집답게 그가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이 페이지 곳곳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그 사진들은 그  
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사진이 아니다. 그 사진  
들은, 오랜 시간 또한 여러 차례 인도의 풍경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람들과 어울리며 충분히 풍경과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  
해본 자가 바라본 풍경과 사람들을 담아낸 사진들이어서, 나  
는 그 사진들이 뿜어내는 풍경과 사람들의 생생하고 아름다운  
숨결 속으로 나를 끼워 넣고 싶어 안달복달했다. 그러면서 나  
는 인도를 꿈꾸었다기보다는 인도를 향한 꿈을 잃었다.

꿈을 잃기를 여러 해, 그 동안에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조그  
만 출판사에 다녔는데, 한 일 년 쯤 뒤에 그 출판사가 어려워져  
그만두게 되었다. 퇴직금을 받아든 나는 당연히 이것저것 쥔 것  
없이 인도로 떠났다. 스물아홉이었고, 2000년대가 막 도래한

참이었다. 그때 내게 끼쳐오던 인도의 풍경은 그러나 후지와라 신야의 책에서 본 풍경도, 내가 꿈꾸던 혹은 앓던 풍경도 아니었다. 그건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서의 풍경이었다. 그 생생한 복판에서 나는 갠지스 강을 만났고 갠지스 강 화장터의 삶만큼이나 생생한 죽음의 풍경에 압도되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한데 그 바라나시의 엷히고설낀 골목들처럼 복잡한 감정으로 갠지스 강변에 서 있는 내 앞에 사이암, 비키, 모글리 같은 아이들이 왔다. 그들은 나를 전혀 낯설어하지 않으면서 나를 데리고 갠지스 강변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녔다. 그들이 헤집어 보여준 것은 그곳의 풍경만이 아니라 제 자신들의 이야기와 그 조그만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상처이기도 했다. 골목마다 형제들이 만나지던 대가족의 만이었던 사이암이 그곳을 떠나고 싶다고 머뭇머뭇 말할 때 커다랗게 빛나던 물기 가득한 눈망울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여덟이나 아홉 살쯤 먹은 그 아이들은, 진부하지만, 마치 내 손으로 만져지는 희망 같았다. 그들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꿈꾸던, 앓던 인도였을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 안현미 『이별의 재구성』

나이 들면서는 그 짐승 같은 게 조금씩 길이 드는지 좀체 달뜨는 일은 없어졌지만, 이쯤에도 이따금씩 그 짐승 같은 열병의 잔상이 슬쩍 피부 바로 아래까지 건드려보기는 하는 모양이라, 얼척 없이 떠나고 싶어지기도 가끔 하는 것인데, 떠나기 전에 책 한권 챙겨 가면 여행은 한결 남달라진다는 것은 늘 경험하는 일이다. 김훈만큼은 아니어도, 펜시리 풍경은 내가 들고 있는 텍스트와 몸을 섞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매혹들을 선사한다. 그럴 때 시집은 꽤나 유용하다. 여행지에 막 도착했을 때 안현미 시집 『이별의 재구성』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는다면 여행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색깔의 옷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그 후 우리는 “하나는 많고 둘은 부족한” 별에  
착륙했고/중력은 희미했고 궤도를 이탈한 계절은  
랜덤으로 찾아왔다/어제는 겨울 오늘은 여름 낮에는  
가을 밤에는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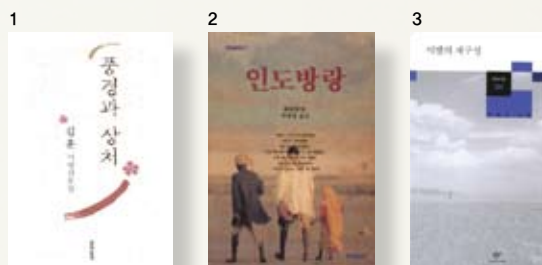
- 『합체』 중에서

시인은 “합체”를 꿈꾸지만 나와 너, 나와 세계와의 완전한 합체란 결국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은 시인 자신도 알고 있는 듯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시인 아닌가? “합체”를 꿈꾸면서 시인은 “이별”도 재구성하고 “이 별”도 재구성한다. 시인의 시를 읽으며 우리가 풍경을 바라볼 때 ‘재구성’되는 것은 풍경만이 아니다. 풍경도 시도, 그 둘 다를 바라보고 있는 나도 재구성된다. 시인은 말한다. “사랑을 체험한 뒤에는 전과 똑같은 인간일 수 없다”. 그의 말을 빌려 나는 또 말한다. “여행을 체험한 뒤에는 전과 똑같은 인간일 수 없다”.

장 그르니에는 “여행의 완성은 결과적으로 그것의 소멸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말인즉슨,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비로소 여행이 완성되는 것이란 것인데, 소멸되는 것은 그러나 여행만이 아니다. 떠나던 나와 떠날 때의 일상과 공간 역시 소멸된다.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전과 똑같은 인간일 수 없다”는 이유다. 나를 달뜨게 했던 열병의 정체는 그러므로, 다시 태어남의 열병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많은 다시 태어남을 통해 나는 또 여기까지 와 있는지 모른다. 이 가을 이 가기 전에 나는 또 한 번 다시 태어나야 할까 보다. 내 몸 안쪽 저 깊은 곳에서 서서히 짐승 한 마리가 고개를 쳐드는 게 느껴진다.

### 글 | 김근

1973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이별』 외 네 편의 시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뱀소년의 외출』 『구름극장에서 만나요』가 있다.



1 김훈, 『풍경과 상처』 (문학동네, 1994년)  
2 후지와라 신야, 『인도방랑』 (한양출판, 1993년)  
3 안현미, 『이별의 재구성』 (창비, 2009년)

재단사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봄날을 찾아서〉

# 멋진 시니어들의 이야기

〈봄날을 찾아서〉 공연준비 현장탐방

어깨에 동여맸던 책보를 풀어 내던지고, 친구와 어울려 술래잡기, 고무줄넘기, 공기받기, 말타기 놀이에 정신이 팔렸다가 ‘아! 하루해가 너무 짧아!’라고 외치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해맑은 어린이 모습 그대로다. 11월 28일 오후 3시, 역삼문화센터 무대에 오른 〈봄날을 찾아서〉 공연 연습현장에 미리 다녀왔다.

겨울의 길목에서 내린 비 끝에 불어온 바람이 노란 은행잎을 길 위에 쏟아놓고 있다. 이렇게 낙엽이 지고 한 해가 저물어갈 때면 누구나 쓸쓸해지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마음이야 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인생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즐거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멋진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다. 움직임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곳은 시니어 프로젝트 〈봄날을 찾아서〉의 공연 연습으로 바쁜 강남구 논현동의 논골노인복지관이다.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서울문화재단의 미적체험교육(Arts-Echo-Project)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어르신 대상의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2009년 20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에서는 기능적인 무용교육과 달리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예술통합 체험교육-무용+연극(Tanz theater)을 실시하고 있다. 6월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6,70대 열두 분 시니어들이 막바지 연습 중이었다.

연습실에 들어섰을 때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학예발표회 연습실이 아닌가 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흰 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받쳐 입고, 빨강, 파랑, 노랑 등 색색의 꽃술 가발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로 어린이들처럼 보였다. 정식 연습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거울 앞에서 동작과 표정을 연습하기도 하고, 두 손을 마주잡고 호흡을 맞춰 도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한 편에 모여 앉아 대사내용을 가다듬느라 바쁜 모습들이다.

보조자가 뛰기, 붙기, 쓰러지기, 돌기, 작아지기, 커지기 등의 움직임 동작과 기호가 그려진 카드를 마루에 늘어놓는다. 이러한 움직임의 기호를 먼저 배운 후 몸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이 기호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동작을 만들고, 이러한 동작들을 주르륵 연결하면 하나의 멋진 무용작품이 완성된다고 한다.

연습이 시작되자 서너 명씩 짝을 지어 마루에 놓인 기호에 따라 자연스럽게 뛰고, 구르고, 돌고, 움츠렸다가 펴는 등 다양한 동작들을 펼쳐 보인다. 어느새 몸도 마음도 부드럽게 풀린 모습들이다. 이어서, ‘이 열차는 봄날의 열차입니다. 모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驛)은 출생역입니다.’ 하는 안내와 함께 동요가 들려온다. 자장자장 짹짹 잠잠 귀엽게 잘도 놀다가 걸음마를 하던 아기는 넘어져 무릎을 움켜쥐고, 엄마는 아기의 두 손을 마주잡고 퇴장한다. 침대 역에서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공기받기 등으로 하루해를 다 보내고도 하루해가 너무 짧다고 투정하고,





빅뱅의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봄날을 찾아서' 공연을 연습하는 장면



연습을 하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

이십대 역에서는 세 친구가 강의는 듣다말고 살금살금 빠져나와 맥주 한 잔에 담배 한 대, 그리고는 신나는 디스크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팔순이 가까우신 최고령 어르신도 이 순간만큼은 이십대 학생이 된다. 다음은, 사십대 부부가 사랑스럽게 춤추는 사이로 부모보다 훨씬 큰 딸이 끼어든다. 빨강고 커다란 리본을 머리에 꽂고 애교를 부리는 딸이 좌중을 웃게 만든다. 육십대 역에서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을 한탄하던 어르신들이 눈골노인복지관으로 '봄을 찾아서' 떠난다. 빅뱅의 '붉은 노을'에 맞춰 모두가 신나게 춤을 추면서...

영덩이 쏙 빼고 뒤통뒤통 오리도 되고, 팔을 뻗어 손뼉치고 빙그르르 돌고(어, 내자리가 저쪽이지?) 로봇도 되고, 양손을 턱에 대고 '나 귀엽죠'라는 듯이 눈웃음도 보내고, 신나게 흔들어도 보고는 한 줄로 서서 공손히 배꼽인사하고, 물러나 또 배꼽인사하고, 모두 손잡고 또 인사하고... 한가운데 작은 원으로 둘러앉아 등 두드려 주고, 주물러 주고, 발 모아 뻗어 털고, 두 손 들어 반짝반짝,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봄날을 찾아서! 파이팅!'

저 연세에 허리와 무릎이 얼마나 좋으면 저리도 잘 뛰고 잘도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휴 땀난다. 문 좀

열시다" 하는 말이 들린다. 가발을 벗은 얼굴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고, 머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저리도 신나게 춤추고 이야기하고 웃으니 땀도 나고 엔돌핀도 저절로 솟아나고, 동안(童顔)도 유지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열정과 생기가 샘솟아 만사 제쳐놓고 참여한다는 송영희 님, 취미로 하는 사물놀이, 고전무용, 연극이 내면을 가꿔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었다는 김미경 님, 실버 모델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참 좋다는 나상덕 님, 그 외에도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제2의 인생을 맞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또 어르신들도 스스로 건강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글 | 이완범(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어르신기자)**

춘천사범과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초등교육에 40년 넘게 재직했다. 장학관과 교장을 거쳐 2006년도에 정년퇴직하고, 현재는 교전과 일본어 등을 배우고 있다.

# SFAC News

## 『문화가 있는 놀이터』

### ‘200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종합대상 수상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에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가 있는 놀이터』가 ‘200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종합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는 총 113개 작품이 출품됐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가 있는 놀이터』와 목포시의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 ‘200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공동수상하였으며,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의 부문으로 나누어 최우수상 4작품, 우수상 4작품, 특별상 1작품과 특별상 8작품으로 총 19개 작품이 선정됐다.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이라는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의 슬로건에 부합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체 대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공모전을 통해 내놓은 아이디어가 전문가와 예술가의 손을 거쳐 놀이터로 개발되는 과정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놀이터모델 개발 외에도 각 모델에 맞는 문화놀이 프로그램이 더해져 시설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균형감 있게 디자인했다는 점에서 특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코엑스 C홀에서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 전시에는 2009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는 실물놀이터 가운데 ‘자연에너지놀이터’와 ‘고래의 꿈 놀이터’, 그리고 ‘밀고당기기 놀이터’가 전시돼 또 한 번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

### ‘2009 제4회 대원음악상’ 대상 수상

(재)대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일곤)이 수여하는 제4회 대원음악대상에 예술감독 강동석을 주축으로 (재)서울문화재단과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가 선정되었다.



이번 대원음악상은 9월, 10월 두 달 간 신청 접수된 각 분야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난 1년 간 후보자들의 음악적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다. 심사위원단은 “2006년에 시작,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음악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클래식 공연계의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실내악 장르에 초점을 맞춘 순수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 축제는 그간 핀커스 주커만, 솔로모 민츠 등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내한 무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연주자들 간의 우정을 도모하고 청중과 연주자가 상호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고궁에서 열린 콘서트와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프린지 콘서트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소통 창구로서 기능해 왔다”면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예술감독 강동석)가 만장일치로 제4회 대원음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음을 밝혔다. 한편, 대원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제3회 대원음악상 수상자로 대상에 피아니스트 백건우, 특별공헌상에 세종 솔로이스츠, 연주상에 콰르텟21, 작곡상에 박인호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대원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4회 대원음악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금) 오후 6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되며, 스프링실내악축제의 예술감독인 강동석이 대표로 수상한다.

## 대학로 인기공연 천원만 내고 골라본다!

### ‘수능 수험생 Day

### — 대학로 공연 초대이벤트’ 진행

11월 27일(금) 오후 4시 대학로 일대의 연극 및 뮤지컬 공연을 무료 또는 천원으로 관람할 수 있는 수능 수험생 대상 무료 공연관람 및 천원티켓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수능 시험 준비로 문화예술 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공연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학생들은 대학로에서 최고의 흥행을 구가하고

있는 연극 <라이어>, <웃음의 대학>과 올 상반기 화제의 뮤지컬 <스프링어 웨이크닝>, <빨래> 이상 총 4편의 무료초대작 공연과 <싱글즈>, <늘근도둑 이야기> 등 75편의 인기 뮤지컬 및 연극을 단돈 천 원으로 관람했다.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본 행사를 위한 공연티켓 구입비용 전액은 G마켓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G마켓 홈페이지([www.gmarket.co.kr](http://www.gmarket.co.kr))에서 사전 응모 또는 선착순 구매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 책 읽는 서울 저자와의 만남

### 12월의 ‘Leader & Reader’는 김창완과 함께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 ‘책 읽는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매달 저자와의 만남 ‘Leader & Reader’를 주최하고 있다. 중앙일보·Yes24와 함께 하는 독서캠페인 ‘YES Book 책을 읽자 희망을 읽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노희경, 김용택, 신경숙, 박병신, 구병모, 김탁환, 정호승, 차인표 이상 총 8명의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12월에 초대된 작가는 올해 판타지 소설 『사일런트 머신 길자』를 펴낸 김창완이다. 몇 해 전부터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해온 그가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공들여 쓴 이야기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사는 12월 23일 수요일 서울연극센터에서 열리며, 팝컬러니스트 김태훈의 진행으로 함께한다. 참가신청은 YES Book 캠페인 사이트([joins.yes24.com](http://joins.yes24.com))에서 받으며, 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02-3290-7145)으로 문의 바란다.

|      |                                                            |
|------|------------------------------------------------------------|
| 일시   | 12.23(수) 09:30~20:30                                       |
| 장소   | 서울연극센터(혜화역 4번 출구)                                          |
| 초청강사 | 김창완(소설 '사일런트 머신 길자'의 필자)                                   |
| 참가신청 | <a href="http://joins.yes24.com">joins.yes24.com</a> 에서 접수 |





##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정보를 한눈에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www.e-sac.or.kr](http://www.e-sac.or.kr)(이삭)을 오픈했다. 홈페이지에는 현재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미디어 상영회”의 신청접수 및 자세한 내용이 공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3층에 위치한 예술교육 정보자료관의 소장 자료 검색이 가능하고 희망 자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료관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 ‘소통과 나눔’ 섹션은 보도자료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정보, 예술교육 사례 및 후기, 채용정보,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사자료와 사진자료 및 동영상, 문화예술 관련 구인정보 등이 꾸준히 업데이트 되어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문화예술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 서울열린극장 창동 12월 공연

### 뮤지컬 ‘그리스’

1972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 ‘그리스’. 한국에서는 2003년 초연된 이후 약 43만 명의 관객과 1,000회를 넘는 공연기록을 세운 작품이다. 첫사랑과 첫 키스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신나는 뮤지컬 넘버들과 함께 즐겨보는 무대가 될 것이다. 12월 4일(금) 오후 3시, 7시 30분 두 차례, 12월 5일(토) 3시, 7시, 12월 6일(일)에는 오후 4시에 공연된다. 관람료는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며, 만 7세(취학아동) 이상이면 관람 가능하다.



### 서울열린극장 창동 송년음악회 ‘합창’

유라시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합창’이 12월 20일(일) 서울 열린극장 창동 무대에 오른다. ‘합창’은 베토벤의 귀가 다 멀어버렸을 때 완성된 교향곡이자 교향곡에 사람의 목소리를 더해 당대 음악계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언제 들어도 웅장한 합창 교향곡의 감동을 마에스트로 금난새가 전할 예정이다. 관람연령은 36개월 이상.

### 송년명작발레 ‘호두까기 인형’

연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호두까기 인형’. 국내 최고의 안무가로 손꼽히는 제임스 전이 마리와 호두까기 왕자의 달콤하고 꿈같은 모험을 새롭게 표현하여 남녀노소 모두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화려하고 환상적인 무대와 아름다운 무용수들의 몸짓, 두말할 필요 없는 차이코프스키의 완벽한 음악은 연말을 맞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12월 30일(수)부터 2010년 1월 3일(일)까지 무대에 오르며,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다. 만 5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동반 시 입장가능하다.

\*공연 관련문의 : 02-994-1469

\*위 공연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베를린 레제뷔네의 매력, 서울에서 맛보다 안드레아스 글래저 낭독무대 열려

지난 11월 5일 개관한 서울시 최초 문학전문 레지던시 ‘서울시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촌’의 첫 해외 입주작가인 독일 출신 안드레아스 글래저(Andreas Gläser 44)가 11월 9일 입국, 6박 7일 간의 일정으로 국내 활동을 펼쳤다. 독일문화원과 연희문학창작촌의 협력을 통해 연희문학창작촌에 단기 입주하는 안드레아스 글래저는 동베를린 출신 작가로, 베를린의 유명 독서모임인 ‘열광자의 거리(Enthusiasten aller Länder)’의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11일(수)과 13일(금) 두 차례 베를린식 레제뷔네(lesebühnen : 낭독무대)를 가졌다.

11일에는 홍대 앞 카페 ‘디디 다’에서 <동베를린, 열광자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과거 분단 시기 및 현재 통일시대 베를린에서의 삶에 대한 낭독을 당시 동독의 락음악과 영상 및 작가의 트럼펫 연주 등과 함께 선보이고, 이어 13일에는 독일문화원 유럽홀에서 <구 동독의 수도 베를린 : 한 프롤레타리아 남자가 전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베를린의 일상 - 통일, 축구, 도시 등에 대한 낭독무대를 진행했다.



낭송, 음악, 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지는 베를린 레제뷔네의 매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그의 이번 서울 낭독회는 독일 현대역사의 한 가운데서 온 몸으로 변화의 물결을 맞은 한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국 관객들에게 낭독회 이상의 큰 울림을 전했다.

## 문래예술공장 기획 세 번째 거리공연 〈문래·7색·몸짓〉진행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11월 15일,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영등포구 문래동의 문래예술공장 개관 준비작으로 영등포구 문래3가 철공소 거리 '문래창작촌' 일대(문래근린공원, 홈플러스 앞, 문래역 7번 출구 앞, 문래역 광명수산, 신 흥상회 앞, 춤공장 앞, 춤공장 옆 골목 모퉁이 등 6곳)에서 7개 공연단체의 거리공연인 〈문래·7색·몸짓〉을 선보였다.

문래예술공장은 문래동 일대에 예술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문래창작촌'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하는 서울시창작공간으로, 개관에 앞서 문래창작촌의 예술가와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거리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09년 하반기에 마련한 세 번째 거리공연으로, 문래창작촌에 기반한 7개 공연단체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문래창작촌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한국춤교육연구회', '경계없는 예술센터', '오쿠다 마사시', '극단 몸꼴', '온앤오프 무용단', 'SORO퍼포먼스 유닛', '양상블 댄스'이 4시간에 걸쳐 퍼포먼스, 연극, 춤,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예술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6주간 〈어린이 아트로봇 교실〉 운영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6회에 걸쳐 금천구 독산동 두산초등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아트로봇 교실'을 운영한다. '아트로봇'이란 첨단기계인 로봇에 예술가의 창조적인 디자인과 상상력을 입힌 로봇을 말하며, 이미 지난 10월 7일 금천예술공장 개관식에서 '춤추고 글씨도 쓰는' 아트로봇 쇼를 선보인 바 있다('ArtRobot' 팀 제작).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과 첨단과학과의 만남, 예술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금천예술공장이 특화 장르인 '아트로봇 프로젝트'의 사전홍보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근 두산초등학교 120명과 함께 로봇 제작이론을 비롯해 곤충 키트 제작(1~3학년)과 광센서 키트 제작(4~6학년)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로봇 교육이 단순 납땜 조립을 이용한 교육에 치우치는 데 반해 이번 '아트로봇 교실'은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며, 참여 어린이들에게 로봇을 통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9월 29일 서울가산디지털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가디컴)와 상호간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술과 첨단기술과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도 가디컴과의 협력 프로젝트인 '아트로봇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트로봇 프로젝트'는 '어린이 아트로봇 교실'을 시작으로 로봇 기술자와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와의 공동창작, 아트로봇 상품개발, 아트로봇 강좌 및 문화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12월 대학로연극투어 안내 연극 <락희맨쇼>, <오아시스세탁소습격사건>

서울연극센터는 오는 12월 13일, 27일 2회에 걸쳐 대학로연극투어를 진행한다. 13일은 지금까지 대학로연극투어 참가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극 <락희맨쇼> 관람과 더불어 배우와의 대화, 연습실 탐방, 오지혜의 연극이야기 등 배우들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28일 대학로연극투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아르코예술극장의 백스테이지 투어, 이야기가 있는 대학로산책, 대학로 문화공간 탐방, 연극 <오아시스세탁소습격사건> 등 대학로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비는 1인 1만원이며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daehangno.or.kr](http://www.daehangno.or.kr))에서 접수 받는다.

| 구분                           | 신청기간               | 선정자 발표    |
|------------------------------|--------------------|-----------|
| 12월 대학로연극투어<br><락희맨쇼>        | 11월18일(수)~12월1일(화) | 12월2일(수)  |
| 12월 대학로연극투어<br><오아시스세탁소습격사건> | 12월2일(수)~12월15(일)  | 12월16일(월) |

## 서울연극센터 세미나실 1월 대관 안내

서울연극센터 세미나실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대관의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7일까지이고, 수시대관은 사용예정일 최소 7일전까지다. 승인 여부는 매월 10일 발표되며, 수시대관은 신청 2일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서울연극센터<br>세미나실       | 좌석 수 | 대관시간                | 비고                              |
|----------------------|------|---------------------|---------------------------------|
| 12석<br>(보조석자<br>24개) |      | 화요일~토요일 10:00~20:00 | 기타 서울문화재단에서<br>지정하는 날은<br>휴관입니다 |
|                      |      | 일,공휴일 10:00~19:00   |                                 |
|                      |      | 월요일 휴관              |                                 |



## 대학로연습실 대관 안내

서울문화재단은 공연예술의 중심 대학로에 예술창작공간인 대학로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로연습실은 총 6개의 연습실과 1개의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연습실은

2010년 1·2월 수시대관이 12월 15일부터 진행되며, 세미나실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2010년 1월 정기대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http://www.sfac.or.kr))를 참고하거나 대학로연습실 (02-747-7805)로 문의 바란다.

| 구분                  | 1관  | 2관          | 3관     | 4관          | 5관     | 6관          | 세미나실   |
|---------------------|-----|-------------|--------|-------------|--------|-------------|--------|
| 면적(m <sup>2</sup> ) | 182 | 132         | 182    | 116         | 135    | 165         | 231    |
| 대관료<br>(원)          | 오전  | 20,000      | 17,000 | 20,000      | 15,000 | 20,000      | 20,000 |
|                     | 오후  | 28,000      | 23,000 | 28,000      | 20,000 | 30,000      | 30,000 |
|                     | 야간  | 28,000      | 23,000 | 28,000      | 20,000 | 30,000      | 30,000 |
|                     |     |             |        |             |        |             |        |
| 운영시간                | 오전  | 09:00~13:00 |        | 09:30~13:30 |        | 09:00~13:00 |        |
|                     | 오후  | 13:30~17:30 |        | 14:00~18:00 |        | 13:30~17:30 |        |
|                     | 야간  | 18:00~22:00 |        | 18:30~22:30 |        | 18:00~22: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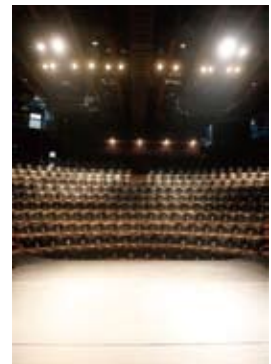
3시간 50,000원  
6시간 100,000원  
9시간(전일) 150,000원  
초과시간당 20,000원

09:00~22:00  
(선택타입제)



## 남산예술센터 무대를 뜨겁게 달굴 2010 시즌 공동제작 프로그램 공모

현대연극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공연예술 양식 발굴을 지향하는 제작중심 공연장 남산예술센터가 2010 시즌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모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산예술센터 극장운영팀(02-758-2101~5) 또는 이메일 [mkkang@sfac.or.kr](mailto:mkkang@sfac.or.kr)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                                                                                  |
|------------|----------------------------------------------------------------------------------|
| 접수일자       | 2009.11.9(월)~2009.12.15(화)                                                       |
| 신청대상       | 단체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이거나 최근 3년간 서울지역에서 3개 이상의 작품을 공연한 공연예술단체 및 개인(작가, 연출가)              |
| 접수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 제출서류       | 작품공모신청서(양식), 공연소개서(양식) 6부, 공연대본 6부 및 최근 공연작품 동영상                                 |
| 접수부문       | 창작 초연 연극<br>·공연일자 : 2010년 4월~12월 중 협의를 통해 결정<br>·공연기간 : 한 작품 당 최대 3주 이내(준비기간 포함) |
| 선정작 수      | 3편 내외                                                                            |
| 선정작품 지원 내역 | 시설사용료(대관료) 면제 및 무대기술 인력 제공, 공연제작비 일부 현금 투자(30,000천원~100,000천원)                   |



2009 서울빛축제  
2009.12.19 - 2010.1.24

# 빛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www.hiseoulfest.org](http://www.hiseoulfest.org)



서울문화재단  
12월의 문화 캘린더

12  
December

생활속예술지원사업

시민축제지원사업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2009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서울열린극장 창동 공연

남산예술센터 극장 공연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연 및 전시

2009 서울빛축제 프로그램

| 구분         | 사업                                        | 단체                           | 연락처           | 일시                | 장소                                                       |
|------------|-------------------------------------------|------------------------------|---------------|-------------------|----------------------------------------------------------|
| 생활속예술지원사업  |                                           |                              |               |                   |                                                          |
| 연극         |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만드는 신나는 연극프로젝트 "으랏차차"           | 으랏차차                         | 070-8183-7466 | 4/13 ~ 12/14      |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로 나무와 물 소극장                                |
| 무용         |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한국무용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엠포기>        | 유미별무용단                       | 02-955-0086   | 4/18 ~ 12/19      | 노원, 도봉구 내 고교                                             |
|            |                                           | 유니버설문화재단 소속 유니버설발레단          | 070-7124-1733 | 2/1 ~ 12/31       | 유니버설아트센터                                                 |
|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                  | (사)달물무용예술월                   | 02-578-6810   | 12/8 ~ 12/23      | (사)달물무용예술원                                               |
| 시각         | 공연/발표/120회부터 150회까지 독립영화 발표회              | 독립영화협의회                      | 02-2237-0334  | 9/4 ~ 2010/1/29   | 영화진흥위원회 시사실                                              |
|            | 문래3가, 독립영화 정기 상영회                         | 이소주                          |               | 1/31 ~ 12/19      | 문래철제상가내 골목길, 복합 문화공간 'laboratory39', 북림문화공간 그날, 스튜디오 춤광장 |
|            | 중요공원 노인들의 공동체 영화만들기                       | 창시                           | 031-774-1271  | 12/15 ~ 12/24     | 서울시 중요공원                                                 |
| 음악         | 09년 발달장애인의 웃음이 넘치는 풍경                     | 사단법인 한국 제니가족지원센터             | 02-742-0142   | 3/16 ~ 12/31      | 한국제니가족지원센터 및 서울역 오른콘서트홀                                  |
|            | 정기발표회 및 앙로원 6회 봉사연주 활동                    | 아마빌레챔버앙상블                    | 02-776-8031   | 5/1 ~ 12/31       | 앙로원 6곳 / 총무아트홀                                           |
|            |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연주                          | 아마빌레챔버앙상블                    | 02-776-8031   | 5/1 ~ 12/31       | 앙로원 6곳 / 총무아트홀                                           |
|            |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통기타이야기                        | 아마레 앙상블                      | 02-769-4180   | 1/1 ~ 12/30       |                                                          |
|            | 서울 알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통기타이야기                       |               | 5/13 ~ 12/31      | 올림픽공원 88호수 수변무대                                          |
|            | 프랑스 궁정의 음악회                               | 서울 알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 3/14 ~ 12월        | 서초동DS홀, 강남세라믹 팔레스홀, 압구정 정찬아트홀                            |
| 전통         | 맑음터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열린문화제'                    | 장애인지원센터 맑음터                  | 02-703-7105   | 5월 ~ 12월          | 대중역 만남의 장소 외                                             |
|            | 찾아가는 참소리 소리마당                             | 참소리 국악 전수원                   | 02-711-9395   | 1/1 ~ 12/31       | 연봉경로단, 공덕1동 경로당                                          |
|            | "2009년 하늘땅뽀 열러라~" 자선발기교육                  | 하늘땅 어린이 국악 예술단               |               | 3/10 ~ 12/20      | 하늘땅 대관공간, 화양동 당산나무                                       |
|            | '가아금으로 그리는 소리그림2                          | 가아금 프로젝트 샘                   |               | 11/16 ~ 12/19     | 국립서울맹학교 치료실, 국립서울맹학교 강당                                  |
|            | 문화 예술 소외 계층을 위한 음악 발표회 '풍류 극장'            | 현승훈 '땀띠' 팀                   |               | 7/20 ~ 12/29      | 광화문아트홀, 서울 시내 복지센터 관련행사                                  |
|            | 홍제동 마을굿-해보네기 굿                            | 작은소리학교                       | 02-736-5280   | 12/11             | 작은소리학교 강당, 홍제동 일대                                        |
|            | 희망을 전파하는 <호락호락(好樂好樂)한 국악음악대>              | 국악놀이연구소                      | 02-6224-1266  | 12/4              | 서울여성플라자                                                  |
|            |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마을 풍물패 워크샵 및 발표회            | 성미산풍물패                       | 02-338-3337   | 7/1 ~ 12/31       | 풍물굿패 살판 연습실, 성미산 마을극장                                    |
| 문학         | 제10권 예디 시낭송 회원 사화집 발간 및 시낭송회(122회-133회)   | (사)가족아카데미아                   | 02-732-8144   | 1/1 ~ 12/20       |                                                          |
| 문화일반       | 매월정기 시낭독회                                 | 공간시낭독회                       | 02-2274-1340  | 1월 ~ 12월          |                                                          |
|            | 구보박태원 탄생 100주년기념 문화사업                     | 구보박태원탄생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보학회 | 02-3277-6663  | 5/30 ~ 12/12      |                                                          |
|            | '창립 20주년 기념' 2009년 고전문화강좌                 | (사)전통문화연구회                   | 02-762-8401   | 1/5 ~ 12/30       |                                                          |
|            | 2009 지하철예술무대 "SUBWAYTHEATER"              | 지하철예술인협회 (구, 공연예술기획 이일공)     | 02-3477-1531  | 3/1 ~ 12/30       |                                                          |
|            | 2009년 다문화가정 &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 02-446- 4199  | 12/20             |                                                          |
|            | 차한잔의 문학                                   | 국단 이루                        | 02-747-3226   | 12/8 ~ 12/18      |                                                          |
|            | 시민을 위한 행복프로젝트 종이문화예술작품전시회 및 종이접기 종이문화체험교실 | 종이문화재단                       | 02-747-3226   | 6/22 ~ 12/30      |                                                          |
|            | 게이 컷처 스쿨                                  | 한국 게이 인권 운동단체 친구사이           | 02-2279-7900  | 8/1 ~ 12월         |                                                          |
|            | 다문화 이해를 위한 영상교재개발과 순회강연                   | 이주 노동자의 방송 MWTB              | 02-745-7942   | 5/1 ~ 12/31       |                                                          |
|            | Lost Room Project                         | 장수중(개인)                      | 02-776-0416   | 1/21 ~ 12/24      |                                                          |
|            | 2009ATU(Artistsoul Across The Universe)   | 닷라인 TV(미술방송)                 |               | 11/15 ~ 12/16     |                                                          |
|            |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프로젝트                          |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발                  | 02-325-8150   | 6/1 ~ 12/31       |                                                          |
|            |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교실                 | 신나는 문화학교 교사협회                | 02-334-8209   | 3/16 ~ 12/19      |                                                          |
|            | 창신동 이야기                                   | 퍼블릭아트 고물상                    | 02-323-1776   | 3/1 ~ 12월         |                                                          |
|            | 2009 지하철은 내 친구 - 시민노래자랑 대회                | (사)철도,지하철 예술진흥 연구원           | 02-3472-0797  | 5/9 ~ 12/5        |                                                          |
|            | <어른을 위한 놀이터> 대학로에 길을 묻다                   | 문화기획집단 문화아이콘                 | 02-762-0810   | 11/28 ~ 12/12     |                                                          |
|            | 노고산동 블루스                                  | 공공예술 들로화 집단                  |               | 10/1 ~ 12/22      |                                                          |
| 시민축제지원사업   |                                           |                              |               |                   |                                                          |
| 시민축제       | 춘향전공연                                     |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회                  | 02-969-1160   | 12/20             |                                                          |
|            | Jazz Park 공연 (사업유형:공연)                    | 컬처이케팅그룹                      | 02-528-3355   | 1/21 ~ 12/16      | 섬유센터 이벤트를                                                |
|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                                           |                              |               |                   |                                                          |
| 발레         | 오페라발레 <뮤즈>                                | 김선희 발레단                      | 02-3661-5200  | 12/21 ~ 12/27     | 한예총 석관동예술극장                                              |
| 현대무용       | 세익스피어의 새로운 탄생! <2009 댄스뮤지컬 '겨울이야기'>       | 최창자 뿔바루무용단                   | 02-3408-3277  | 12/23 ~ 12/26     | 갤러리 이즈                                                   |
| 창작극        | 춘풍의 처                                     | 목화레퍼터리컴퍼니                    | 02-745-3966   | 12/1 ~ 12/31      | 원더스페이스 동그라미극장                                            |
| 창작창극       | 문학과 소리의 만남 - 바리이야기                        | 조정희                          |               | 12/29 ~ 12/31     | 대학로 정미소극장                                                |
| 신체연극       | 리어카, 뒤집어지다                                | 국단 몸굴                        | 02-2636-4861  | 12/7 ~ 12/13      | 김진혜갤러리                                                   |
| 가족뮤지컬      | 책키와 불키                                    | 국단 즐거운사람들                    | 02-972-1072   | 12/29 ~ 12/30     | 강동구민회관                                                   |
| 정극         | 극단 여인극장 제124회 정기공연 (부제:아버지가 사라졌다2)        | 극단 여인극장                      | 02-374-4256   | 12/1 ~ 12/20      | 블랙박스씨어터                                                  |
|            | 엄마들의 수다                                   | 극단 통솔레퍼토리                    | 02-766-3444   | 12/11 ~ 2010/1/31 | 관훈갤러리본관1층                                                |
|            | 눈 속을 걸어서                                  | 김동현                          |               | 11/24 ~ 12/31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

| 구분       | 사업                                                              | 단체              | 연락처           | 일시                     | 장소                                    |
|----------|-----------------------------------------------------------------|-----------------|---------------|------------------------|---------------------------------------|
|          | 마지막 20분 동안 말하다                                                  | 투비컴퍼니           | 02-744-7304   | 10/8 ~ 2010/1/3        | 아츠플레이씨어터 2관                           |
| 퍼포먼스극    | 물의노래                                                            | 극단 심철중퍼포먼스제작소   | 02-338-9240   | 12/1 ~ 10              | 아이컬 갤러리                               |
| 음악극      | 서울의 착한 여자                                                       | 극단 여행자          | 02-3673-1392  | 12/18 ~ 2010/1/3       | 아트싸이드갤러리(인사동)                         |
| 음악극(소리극) | GOOD이로구나! '양소운의 황해도 배뱅이 GOOD'                                   | 황해도 춤 소리보존회     | 02-743-3371   | 12/2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 무예퍼포먼스   | 소용돌이 속의 역사와 예술                                                  | 사단법인 24반무예협회    | 02-763-0240   | 12/12 ~ 13             | 한국문화의집 코우스                            |
| 한지공예     | 아리랑 한지공방 전시회                                                    | 아리랑한지           | 02-6315-3330  | 12/16 ~ 22             |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
| 전통공예(칠보) | 결식아동 돕기 칠보공예전시 및 체험행사                                           | (사)한국칠보공예협      | 02-2026-0540  | 12/16 ~ 22             | 인사동 포토하우스                             |
| 전통무용     | 외길 인생 우봉 이매방 전통춤 공연                                             | 우봉 이매방 전통춤보존회   | 02-571-4584   | 12/9 ~ 11              | 영등포아트홀 대공연장                           |
| 국악(피리)   | 강주희의 피리로 그리는 그림 I. - 피리, 풍경을 그리다                                | 강주희             | 12/22         | 12/22                  |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
| 국악       | I. 피리앙상을 디토와 함께하는 '우리를 세상'<br>II.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 피리앙상블 디토(Ditto) | 070-7620-4771 | 12/14 ~ 15             | 영산 그레이스홀                              |
| 기악       | 박경훈의 실내악 모음곡 '四季'                                               | 박경훈             | 02-2245-2502  | 12/29                  | 모로갤러리                                 |
| 피아노 독주   | 줄노리 현대, 음악                                                      | 줄노리             |               | 12/4                   | 리스투더시티사무소, 리버풀스태틱, 갤러리꽃               |
| 실내악      | 임연실 피아노 독주회 "열정" 바로크에서 현대에<br>이르기까지의 독일 음악 흐름을 찾아서...           | 임연실             | 02-762-5633   | 12/29                  | 금호 아트홀                                |
|          |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제70회 정기연주회                                          |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 02-430-4795   | 12/10                  |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
|          | The Pathway Concert Series 2009                                 | The Pathway     | 02-880-8917   | 12/15 ~ 22             | 예능교회/금호아트홀/산정현교회                      |
|          | 올라비올라사운드 정기연주회                                                  | 올라비올라 사운드       | 02-520-8092   | 12/13                  | 화이트홀갤러리                               |
|          | 클랑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 클랑 목관5중주        | 031-266-9370  | 12/22                  |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
| 음악(경기민요) | 강효주의 경기 12잡가 완창 콘서트                                             | 강효주             |               | 12/11                  | 국립국악원 우면당                             |
| 음악       | 박지영 첼발로 독주회 '동서양 고악기들의 만남'                                      | 박지영             |               | 12/6                   | 세종 채임버홀                               |
|          | 박순아 가야금 독주회                                                     | 박순아             |               | 12/8                   | 서울남산국악당                               |
|          | 사단법인 한국정악원 개원 100주년 기념음악회                                       | 사단법인 한국정악원      | 02-3277-2449  | 12/16                  | 국립국악원 우면당/한국문화의집 코우스                  |
|          | 바람꽃 콘서트                                                         | 바람꽃             | 02-765-0601   | 12/16 ~ 18             | 신태박물관                                 |
|          | 최진 가야금 독주회 '흙'                                                  | 최진              | 02-884-6242   | 12/22                  | 비주얼아트센터보다갤러리                          |
|          | 경기12잡가 완창발표회 및 수료식                                              | 김금순소리보존회        | 02-966-8152   | 12/5                   | 갤러리담                                  |
|          |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시리즈 '禮樂'                                           | 정길선             | 031-897-8909  | 12/13                  | 국립국악원 우면당                             |
| 전통음악     | 제2회 권용미 소금, 단소 독주회                                              | 권용미             | 02-888-4268   | 12/8                   | 인사아트센터                                |
| 시각       | 제7회 서울미술대상전                                                     | 사단법인 서울미술협회     | 02-312-0942   | 12/1 ~ 5               | 갤러리mazoo                              |
|          | 도시-순간적이면서 지속적인                                                  | 권인경             |               | 12/2 ~ 12/8            | 갤러리도어                                 |
|          | universal resonance amid lights<br>-west meets east             | 이민주             | 02-534-1693   | 11/24 ~ 12/3           | (단행본 출간)                              |
|          | Bleeding Blue : 유현미 개인전                                         | 최지예             | 02-396-8356   | 11/19 ~ 2010/1/17      | 헬캠설치:마포경찰서 옥상,<br>아현동 조망권 옥상/전시:아현역 내 |
|          | 정성윤 개인전                                                         | 정성윤             |               | 11/19 ~ 12/11          | 벨벳 인큐베이터 갤러리                          |
|          | 버려진 God For Saken                                               | 노재운             |               | 7/1 ~ 12/31            | 갤러리룩스                                 |
|          | 정정주 개인전 응시의 도시 -서울                                              | 정정주             | 031-824-0408  | 11/17 ~ 12/14          | 서울도탈미술관                               |
|          | 반영된 기억                                                          | 정수영             | 02-393-0616   | 11/25 ~ 12/8           | 관훈갤러리 신관 1층                           |
|          | 조인호 제3회 개인전 '휘어진 산수' 전                                          | 조인호             |               | 12/9 ~ 12/15           | 노암갤러리                                 |
|          | 사운드 이펙트 서울 2009                                                 | 사운드 아트 코리아      | 02-325-8860   | 11/1 ~ 2010/5/20       | 4개국순화전시                               |
|          | Universal rules 판화전                                             | 강정현             | 031-275-7439  | 12/12 ~ 12/31          | 관훈갤러리                                 |
|          | 송윤주 개인전 (부제:문자잔치)                                               | 송윤주             | 070-7591-1410 | 12/16 ~ 12/24          | 금호미술관                                 |
|          | 이정배 개인전 - 공간을 약용하다                                              | 이정배             |               | 12월                    |                                       |
|          | 2009 SSACA : 2009 Seoul, soul of Asian<br>contemporart Art      | art in ASIA     | 02-797-0539   | 12/1 ~ 12/30           | 학교재 갤러리                               |
|          | novel-A 전                                                       | 이대범             |               | 12월                    | 테이크아웃드로잉                              |
|          | 활극도 긴장도 농담도 없는 네러티브                                             | 김월식             |               | 12/19 ~ 1/9            | 가갤러리                                  |
|          | 09 <신비> 전                                                       | 미술과 담론          |               | 11/27 ~ 12/20          | 세줄 갤러리                                |
|          | 개인전                                                             | 정길재             | 6094-2860     | 12/9 ~ 12/15           | 노암갤러리                                 |
|          | 전시                                                              | 이서미             |               | 12월                    | 인사동갤러리                                |
|          | 임승천 개인전                                                         | 임승천             |               | 11/18 ~ 12/1           | 서울시내 소재갤러리                            |
|          | 어반드로잉스:주거의 감각 Urban Drawings:<br>Sense of Dwelling              | 리스투더시티          | 02-916-8652   | 9/25, 12/11, 2010/1/29 | 영국리버풀스태틱갤러리<br>서울벨벳갤러리<br>세문상가        |
|          | 나진숙 개인전                                                         | 나진숙             | 02-578-3133   | 11/25 ~ 12/8           | 그림순 갤러리                               |
|          | 신진 작가 릴레이 쇼 지원 프로젝트                                             | 언더그라운드<br>아트채널  | 070-7555-1138 | 5/1 ~ 2010/1/31        | 오프도시                                  |
|          | 이원경 개인전 (빛으로 비우다)                                               | 이원경             | 02-375-4739   | 12/16 ~ 12/22          | 미술공간현                                 |
|          | 에밀레의 방                                                          | 정재희             | 02-379-1312   | 12/17 ~ 2010/1/16      | 목인갤러리 1,2관                            |
|          | 육체, 살, 그리고 세계<br>( Body, Flesh, and the world)                  | 박은국             | 051-555-9993  | 12월                    | 사비나미술관                                |
|          | 사람이 크는 미술마을 제7,8회<br>주제강연 및 세미나, 미술마을 사람들 전(展)                  | 사람이 크는 미술마을 사람들 | 02-940-4620   | 3/26 ~ 12/31           | 동덕아트갤러리                               |
|          | 하이브리드 지오메트리                                                     | 보로노이아트협회        | 02-2220-0472  | 12/4 ~ 12/13           | 아트파크(ART PARK)                        |
|          | 김영은 개인전                                                         | 김영은             |               | 11/13 ~ 12/22          | 대안공간 루프                               |
|          | 제4회 우무길 조각 개인전                                                  | 우무길             | 031-305-6345  | 12/23 ~ 12/29          | 인사아트센터                                |
|          | The story of two cities : 두 도시의 이야기(전시)                         | 최안나             |               | 12/22                  | 갤러리반디갤러리                              |
|          | 윤영순 전(전시)                                                       | 윤영순             | 070-7550-2298 | 11/26 ~ 12/9           | 인사아트센터                                |
|          | "Planning a Year" (한해 계획세우기)                                    | 권소정             | 02-577-2434   | 11/28 ~ 12/10          | 서울 인사동                                |
|          | Metamorphosis                                                   | 이문주             | 02-6264-2700  | 12/22 ~ 2010/1/24      | 무료가능한 전시장                             |
|          | 디지털 외눈박이                                                        | 김재영             |               | 12/23 ~ 12/29          | 가나아트스페이스                              |



| 구분               | 사업                                         | 단체               | 연락처           | 일시                                                   | 장소                           |
|------------------|--------------------------------------------|------------------|---------------|------------------------------------------------------|------------------------------|
|                  | Lev Kiss(레브 키스-심장에 입맞추다)                   | 별간블라우스           | 02-337-5134   | 12/16 ~ 2010/1/5                                     | art for life(아트 포 라이프)       |
|                  | 원더렌즈 Wonder Lens                           | 김민경              | 031-761-0137  | 12/25 ~ 2010/1/3                                     | 모란갤러리                        |
|                  | 『글로벌 미술시장의 구조와 상황』(가제) 단행본 출간              | 심상용              | 02-940-4620   | 3/1 ~ 12/31                                          | 미점                           |
|                  | 아르텍스처(Artecture)-북아현 3년의 기록                | 푸른사람들            | 070-7563-6919 | 4/1 ~ 2010/2/28                                      | 인사아트센터, 아현역 또는 북아현 주민자치센터    |
|                  | 한남동, 한남동 사람들                               | 류장복              | 031-917-6436  | 12월                                                  | 토포하우스 3관                     |
|                  | 민경숙 개인전                                    | 민경숙              |               | 12/16 ~ 12/29                                        | 염집갤러리                        |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                                            |                  |               |                                                      |                              |
| 연극               |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 극단이루             | 02-747-3226   |                                                      | 선돌극장                         |
|                  | 내 방 왕국 대모험                                 | 극단사다리            | 02-382-5477   |                                                      | 원더스페이스 세모극장                  |
|                  | 락희맨쇼                                       | 극공작소마방진          | 02-3676-7849  |                                                      | 마방진극공작소                      |
|                  | 로맨틱 코미디 '점점(占占)'                           | (주)악어컴퍼니         | 02-764-8760   |                                                      | 충무아트홀 블랙홀                    |
|                  | 언니들                                        | 통편지              |               |                                                      | 통솔아트센터 소극장                   |
|                  | 13월의 길목                                    | 극단 수             | 02-2055-1139  |                                                      | 행복한극장                        |
| 무용               | 미리내 공연                                     | 연극집단反            | 02-764-7501   |                                                      | 동덕여대공연예술센터 대극장               |
|                  | 배추생각                                       | 박나훈무용단           |               |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                  | 세종목관철퍼방상불 "겨울에 듣는 Summer Music"            | 세종목관철퍼방상불        | 02-586-0945   |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                  | 서도소리 창극 - 우리마을이야기 '상춘(賞春)'공연               | (사)서도소리보존회       | 02-2680-6229  |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
|                  | 창작서도연희극 "추풍감별곡"                            | 서도연희극보존회         | 02-521-1345   |                                                      | 국립국악원 예약당                    |
|                  | 가면극음악 프로젝트 "이면공작(裏面工作)"                    | 비빙               | 02-336-5776   |                                                      | LG아트홀                        |
| 국악               | 국악뮤지컬 <오늘, 오늘이>                            | 국악뮤지컬집단타루        | 02-6481-1213  |                                                      | 게릴라극장                        |
|                  | 노름마치Festival                               | 노름마치             | 02-323-2257   |                                                      | JOKERRED(홍대소재클럽)             |
|                  | 은주이야기-인간문화재 이은주명창 방송데뷔 70년 및 미수(88세) 기념 공연 | 이은주경기창연구원        | 02-765-0355   |                                                      | 국립국악원 예약당                    |
|                  | 창작가무악극 "가산오광대 할미의 노래"                      | 정명자예술연구원         | 02-924-7190   |                                                      | 국립극장재오희극장                    |
|                  | 바람의 정거장                                    | 극단무천             | 070-7548-0703 |                                                      |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
|                  | 그림 연희극 도깨비불 [란:燐]                          | CreativeGroup 노니 | 070-7011-7532 | 12/19 ~ 21<br>12/17 ~ 23                             | 구로아트밸리대극장 스페이스 선돌(삼청동북한문화공간) |
| 2009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                                            |                  |               |                                                      |                              |
| 뮤지컬              | 뮤지컬 <빨래>                                   | 명랑씨어터수박          | 02-929-3335   | 7/24~2010/1/3                                        | 학전그린소극장                      |
| 연극               | 연극 <체크 메이트>                                | 극단 드림플레이         | 02-6082-6716  | 12/3 ~ 20                                            | 상상나눔씨어터                      |
|                  | 용녀 이야기                                     | 창작그룹 오기          | 02-6405-4566  | 12/3 ~ 27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
|                  | <두 메데아, medea and its d1uble>              | 극단 서울공작          | 02-923-1810   | 12/17 ~ 27                                           |                              |
|                  | 고래                                         | 극단 백수광부          | 02-813-1674   | 12/31 ~ 2010/1/17                                    | 정보소극장                        |
| 서울열린극장 창동 공연     |                                            |                  |               |                                                      |                              |
|                  | 뮤지컬 '그리스'                                  |                  | 02-994-1469   | 12/4 15:00, 19:30<br>12/5 15:00, 19:00<br>12/6 16:00 | 서울열린극장 창동                    |
|                  | 서울열린극장 창동 송년음악회 '합창'                       |                  | 02-994-1469   | 12/20 시간 미정                                          | 서울열린극장 창동                    |
|                  | 송년명작발레 '호두까기 인형'                           |                  | 02-994-1469   | 12/30 ~ 1/3 시간 미정                                    | 서울열린극장 창동                    |
| 남산예술센터 극장 공연     |                                            |                  |               |                                                      |                              |
|                  | 윤현궁 오라버니                                   | 남산예술센터           | 02-6381-4500  | 12/4 ~ 13                                            | 남산예술센터                       |
|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연 및 전시 |                                            |                  |               |                                                      |                              |
|                  | 홍벨트프로젝트 "What's your position?"            |                  | 02-333-0246   | 12/4 ~ 12                                            |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
|                  | 서교음악싸롱                                     |                  | 02-333-0246   | 매주 월요일 14:00~16:00                                   |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
|                  | Creative Art Channel "C.up 프로젝트"           |                  | 02-333-0246   | 상시방영                                                 |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
| 2009 서울빛축제 프로그램  |                                            |                  |               |                                                      |                              |
|                  | Zone 1 Red   역사의 빛 -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                  |               | 12/19 ~ 2010/1/24<br>상시운영                            | 이순신장군 동상 앞                   |
|                  | Zone 2 Blue   문화의 빛 - 세종문화회관의 '미디어 파사드'    |                  |               | 12/19 ~ 2010/1/24<br>매일 18:30~22:00                  | 세종문화회관 본관, 중앙계단 및 벽면         |
|                  | Zone 3 Green   소통의 빛 - KT빌딩의 '미디어 파사드'     |                  |               | 12/19 ~ 2010/1/24<br>매일 18:30~22:00                  | KT빌딩 정면 외벽                   |
|                  | Zone 4 White   창조의 빛 - 빛의 광장, L-Square     |                  |               | 12/19 ~ 2010/1/24<br>주간 및 야간 운영                      | 광화문광장 일대                     |
|                  | Zone 5   휴식의 빛 - 스케이트                      |                  |               |                                                      | 플라워캐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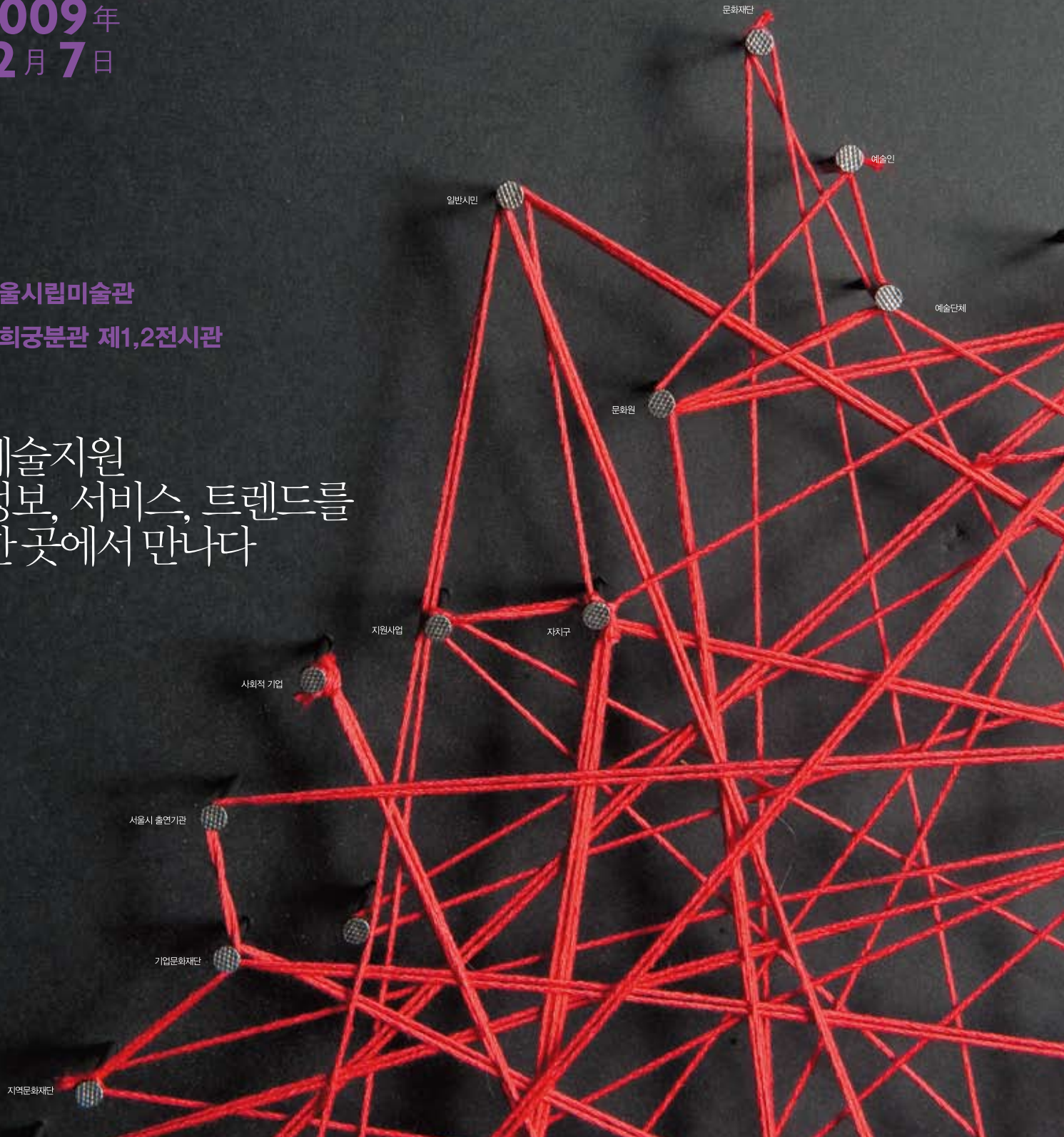
#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 2010 SEOUL ARTS SUPPORT PROGRAMS FAIR

2009年  
12月7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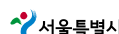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제1,2전시관

예술지원  
정보, 서비스, 트렌드를  
한곳에서 만나다



Hi Seoul

주최



주관



문의



협력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하자센터



## 전 소 정

2006-2009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아트  
2001-20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 개인전

2009 One Man Theater, 성균갤러리, 서울, 한국  
2008 The Finale of a Story, 공근혜 갤러리, 서울, 한국

## 단체전

|        |              |                         |
|--------|--------------|-------------------------|
| 2009 요 | 응uc0모uc0     | 요코하마, 일본                |
| 2009 풀 |              |                         |
| 2006 요 | 자uc0격        | 사진미술관, 서울, 한국           |
| 2004 연 | ○ 전 부uc0문    | 서울, 한국                  |
| 2004 풍 |              | 강, 한국                   |
| 2004 신 | 모uc0집uc0공    | 그림 공모작가전,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
| 2004 공 | uc0고uc0일 기   |                         |
|        | uc0준 만 20세 이 |                         |

## Residen

2010-2011 창동 미술창작 스튜디오, 서울, 한국  
2009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2009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스, 헬싱키, 핀란드  
2009 GlogauAIR,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스, 베를린, 독일

One Man Theater 일인극장

작품에 참여하는 다국적의 퍼포머들은

개인의 공포와 망상에 관한 이야기로 1인극을 꾸미게 된다.

퍼포머 자신의 경험으로 구성되는 이야기는 극을 통해

연기와 실제를 구분하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 낸다.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는

1인을 위한 작은 무대 위에서 연극이 되고 공포와 망상은 무대와 객석,

이야기 하는 자와 이야기를 듣는 자 사이를 유연하며 구체화 된다.

**One Man Theater #4** 참여자 Marc Oliva, inkjetprint, 56x74cm, 2009